

발 간 등 록 번 호

11-1342000-000188-01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

초등학교



교육부

목 차

I. 교육과정의 이해	1
1. 교육과정의 개념	3
2. 교육과정의 법적 근거	7
3.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변천	12
4.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배경 및 방향	25
 II.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35
1. 추구하는 인간상	37
2.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42
3. 학교 급별 교육 목표	48
 III.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53
1. 기본 사항	55
2. 초등학교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	62
3.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66
4. 특수한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73

IV.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77
1. 기본사항	79
2. 교수·학습	91
3. 평 가	100
4.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기회의 제공	103
 V. 학교 교육과정 지원	 107
1. 국가 수준의 지원	109
2. 교육청 수준의 지원	114
 [부록 I] 2015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 Q & A	 133
[부록 II]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141
[부록 III]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신·구 비교	175
[부록 IV] 교육과정의 법적 근거	201
 참고문헌	 219



I . 교육과정의 이해

I. 교육과정의 이해

1. 교육과정의 개념

가. 교육과정의 의미

교육과정(敎育課程)이라는 말은 관점이나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이해될 수 있다. 예컨대 교육을 지식의 전달로 보면 교육과정은 전달하려는 지식 또는 그 한 단위로서 교과들의 체계로 파악할 수 있고 그와는 달리 교육을 인격의 함양 또는 바람직한 능력·특성들의 형성으로 보면 교육과정도 그러한 인격 또는 능력·특성 형성에 적합한 학생들의 경험들을 지칭하기도 한다. 한편으로 그것은 교과 또는 경험들의 계획에 초점을 두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 계획의 시행을 통해 기대되는 학습 결과에 주목하기도 한다.

오늘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은 학생이 경험하는 총체 또는 학교가 제공하는 경험의 총체라는 광의의 의미로 정의해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 계획하고 실천하는 교육과정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는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 목적 및 목표를 포함한다. 즉, 학교에서 계획하고 실천하는 교육과정은 학교의 교육 목적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 내용 또는 학습 경험을 선정하고 조직하고 실천하고 평가하는 제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학교 교육에 적용하고자 하는 교육과정은 ‘교육 목표와 경험 혹은 내용, 방법, 평가를 체계적으로 조직한 교육 계획’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교육과정은 법령에 근거하여 마련되고 실천된다는 점에서 법적 의미를 지닌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중등학교 교육은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교육기본법 제2조에는 우리나라의 교육 이념이 제시되어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시·도 교육감은 이에 근거하여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1항에 의거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에서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고시(公布)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렇게 문서화된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 혹은 ‘2007 개정 교육과정’이라는 명칭을 부여¹⁾해 왔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은 2015년 9월 23일에 개정 고시되었다.

1) 교육과정의 명칭은 전면 개정을 할 경우 ‘1차’, ‘2차’ 등의 차 수에 따른 구분 방식을 택하였고, 수시 개정 체제를 도입한 이후부터는 ‘2007 개정 교육과정’ 등과 같이 개정년도를 밝혀 명명하였다.

‘교육과정’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처음 교육과정 문서에 제시된 것은 문교부령 제35호(1954. 4. 20)로 공포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사범학교 교육과정 시간배당기준령’으로, 여기서는 교육과정을 “각 학교의 교과목 및 기타 교육 활동의 편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였다(제1장 총칙의 제2조). 그 이후, 문교부령 제119호(1963. 2. 15.)로 공포된 제2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을 “학생들이 학교의 지도하에 경험하는 모든 학습 활동의 총화”를 의미한다고 하였다(제2장 교육과정 구성의 일반 목표).

제6차 교육과정²⁾에서는 처음으로 교육과정의 성격을 명시함으로써 국가 수준에서 문서로 고시하는 교육과정의 법적 의미를 분명하게 밝혔다. 즉 교육부 장관이 법령에 의거 결정, 고시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초·중등학교의 교육 내용에 관한 전국의 공통적, 일반적 기준을 말하며, 여기에는 초·중등학교에서 편성·운영해야 할 교육과정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 운영 등에 관한 국가 수준의 기준 및 기본 지침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이와 같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편성·운영하는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은 단순히 교육 목표와 내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교육 경험의 질’을 관리하는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 목표와 내용, 방법, 평가, 운영 방식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구성 요소에 영향을 주는 제 요인이 관련된다.

제7차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1997. 12. 30.)은 제6차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교육 법령에 따라 고시한 국가 수준의 기준임을 명시하고, ①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교육과정, ②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 ③ 교원·학생·학부모가 함께 실현하는 교육과정, ④ 학교 교육을 교육과정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정, ⑤ 교육의 질적 수준을 발전시키기 위한 교육과정이라는 구체적 성격을 강조하였다. 특히 제6차 교육과정에 이어 제7차 교육과정의 이론 모형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학교 교육에서 우리나라의 교육 실정과 미래 교육에 적합한 현실적 접근을 시도하기 위해 교육과정 탐구의 현실적, 상황적 패러다임을 택하여 여러 가지 이론의 절충적, 종합적인 입장에서 교육과정의 개념을 규정하였다.³⁾ 이러한 교육과정의 개념적 입장은 이후 개정된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견지되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국가 교육과정의 의미를 “전국의 초·중등학교에서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교육을 해야 할 것인지를 제시한 설계도이며 기본적인 틀”이라고 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2) 초등학교의 경우 교육부 고시 제1992-16호(1992. 9. 30.), 중학교는 교육부 고시 제1992-11호(1992. 6. 30.), 고등학교는 교육부 고시 제1992-19호(1992. 10. 30.)이다.

3) 제7차 교육과정에서도 제6차 교육과정에서 정의된 교육과정의 의미가 그대로 강조되었다. 즉 교육과정의 의미 속에는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과 시·도 교육감이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각급 학교에 제시하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그리고 이들 기준과 지침을 근거로 하여 실제로 교육에 투입될 수 있도록 각 학교에서 실정에 맞게 조정, 편성된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 또한, 여기에 부가적으로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실제 교실 수업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교사가 계획해 놓은 구체적인 교수·학습 계획(연간, 월간, 주간)도 교육과정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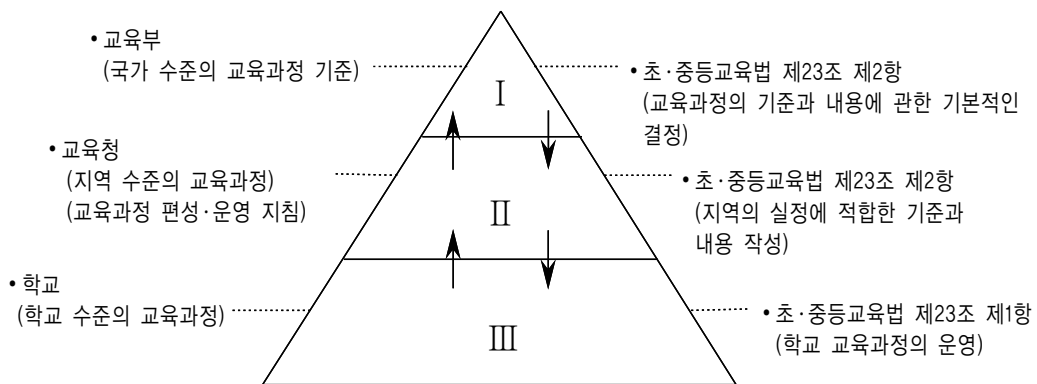
이러한 개념을 토대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인간상을 구체화할 뿐만 아니라 학생이 학습한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핵심역량’으로 제시함으로써 교육과정의 의미를 보다 체계화 하였다.

나. 교육과정의 수준

1)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와 수준 분화

교육과정 개발·운영과 관련하여 그것을 결정하고 통제하는 주체가 누구이며 그 결정과정이 중앙집권적인가 분권적인가 하는 문제는 교육과정 실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국가의 교육과정 통제방식은 대개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방식, 지역(시·도 교육청)이 주도하는 방식, 학교와 교사들이 주도하는 방식 등으로 구분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제5차 교육과정까지 주로 교육부 주도의 중앙집권적 교육과정 결정 방식을 채택하여 학교 교육과정의 모든 것이 중앙에서 결정되고 학교는 이를 시행하는 역할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 및 교육과정 자율화가 확대되면서 제6차 교육과정 이후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도 초·중등 교육의 다양화·지역화·자율화를 위해 교육과정 결정 방식의 분권화를 시도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교육과정 결정의 주체에 따른 각 수준은 [그림 I-1]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그림 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에서 고시한 교육과정의 공통적, 일반적인 ‘기준(I)’과 이 기준에 따라 지역별로 그 지역의 특성과 역사, 전통, 자연, 산업, 사회, 문화 및 주민·학부모의 요구, 의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만든 교육청의 ‘지역 수준 교육과정’(II)이 있다. 또한, 각 학교의 실정 및 학생의 실태, 학교 환경, 교원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창출한 ‘학교 교육과정’(III)이 있다. 특히 (I)과 (II)는 학교 수준 교육과정과 교사 수준의 교수·학습 계획 수립의 바탕이 되는 기준과 지침인 동시에 그 지원 관리 체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림 I-1] 교육과정의 수준

출처: 이미숙 외(2013: 55)

2) 국가 수준 교육과정

우리나라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란 초·중등학교의 교육 목적과 목표 달성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⁴⁾에 입각하여 교육부 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교육 내용에 관한 전국 공통의 일반적 기준을 의미한다. 이 기준에는 초·중등학교에서 편성·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교육 목표와 내용, 방법과 운영, 평가 등에 관한 국가 수준의 기준 및 지침이 제시되어 있다.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고시되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의도적인 제도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 평가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지원과 관계되는 교육행정 및 재정, 교원의 양성·수급·연수, 교과서 등의 교재 개발, 입시 제도, 교육 시설·설비 등에 대한 정책 수립과 집행의 근거가 되는 ‘교육의 기본 설계도’로서 기능하게 되며, 학교 교육과정의 기준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 기준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격에도 그 의미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 기준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동시에 이 기준은 교육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교육적 기준이므로 국가 교육과정 기준을 지역 및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운영하는 것 또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3) 지역 수준 교육과정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편성·운영하여야 할 교육 내용의 공통적, 일반적 기준이므로 각 지역의 특수성과 각 학교의 다양한 요구와 필요를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모두 반영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시·도 교육청 수준에서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 획일적으로 제시하기 어렵거나 세밀하게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을 그 지역의 특수성과 학교의 실정, 학생의 실태, 학부모 및 지역 사회의 요구, 그리고 해당 지역과 학교의 교육 여건 등에 알맞게 정하여야 한다. 또한, 그 지역의 교육 중점 등을 설정하여 관내의 각급 학교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때의 준거로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학교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은 국가 기준과 학교 교육과정을 자연스럽게 이어 주는 교량적 역할을 하게 되며, 장학 자료, 교수·학습 자료 및 지역 교재 개발의 기본 지침이 될 수 있다.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을 설정하는 법적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 등에 제시되어 있다.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육청 수준 지원 사항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즉 지역의 특수성, 교육의 실태, 학생·교원·주민의 요구와 필요 등을 반영하여 교육 중점을 설정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이 제시된 이러한 근거는 각 시·도 교육청에

4) 초·중등교육법(법률 제14158호, 일부 개정 2016. 5. 29.) 제23조 제2항에는 교육부 장관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

서 각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전문적이고 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을 적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학교 수준 교육과정

국가 수준에서 학교 교육과정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중앙집권적 교육과정 체제에서의 교사의 역할은 위로부터 부여받은 교육과정을 단순히 실행하는 것으로 한정되었다. 이때 학교와 교사의 역할은 국가가 제시한 교육과정을 받아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것인가에 국한된 것이다. 그렇지만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와 교육과정에 대한 학교의 자율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오면서 교사의 역할이 종래와 같이 교육과정 실행자 및 사용자, 교수자에만 한정되지 않고 교육과정에 대한 의사 결정자로도 확대되었다. 말하자면 교육과정의 최종적 실천자인 교사가 바로 교육과정의 최종 결정자이고 개발자로 자리매김된 것이다.

따라서 교육의 실천자이고 교육의 주체인 교사가 교육 내용과 방법을 결정하고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주요한 과제가 되었다. 각 학교에서 일련의 교육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중점 교육 내용과 방법을 선택하고자 할 때 그 근거가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국가 교육과정 기준과 시·도 교육청 지침이기 때문에 교사들은 이 기준과 지침을 자세히 분석하는 동시에 학교의 학생·교원 실태, 교육 실태, 교육 시설·설비, 교육 자료 등의 교육 여건 등을 잘 파악하여야 한다. 학교의 여건과 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에 기초하여 학생들에게 실천 가능한 교육 설계를 마련하고, 그러한 설계도에 담긴 특색을 구현할 수 있는 운영 계획 및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학교 수준 교육과정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교사는 교육과정 실행자로서 뿐만 아니라 개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며 이에 필요한 전문성 신장이 지속적으로 요구될 것이다.

2. 교육과정의 법적 근거

교육과정과 관련되는 법령은 크게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그 외의 기타 법령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교육과정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령의 개요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하였다.

가. 대한민국헌법

헌법 제31조에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등이 보장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나. 교육기본법

교육기본법 제2조에는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우리나라의 교육 이념이 명시되어 있다.

다. 초·중등교육법

1) 초등학교의 교육 목적

초·중등교육법 제38조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으로 초등학교의 교육 목적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초등학교 교육 목표는 교육부에서 고시하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다.

2) 교육과정 및 교과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는 학교가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하며 교육부 장관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이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 시·도교육청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서는 학교의 교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3조는 초등학교의 기본 교과로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영어)와 교육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로 명시하고 있다. 교육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는 교육부에서 고시하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다.

3) 학기, 학급 편성, 수업 운영

초·중등교육법 제24조에는 학교의 학년도를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규정하고, 학교의 학기, 수업일수, 학급 편성, 휴업일과의 반의 편성·운영, 그밖에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즉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4조(학기), 제45조(수업일수), 제46조(학급편성), 제47조(휴업일 등),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제49조(수업시각) 등으로 정하고 있다.

4) 학년제

초·중등교육법 제26조는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하도록 하되, 학교의 장은 관할 청의 승인을 얻어 학년제 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도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5)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격 장애나 지적 기능 저하 등으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을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 일수 및 교육과정의 신축적 운영 방식 등을 강구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6) 수업연한,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초·중등교육법 제39조에 초등학교의 수업 연한은 6년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동법 제27조에 예외적으로 학교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업연한을 단축하여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조기진급·조기졸업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7) 교과용 도서의 사용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와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9조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 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의 교과용 도서의 범위, 저작, 검정, 인정, 발행, 공급, 선정 및 가격 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교과용도서의 사용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8)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서는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공립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사립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9) 장학 지도

초·중등교육법 제7조는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이 학교에 대하여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방법 등에 대한 장학 지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장학 지도 실시 세부 계획 수립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조)으로 규정하고 있다.

10) 학교 규칙

초·중등교육법 제8조는 학교장이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1) 학생 자치 활동

초·중등교육법 제17조는 학생 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자치 활동이 권장, 보호되도록 하고 있다.

12) 평가 및 학교생활 기록

초·중등교육법 제9조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 교육 행정 기관과 그 관할하는 학교를 평가할 수 있다. 동법 제25조는 학교의 장이 학생의 학업 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 지도 및 상급 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교육부령이 정하는 기준(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라. 기타 법령

기타 교육과정과 관련되는 법령으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학교보건법, 저작권법, 과학교육 진흥법, 영재교육 진흥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유아교육법,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등을 들 수 있다.

교육과정과 관련되는 법적 근거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각 조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표 I-1〉 교육과정의 법적 근거

교육과정 관련 사항	법적 근거
국가수준 교육과정 기준 설정	헌법 제31조 제1항 헌법 제31조 제4항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
국가 교육과정 기준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지침, 법적 기준	교육기본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
초등학교의 교육 목적 규정	초·중등교육법 제38조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1항
교과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3항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3조
학사일정 운영	초·중등교육법 제24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4조, 제45조
학급편성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6조
학교의 휴업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7조
수업 운영 방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
중학교 자유학기 운영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4조, 제48조
교류학습, 체험학습의 수업일수 인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 제5항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9조
진급과 졸업	초·중등교육법 제26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
초등학교 수업연한 규정	초·중등교육법 제39조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초·중등교육법 제27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3조
학습 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초·중등교육법 제28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4조
교과용 도서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5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32조
장학 지도	초·중등교육법 제7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조
학생 자치활동	초·중등교육법 제17조
학교 규칙 제정	초·중등교육법 제8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평가 및 평가결과 기록	초·중등교육법 제9조, 제25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2조

3.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변천

가. 교육에 대한 긴급 조치의 시기(1945년)

8·15 광복과 더불어 우리나라는 35년간에 걸친 일본의 강점 하에서 벗어났으나, 미군이 진주함에 따라 미군이 우리나라의 국정을 통치하게 되었다. 미군정청 학무국에서는 ‘신조선의 조선인을 위한 교육 방침’을 통해 일본 제국주의적 색채를 없애도록 하고 초·중등학교 교과목 및 주당 교수 시수표를 시달하였다. 이때의 임시 교과목 및 교과 시수표는 일제 강점기 말기의 심상소학교의 교과목 및 수업 시수표를 근간으로 개정된 임시방편의 것이었다.

하지만 이 시기의 교육과정은 새로운 민주 시민 양성을 위해 수신과를 폐지하고 공민과를 등장시킨 점, 일본어 중심의 국어가 우리의 말과 글 중심의 국어로 바뀐 점, 일본 역사가 우리 국사로 대체된 점 등에서 일본 제국주의적 색채를 없애고 신생 국가로서의 교육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교과 편제와 시간 배당은 광복 직후 초등학교를 개교하기에 앞서 긴급히 결정된 것이어서 이후 수정하여 운영되었다. 이전에 비해 교과 편제에는 습자·요리·재봉, 도화·공작 및 실과가 추가되어 시간 배당이 늘었고, 4학년 이상은 교과 편제와 시간 배당이 남녀별로 다르게 되어 있었다.

〈표 I-2〉 초등학교 과목 및 교수 시수표(1945. 10.)

학년 교과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공민	2	2	2	2	2	2
국어	8	8	8	7	6	6
역사	—	—	—	—	2	2
지리	—	—	—	1	2	2
산수	6	6	7	5	5	5
이과	—	—	—	3	3	3
체조	4	4	5	3	3	3
음악	—	—	—	2	2	2
습자	—	—	1	1	1	1
요리·재봉	—	—	—	여 3	여 3	여 3
도화·공작	2	2	2	남 3 여 2	남 4 여 3	남 4 여 3
실과	—	—	—	남 3 여 1	남 3 여 1	남 3 여 1
계	22	22	25	30	33	33

출처: 문교부, 편수 자료 I-교육과정 변천 및 편수 일반-, (서울: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1990), p.3.

나. 교수요목의 시기(1946년)

이 시기는 교육과정의 개념상 교수요목과 교육과정을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았으며, 교수요목이란 교과별로 가르칠 내용의 주제 또는 제목을 열거한 것에 불과하였다. 이 시기 문헌에 나타난 교수요목의 특징은 먼저 교과와 지도 내용을 상세히 표시하고 기초 능력을 배양하는 데 주력하였고 교과는 분과주의를 채택하였으며 체계적인 지도와 지력의 배양에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육 목표인 ‘홍익인간’의 정신에 입각하여 애국·애족 교육을 강조하였다.

이 시기 교과별 교수요목의 특징은 첫째, 교육과정의 진술 체제가 교과별로 통일되어 있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교과가 단원 또는 제재명과 내용 요소만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각 교과마다 단원 또는 제재별로 이수할 시간 수를 밝히고 있다. 셋째, 내용 요소의 진술 형식이 설문 형식, 단순한 내용 요목 형식 등 교과에 따라 달랐다. 넷째, 교과와 편제는 실과가 없어진 것을 제외하면 대체로 지금과 비슷한 편제를 갖추었다. 다섯째, 가장 특색 있는 것은 ‘사회생활과’의 탄생으로, 사회생활과는 공민, 역사, 지리, 직업, 자연 관찰(1~3학년)을 종합하여 편성한 교과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교양을 내용으로 하며, 특히 민주 시민을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두고 편제되었다. 1, 2, 3학년에 이과 시간을 배당하지 않은 대신, 그 내용을 사회생활과에서 ‘자연 관찰’이라는 이름으로 학년별로 연간 38시간씩 이수하도록 하였고, 실과의 내용은 남자의 경우 5, 6학년 사회과와 미술과에서, 여자는 가사과에서 그 내용을 포함하여 다루도록 하였다.

〈표 I-3〉 교수요목 시기의 초등학교 교과목 및 연간 수업 시간표(1946. 9.)

교과 \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국어	360	360	360	360	320	320
사회생활	160	160	200	200	남 240 여 200	남 240 여 200
이과	-	-	-	160	160	160
산수	160	160	200	200	200	200
보건	200	200	200	200	200	200
음악	80	80	80	80	80	80
미술	160	160	160	160	남 160 여 120	남 160 여 120
가사	-	-	-	-	여 80	여 80
계	1,120(28)	1,120(28)	1,200(30)	1,360(34)	1,360(34)	1,360(34)

※ 시간은 1년을 40주로 하여 교과별 주간 이수 시간을 나타낸 것임.

출처: 함종규, 한국 교육과정 변천사 연구(전편),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1983), p.189.

다. 제1차 교육과정의 시기(1954년)

교육법에 근거한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표’와 ‘교과 과정’은 우리 손으로 만든 최초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이라는 점에서 ‘제1차 교육과정’으로 불린다. 교육과정의 명칭 자체도 교육과정이라는 용어 대신에 ‘교과 과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에서 교과 교육과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의 교육과정은 ‘교과 중심’이었으나 미국 진보주의 교육의 영향으로 교과서는 ‘생활 중심’을 지향하고 있었으며, 교육과정 편제에서 최초로 교과 외에 특별 활동이 편성되어 전인 교육을 강조하였다. 또한 광복 후의 사회적 혼란과 6·25 전쟁으로 인한 도덕적 타락이 현저하게 나타남에 따라 반공 교육, 도의 교육, 실업 교육을 강조하였다.

〈표 I-4〉 제1차 교육과정 시기의 국민 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표(1954. 4. 20.)

학년 교과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국어	25~30% (240~290분)	25~30% (250~300분)	27~20% (290~220분)	20~23% (220~260분)	20~18% (240~220분)	20~18% (250~220분)
산수	10~15 (100~140)	10~15 (100~150)	12~15 (130~160)	15~10 (170~110)	15~10 (180~120)	15~10 (190~120)
사회생활	10~15 (100~140)	10~15 (100~150)	15~12 (160~130)	15~12 (170~130)	15~12 (180~140)	15~12 (190~150)
자연	10~8 (100~80)	10~8 (100~80)	10~15 (110~160)	13~10 (140~110)	10~15 (120~180)	10~15 (120~190)
보건	18~12 (170~120)	15~12 (150~120)	15~10 (160~110)	10~12 (110~130)	10~12 (120~140)	10~12 (120~150)
음악	12~10 (120~100)	15~10 (150~100)	8~10 (90~110)	8~5 (90~60)	8~5 (100~60)	8~5 (100~60)
미술	10~8 (100~80)	10~8 (100~80)	8~10 (90~110)	7~10 (80~110)	10~8 (120~100)	10~8 (120~100)
실과	-	-	-	7~10 (80~110)	7~10 (80~110)	7~10 (90~130)
특별 활동	5~2 (50~20)	5~2 (50~20)	5~8 (50~80)	5~8 (60~100)	5~10 (60~120)	5~10 (60~120)
계	100% (960분)	100% (1,000분)	100% (1,080분)	100% (1,120분)	100% (1,200분)	100% (1,240분)
연간 총 수업시간수	840시간 (24)	875시간 (25)	945시간 (27)	980시간 (28)	1,050시간 (30)	1,085시간 (31)

① 백분율은 각 교과 및 특별 활동의 1년간 수업 시간에 대한 학년별 시간 배당을 표시함.

② () 안의 숫자는 매주 평균 수업 시간을 표시함.

출처: 문교부령 제35호, 국민 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사범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 별표1, 국민 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표, 1954. 4. 20.

라. 제2차 교육과정의 시기(1963년)

제1차 교육과정에서 별도로 공포했던 ‘교육과정 시간배당 기준령’과 ‘교과 과정’을 통합하여 일련의 체계를 갖춘 교육과정을 공포하였다. 교육과정이 교과활동 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의 전 활동과 관련된 계획임을 분명히 하고자 ‘교과 과정’이라는 명칭 대신 ‘교육과정’이라 하였다.

이 시기의 교육과정은 생활 중심 교육과정으로서의 성격을 표방하였다. 교육과정 내용 면에서는 자주성, 생산성, 유용성을 강조하고, 교육과정 조직 면에서는 합리성, 교육과정 운영 면에서는 지역성을 강조함으로써 경험 중심, 생활 중심 교육과정 성격을 뚜렷이 하고 있다. 학교 급 간의 연계성과 교과 간의 통합성을 강조하였는데, 특히 국민 학교의 1, 2학년에서 각 교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종합(통합) 지도가 가능하도록 하고, 특별 활동의 시간 배당을 학교의 실정에 맞게 신축성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하였다. 국민 학교 교육과정의 편제는 교과 활동, 반공·도덕 생활, 특별 활동의 세 영역으로 나누었으며, 학교 수업 일수는 연간 35주를 기준으로 단위 수업 시간은 40분이나 각 학교의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였다.

1969년 부분 개정에서는 반공·도덕 생활을 강화하고 특별 활동을 체계화하고 강조하였으며, 국어과에서 완전한 한글 전용 실시를 위하여 한자 교육을 하지 않도록 하였다.

〈표 I-5〉 제2차 교육과정 시기에 부분 개정된 국민 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1969. 9. 4.)

구분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교과	국어	6~5.5	6~7	6~5	5~6	6~5.5	5~6
	산수	4~3	3~4	3.5~4.5	4.5~4	4~5	5~4
	사회	2~2.5	3~2	3~4	4~3	3~4	4~3
	자연	2~2.5	2~2.5	3.5~3	3~3.5	4~3	4~3
	음악	1.5~2	2~1.5	2~1.5	1.5~2	2~1.5	1.5~2
	체육	2.5~3	3~2.5	3~3.5	3.5~3	3~3.5	3~3.5
	미술	2~1.5	2~1.5	2~1.5	1.5~2	2.5~1.5	1.5~2.5
	실과	-	-	-	2~1.5	2.5~3	2.5~3.5
반공·도덕		2	2	2	2	2	2
계		22	23	25	27	29	29
특별 활동		1.5~	1.5~	2~	2~	2.5~	2.5~

출처: 문교부령 제251호, 국민 학교 교육과정, 1969. 9. 4.

마. 제3차 교육과정의 시기(1973년)

제3차 교육과정은 1968년 선포된 국민교육헌장의 이념과 1960년대부터 미국에서 새롭게 대두된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사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국민 교육 헌장 이념 구현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국민적 자질의 함양 및 인간 교육의 강화, 지식·기술의 쇄신 등을 기본 방침으로 하여 자아실현(개인)과 국가 발전 및 민주적 가치함양(사회)을 교육 목표로 하였다.

교육과정 편제 면에서는 ‘반공·도덕 생활’이 없어지고 ‘도덕’과가 교과로 독립함에 따라 교과와 특별 활동의 이원적 구조를 갖추게 되었으며 교과는 총 9개가 되었다. 중등학교에서는 ‘도덕’과와 함께 ‘국사’도 교과로 독립하였으나, 국민 학교에서는 종전대로 사회과 내의 국사 분야로 유지되되, 5, 6학년에서 국사 부분의 내용을 따로 편성하고 교과서도 따로 편찬하도록 하였다.

시간 배당 면에서는 기존과 달리 교과별·학년별로 연간 최소 시간(단, 괄호 안에 주당 시간 표시)으로 단일화하였다. 또한, 수업 시간 단위를 40분 또는 45분으로 하였는데, 이것은 1~6학년의 성장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활용하려는 취지였다. 특히 교육 내용에서 국민 학교 1학년부터 ‘집합’의 개념이 도입된 것은 종래의 생활 수학을 탈피한 획기적인 일이었다. 제1차와 제2차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1, 2학년의 학습 활동은 ‘가급적 관련 있는 교과를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지도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특별 활동의 영역은 학급 활동, 클럽 활동, 아동회 활동, 학교 행사의 네 영역으로 구성하였고, 학교 행사의 시간은 별도로 확보하도록 하였다.

〈표 1-6〉 제3차 교육과정 시기의 국민 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1973. 2. 14.)

구분 \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교과	도덕	70(2)	70(2)	70(2)	70(2)	70(2)	70(2)
	국어	210(6)	210(6)	210(6)	210(6)	210(6)	210(6)
	사회	70(2)	70(2)	105(3)	105(3)	140(4)	140(4)
	산수	140(4)	140(4)	140(4)	140(4)	175(5)	175(5)
	자연	70(2)	70(2)	105(3)	140(4)	140(4)	140(4)
	체육	70(2)	105(3)	105(3)	105(3)	105(3)	105(3)
	음악	70(2)	70(2)	70(2)	70(2)	70(2)	70(2)
	미술	70(2)	70(2)	70(2)	70(2)	70(2)	70(2)
	실과	-	-	-	70(2)	70(2)	105(3)
계		770(22)	805(23)	875(25)	980(28)	1,050(30)	1,085(31)
특별 활동		35~ (1~)	35~ (1~)	52.5~ (1.5~)	52.5~ (1.5~)	52.5~ (1.5~)	52.5~ (1.5~)

※ 사회과 5,6학년 시간 배당 140(4) 중, 70(2) 시간은 해당 학년의 국사 부문에 배당한다.

출처: 문교부령 제310호, 국민 학교 교육과정, 1973. 2. 14.

바. 제4차 교육과정의 시기(1981년)

제4차 교육과정은 1980년대 정치, 사회적 특수 상황과 7·30 교육개혁조치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 개발하게 되었다. 이 교육과정은 민주 사회, 고도 산업 사회, 건전한 사회, 문화 사회, 통일 조국 건설에 필요한 건강한 사람, 심미적인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도덕적인 사람, 자주적인 사람을 길러내는 데 목적을 두었다. 교육과정을 ‘문서화된 계획’으로 보았고, 한 사조나 이념을 고수하는 것에서 벗어나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을 가진 미래 지향적 교육과정이라는 인식이 반영되었다.

기본 편제는 교과와 특별 활동의 두 영역으로 나누어 편성하였으며, 교과 교육과정은 도덕, 국어, 사회, 산수, 자연, 체육, 음악, 미술, 실과의 9개 교과로, 특별 활동은 어린이회 활동, 클럽 활동, 학교 행사의 세 영역으로 편성되었다. 그리고 1~2학년에서 교과 간의 통합을 시도하여 바른 생활(도덕+국어+사회)과 즐거운 생활(체육+음악+미술), 슬기로운 생활(산수+자연)이라는 통합 교과서를 간행하였고, 이에 따른 교과의 통합 운영을 위해 1, 2학년의 교과 활동 시간을 2~3 교과를 합쳐서 시간을 배당한 것이 커다란 변화이다. 1, 2학년에서의 교과 간 통합시간 배당은 실제 운영에서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움 생활’ 교과서를 탄생시켜 제5차 교육과정에서 통합교과 설정의 길을 열었다. 또한 교과 활동 총 이수 시간의 5%에 해당하는 시간을 감축 운영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였고, 1~3학년의 국어 시간을 1시간 늘리고, 특별 활동 시간을 3학년부터 배당하였다.

〈표 I-7〉 제4차 교육과정 시기의 국민 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1981. 12. 31.)

구분 \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교과	도덕	374 (11)	374 (11)	68(2)	68(2)	68(2)
	국어			238(7)	204(6)	204(6)
	사회			102(3)	102(3)	136(4)
	산수	204 (6)	136(4)	136(4)	136(4)	170(5)
	자연		68(2)	102(3)	136(4)	136(4)
	체육	204 (6)	238 (7)	102(3)	102(3)	102(3)
	음악			68(2)	68(2)	68(2)
	미술			68(2)	68(2)	68(2)
	실과				68(2)	68(2)
	계	782(23)	816(24)	884(26)	952(28)	1,020(30)
특별 활동			34~(1~)	68~(2~)	68~(2~)	68~(2~)
총 계	782 (23)	816 (24)	918~ (27~)	1,020~ (30~)	1,088~ (32~)	1,088~ (32~)

출처: 문교부 고시 제442호, 국민 학교 교육과정, 1981. 12. 31., p.94.

사. 제5차 교육과정의 시기(1987년)

제5차 교육과정은 종전과 달리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만을 개정한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았으며 개인적, 학문적, 사회적 적합성을 고루 갖춘 종합적 접근 방식을 택하고 있다. 개정 방침을 교육과정의 적정화, 내실화, 지역화에 두고 있으며, 개정의 전략으로 지속성, 점진성, 효율성을 제시하였다. 교육 내용과 운영 면에서의 개정의 중점을 기초 교육의 강화(1, 2학년 국어·산수와 독립), 통합 교육과정 구성, 정보화 사회 대응 교육 강화(컴퓨터 교육, 경제 교육), 교육과정의 효율성 제고(교육과정 해설서 발간) 등에 두었다.

1, 2학년은 통합 교과서를 발행했던 제4차와 달리 통합 교육과정 체제로 바꾸었고, 언어와 수리 기능을 중점적으로 지도하기 위해 ‘국어’와 ‘산수’는 통합 교과서에서 분리시켰다. 또한 1학년의 ‘우리들은 1학년’을 교과로 독립시켜 70시간을 배당하여 연간 수업 시간 수가 제4차 교육과정에 비해 증가하였다. 그리고 특별 활동 시간 운영의 현실화를 위해 1~6학년에 걸쳐 특별 활동 시수를 다시 배정하였다.

교육과정 사상 처음으로 1교과 다중 교과서를 채택해(국어: 말하기·듣기, 쓰기, 읽기, 산수: 산수, 산수 익힘책 등) 교과서의 종류와 책 수가 대폭 늘어났으며, 처음으로 지역별(시·도 단위) 교과서를 개발하여 교육과정의 지역화가 뚜렷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그밖에 1, 2학년의 경우 학생의 활동 상황, 진보의 정도, 특징 등을 문장으로 기술하도록 한 것과 심신 장애자를 위한 특수 학습의 교육과정 운영 지침을 포함시킨 점이 특징이며,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은 이원적 구조로 제시하여, 1, 2학년의 교과 구조를 명확히 하였다.

〈표 I-8〉 제5차 교육과정기의 국민 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1987. 6. 30.)

구분 \ 학년		1학년		2학년
교과 활동	국어	우리들은 1학년 70	210(7)	238(7)
	산수		120(4)	136(4)
	바른 생활		120(4)	136(4)
	슬기로운 생활		60(2)	68(2)
	즐거운 생활		180(6)	238(7)
특별 활동		30(1)		34(1)
계		790(24)		850(25)

구분 \ 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교과	도덕	68(2)	68(2)	68(2)	68(2)
	국어	238(7)	204(6)	204(6)	204(6)
	사회	102(3)	102(3)	136(4)	136(4)
	산수	136(4)	136(4)	170(5)	170(5)
	자연	102(3)	136(4)	136(4)	136(4)
	체육	102(3)	102(3)	102(3)	102(3)
	음악	68(2)	68(2)	68(2)	68(2)
	미술	68(2)	68(2)	68(2)	68(2)
	실과	-	68(2)	68(2)	68(2)
특별 활동		68(2)	68(2)	68(2)	68(2)
계		952(28)	1,020(30)	1,088(32)	1,088(32)

출처 : 문교부 고시 제87-9호, 국민 학교 교육과정, 1987. 6. 30. pp.4~5.

아. 제6차 교육과정의 시기(1992년)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중앙 집권형 교육과정’을 ‘지방 분권형 교육과정’으로 전환하여 시·도 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재량 권한을 확대하였으며,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있어서 중앙·지방·학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분담하는 새로운 교육과정 편성·운영 체제를 확립하였다.

제6차 교육과정은 개정에 있어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교육 내용의 획일성, 경직성, 폐쇄성 해소, 자율재량 확대), 교육과정 구조의 다양화(다양한 이수과정, 선택 확대, 시대적 요구 반영), 교육과정 내용의 적정화(학습 부담 경감, 학습량·수준 조정, 이수 내용의 성차별 철폐), 교육과정 운영 효율화(학생의 적성·능력·진로 중시, 교육 방법 및 평가의 개선) 등 네 가지를 중점으로 삼았으며, 추구하는 인간상은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으로 설정하였다.

기본 편제는 교과, 특별 활동, 학교 재량 시간의 세 영역으로 구성하였으며, 학교 재량 시간의 신설과 입학 초기 학교 적응 활동(우리들은 1학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교재개발을 시·도 교육청에 위임한 것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지역화, 자율화, 다양화를 위한 교육과정 편제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그 밖의 특징으로는 기본 생활 습관과 예절교육 강화, 저학년 통합 교과의 합리적 조정, 고학년의 수업 시간 감축, 생활 기초 기능과 태도 교육 강화, 학교 재량 시간의 신설, 산수를 수학과로 교과 명칭 변경 등이 있다. 또한 1995년 제6차 교육과정에서 부분 개정된 국민 학교 교육과정은 영어를 정규 교과로 신설하고 3~6학년에 주당 평균 2시간의 수업 시간을 배당하여 외국어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였다.

〈표 1-9〉 제6차 교육과정 시기의 국민 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1992. 9. 30.)

구분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교과	도덕	바른 생활 60 68		34	34	34	34
	국어	210	238	204	204	204	204
	수학	120	136	136	136	170	170
	사회	슬기로운 생활 120 136		102	136	136	136
	자연			102	136	136	136
	체육	즐거운 생활 180 238		102	102	102	102
	음악			68	68	68	68
	미술			68	68	68	68
	실과	-	-	34	34	34	34
특별 활동		30	34	34	68	68	68
학교 재량 시간		-	-	34	34	34	34
연간 수업 시간 수		790(70)	850	952	986	1,054	1,054

① 이 표의 시간 수는 34주를 기준으로 한 연간 최소 시간 수입(1학년은 30주로 함).

② 1단위 시간은 40분을 원칙으로 함.

③ 1학년 연간 수업 시간 수 790시간 중 (70)시간은 입학 초기 학교 적응 활동(3월)에 배당하여야 함.

출처: 교육부 고시 제1992-16호, 국민 학교 교육과정, 1992. 9. 30. p.2.

자. 제7차 교육과정의 시기(1997년)

제7차 교육과정은 대통령 자문 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의 교육 개혁 방안을 토대로 이루어졌으며, 기본 방향을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으로 설정하였다. 추구하는 인간상은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인간상’으로서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기초 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민주 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이다.

이 시기의 특징으로는 먼저 초·중·고등학교의 학교 급별 구분을 없애고, 1학년부터 10학년(고등학교 1학년)까지 10년 동안을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으로 설정한 것이다. 또한 학년제 또는 단계 개념에 기초하여 교육 내용의 중복, 비약을 피하여 기본 교과 중심의 일관성 있는 교육과정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학생의 필요, 능력, 적성, 흥미에 대한 개인차를 최대한 고려한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하였으며, 재량 활동을 신설·확대하여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촉진하고 학교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기본적 언어 능력, 수리적 사고 능력, 기초 체력, 탐구력과 창의성, 기본 생활 습관 등 기초·기본 교육의 충실을 강조하였다. 1, 2학년의 통합 교과 운영은 교과와 교과 간의 통합 개념에서 탈피하여 활동 중심 주제의 융통성 있는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 교과 개념을 재정립하고, 열린 교육 체제를 확립하였다. 학년제와 과목군 개념 도입에 따라 ‘자연’과 ‘영어’ 교과는 ‘과학’과 ‘외국어(영어)’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실습 중심의 실과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실과 시간은 5,6학년에 집중적으로 배정하였다. 또한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의 신장을 위해 재량 활동을 확대하였고, 특별 활동은 활동 내용을 중심으로 자치 활동, 적응 활동, 계발 활동, 봉사 활동, 행사 활동의 5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영역별 목표를 설정하였다.

〈표 I-10〉 제7차 교육과정 시기의 초등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1997. 12. 30.)

학 교		초 등 학 교					
구분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교과	국어	국 어		238	204	204	204
	도덕	210	238	34	34	34	34
	사회	수 학		102	102	102	102
	수학	120	136	136	136	136	136
	과학	바른 생활		102	102	102	102
	실과	60	68	-	-	68	68
	체육	슬기로운 생활		102	102	102	102
	음악	90	102	68	68	68	68
	미술	즐거운 생활		68	68	68	68
	외국어(영어)	180	204	68	68	68	68
		우리들은 1학년		34	34	68	68
		80					
재량 활동		68	68	68	68	68	68
특별 활동		30	34	34	68	68	68
연간 수업 시간 수		830	850	986	986	1,088	1,088

- ① 이 표의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에 제시된 시간 수는 34주를 기준으로 한 연간 최소 수업 시간 수이다.
 ② 1학년의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에 배당된 시간 수는 30주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우리들은 1학년에 배당된 시간 수는 3월 한 달 동안의 수업 시간 수를 제시한 것이다.
 ③ 1시간의 수업은 초등학교 40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후,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알맞도록 조절할 수 있다.

출처: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1997. 12. 30.

차.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시기(2007년)

2007 개정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철학과 체제를 유지하면서 종전의 일시적, 전면적 교육과정 개정 방식의 비효율성을 없애고 사회의 다원화 및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교육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그 동안의 운영 과정에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어 수시 개정하였다. 특히 제7차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인 수준별 교육과정의 경우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은 재이수(유급) 및 월반 등이 허용되지 않아 현실성이 미흡했으며, 학교별로 각 수준에 대한 학력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2007 개정 교육과정은 수준별 수업의 내실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수요자 중심, 단위 학교에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추구하는 인간상, 교육 목표 등의 관점과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 체제 등 기본적 틀을 그대로 유지하되, 교과 내용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개정의 중점으로는 단위 학교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 확대, 국가·사회적 요구 사항 적극 반영, 수준별 교육과정을 수준별 수업으로 전환,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 개선, 교과별 교과내용 적정화 도모, 주5일 수업제의 월 2회 실시에 따라 수업시수 일부 조정을 포함하였다.

교육과정 편제와 시간 배당의 경우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34주를 기준으로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 및 학년별 수업 시간 수를 연간 총 수업 시수로 제시하였고,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서 이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였다. 3~6학년의 연간 총 수업 시수를 주 5일 수업제의 월 2회 실시에 따라 제7차 교육과정보다 34시간 감축하였고, 학생의 직접적 체험 활동 강화를 위해 교과 수업 시수의 조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우리들은 1학년’ 교과에서 담임교사의 재량에 따른 탄력적인 시간 운영이 가능해졌고, 초등학교에서의 재량 활동은 창의적 재량 활동으로만 운영하도록 하였다. 특별 활동의 영역별 시간 배정은 학교의 실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시간 배정 결정권을 단위 학교에 부여하였다.

〈표 I-11〉 2007 개정 교육과정 시기의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2007. 2. 28.)

학 교		초 등 학 교					
구분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교과	국어	국 어		238	204	204	204
	도덕	210	238	34	34	34	34
	사회	수 학		102	102	102	102
	수학	120	136	136	136	136	136
	과학	바른 생활		102	102	102	102
	실과	슬기로운 생활		-	-	68	68
	체육	90	102	102	102	102	102
	음악	즐거운 생활		68	68	68	68
	미술	우리들은 1학년		68	68	68	68
	외국어 (영어)	80		34	34	68	68
	재량 활동	60	68	68	68	68	68
특별 활동		30	34	34	68	68	68
연간 총 수업 시간 수		830	850	952	952	1,054	1,054

- ① 이 표의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에 제시된 시간 수는 34주를 기준으로 한 연간 최소 수업 시간 수이다. 단 3~6학년의 연간 총 수업 시간 수는 주5일 수업에 따라 감축된 시간 수이므로 학교에서 교과 수업 시간 수 중 연간 34시간의 범위 내에서 감축하여 운영한다.
- ② 1학년의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에 배당된 시간 수는 30주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우리들은 1학년'에 배당된 시간 수는 3월 한 달 동안의 수업 시간 수를 제시한 것이다.
- ③ 초등학교에서의 1시간 수업은 40분이며, 기후,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알맞도록 조절할 수 있다.

출처: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2007. 2. 28.

카.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시기(2009년)

교육과학기술부가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교육과정특별위원회'의 '미래형 교육과정 구상안'을 바탕으로 이를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을 추진하였다. 추구하는 인간상으로는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의 발달과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새로운 발상과

도전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개정의 방향으로는 학기당 이수 교과목 축소를 통한 학습의 효율성 제고, 창의적 체험활동(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 도입을 통한 교과 외 활동 강화, 고등학교 선택 과목의 수준 별·영역별 재구조화, 과목(교과군)별 20% 자율 증감 운영을 통한 학교 교육과정 자율권 확대 등이 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을 ‘공통 교육과정’으로 명명하면서 중학교 3학년까지 9년으로 축소하여 의무교육 기간과 일치하도록 하였고, 교과군과 학년군 도입을 통해 집중이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재량 활동과 특별 활동을 통합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을 신설하고, 학습 부진아, 다문화 가정 자녀 등에 대한 특별 지원 강화, 초등학교 1~2학년 부진 학생에 대한 별도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기초 기본 교육 강화, 지역 사회 및 학교의 여건에 따라 저학년 돌봄 활동 지원 강화, 통합 교과인 ‘우리들은 1학년’을 폐지하고 창의적 체험활동 내용에 반영하여 입학 초기 적응활동으로 운영하도록 한 것 등이 주요 특징이다.

〈표 I-12〉 2009 개정 교육과정 시기의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2009. 12. 23.)

구 분		1~2학년	3~4학년	5~6학년
교과 (군)	국어	국어 448	408	408
	사회/도덕		272	272
	수학	수학 256	272	272
	과학/실과	바른 생활 128	204	340
	체육	슬기로운 생활 192	204	204
	예술 (음악/미술)		272	272
	영어	즐거운 생활 384	136	204
창의적 체험활동		272	204	204
학년군별 총 수업시간 수		1,680	1,972	2,176

- ① 이 표에서 1시간 수업은 40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등과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② 학년군 및 교과(군)별 시간 배당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2년간의 기준수업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 ③ 학년군별 총 수업시간 수는 최소 수업 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 ④ 3~4학년의 국어과 기준수업시수는 주5일 수업에 따라 감축된 시간 수이므로 학교에서는 442시간을 기준수업 시수로 운영할 수 있다.
- ⑤ 실과의 수업 시간은 5~6학년 과학/실과의 수업시수에만 포함된 것이다.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2009. 12. 23.

4.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배경 및 방향

가.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

국가 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의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교육의 기본 설계도로써, 질적으로 우수한 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의 바람직한 성장을 이끌어 내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국가 교육과정은 다양한 국가·사회적 요구 및 교육 수요자의 요구 변화, 과학 기술과 학문의 발전, 교육 여건과 환경의 변화 등 교육 내·외적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이와 같은 국가 교육과정 개정의 흐름을 이어받아 한편으로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사회적 요구를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며, 다른 한편으로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는 목적에 따라 개정이 추진되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중요한 개정 배경 중의 하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대한 국가·사회적 요구이다. 2008년 11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범부처 차원에서 ‘국가 융합기술 발전 기본계획(2009~2013)’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이어 받아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3월 국가 융합기술 발전 전략을 발표하면서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을 융합기술 발전 전략의 하나로 제시하였다. 이는 미래사회가 융합기술이 주도하는 산업구조를 갖춘 사회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개정 논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문제점, 즉 이른바 문과와 이과 사이의 과도한 칸막이가 야기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문·이과 통합’ 논의(교육부, 2013; 2014)를 계기로 하여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논의의 주제는 근본적으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의 일부로 이해할 수 있다.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대한 국가·사회적 요구와 함께, 초·중·고등학교 교육의 실태 및 2009 개정 교육과정 운영 실태와 관련된 문제의식도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중요한 개정 배경이 되었다. 국가 교육과정 개정은 개정 시점에서 강조되는 국가·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교육의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개선 방안 모색 역시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한다.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월에 걸쳐 진행된 네 차례의 국가 교육과정 포럼과 국가 교육과정 총론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박순경 외, 2014) 등에서는 현행 교육과정 실태를 점검하며 그 발전 방향을 다양한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요컨대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문·이과 통합’을 화두로 삼아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과제로 하였다(김경자 외, 2015: 15-16).

나. 교육과정 개정의 비전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루어진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비전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과, ‘학습 경험의 질 개선을 통한 행복한 학습의 구현’으로 요약할 수 있다(황규호, 2015). 전자가 문·이과 칸막이 해소 등 국가·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비전이라면, 후자는 그동안 추진된 교육과정 개정의 연속선상에서, 학생들이 학습에 몰입하고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한국 교육의 지속적인 발전 과제를 반영한 비전이라고 볼 수 있다.

1)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의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정의 주안점은 “인문·사회·과학기술 기초 소양을 균형 있게 함양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교육과정 개정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총론에서는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 기간을 통하여 여러 교과 영역의 균형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교과목 편제를 개발한다. 둘째, 고등학교의 경우 교과 영역별 기초 소양의 균형 있는 함양을 위해 공통 과목을 개발하며, 사회과 및 과학과의 공통 과목은 ‘통합사회’ 및 ‘통합과학’ 등 융합적인 과목으로 개발한다. 아울러 문·이과 칸막이를 야기하고 있는 수능 체제 개선 방향을 고려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제를 개발한다.

그러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기초 소양 함양을 이유로 모든 학생에게 획일적인 교육과정을 부과하는 것은 경계되어야 하며, 기초 소양을 바탕으로 학생 개개인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맞춤형 선택 학습’이 가능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야 한다. 맞춤형 선택 학습 지원은 또한 행복한 학습의 구현을 위한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교육과정 개정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교 교과별 필수이수단위는 최소 수준으로 설정하여 진로에 따른 학생의 과목 선택권과 단위 학교의 특성화된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권을 제한하지 않도록 한다. 둘째, 고등학교에서는 ‘일반 선택 과목’과 함께 학생들의 진로에 따른 심화·보충학습 및 진로탐색·체험을 지원하는 ‘진로 선택 과목’을 개발하여 다양하고 풍부한 선택 과목들이 개설될 수 있도록 하며, 학생의 과목 선택권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셋째, 중학교 학생들의 진로 탐색 활동을 지원하는 자유학기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한 교육과정 근거와 편성·운영 지침을 제시한다.

2) 학습 경험의 질 개선을 통한 행복한 학습 구현

2015 개정 교육과정 연구에서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기초 소양의 균형 있는 함양과 함께 우리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그 기본 과제를 행복한 학습의 구현을 위한 ‘학습 경험의 질 개선’으로 요약하였다. 학습

경험의 질과 관련된 한국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단편 지식의 암기위주 교육과 문제풀이 중심 교육의 문제, 과도한 학습량과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학습 부담 증가 문제, 국제 평가에서의 높은 시험 성적에도 불구하고 교과에 대한 흥미도나 자신감 등 정의적 영역의 지표가 낮다는 문제 등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학습 경험의 질을 중시하는 교육은 학습의 양과 결과보다 학습의 질과 과정을 중시하는 교육, 학습의 즐거움을 일깨워 주는 교육,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소양과 역량을 실질적으로 길러주는 교육, 자기성장·자기발전의 경험에 기초한 행복감을 증진하는 교육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요컨대 학습 경험의 질 개선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은 ‘많이 아는 교육’에서 ‘배움을 즐기는 행복교육’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교과 교육과정(각론) 개선을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교육과정 개정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별 학습 내용을 핵심 개념 중심으로 구조화하여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가능하게 하고 분절적 단편 지식 중심의 교육과정에 의해 야기되는 학습량 과다의 문제를 근본적이고 실질적으로 개선한다. 둘째, 학습 내용 요소들의 상호 관련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 내용 조직 방식을 개선하며, 특히 세부 학습 영역을 아우르는 큰 그림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교과 내·교과 간 학습 내용의 연계성을 강조한다. 셋째, 교과별 탐구역량과 사고역량을 명료하게 제시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 방법을 안내한다.

다. 교육과정 개정의 절차

이와 같은 비전에 따라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하되, 개정된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는 어려움을 개선하며, 학교 현장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특히 2009 개정 교육과정과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개정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총론의 편제 개편보다는 교과 교육과정의 학습 내용 개선에 중점을 두는 교육과정 개정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총론 차원에서는 문서 체제를 구조화함으로써 전반적인 문서의 가독성을 높이는 방안,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도입되었던 학년군제 및 집중이수제를 교과 특성에 따라 유연화 하는 방안, 범교과 학습 주제의 구조화 방안,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에서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모색되었다. 또한 개정된 교육과정이 현장에 정착되기 위해 필요한 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개정의 방향을 기초로 교육과정 개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 교육과정 개발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국가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를 통해 교육과정 개정을 총괄하고 주요 쟁점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으며 총론과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을 위한 정책 연구를 동시에 추진하였다. 이는 그동안 교육과정 개정에서 총론이 먼저 개발되고 교과

교육과정이 나중에 개발되면서 생기게 되는 총론과 각론의 괴리 문제를 해소하고 합리적인 교육과정 개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 개발 체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국가교육과정각론조정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취지가 교과 교육과정에 효과적으로 반영되어 총론과 각론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하고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의견 수렴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국가교육과정정책자문위원회와 국가교육과정개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현장 적합성이 높은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전문가와 현장 교원을 중심으로 한 국가 교육과정 포럼, 공청회, 정책 연구진 합동워크숍, 전문가 협의회,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 검토 등을 수차례 운영하였다.

라.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국가·사회적 측면에서 새롭게 제시된 인재상에 적합한 교육과정 체제를 구축하고, 행복한 학습을 구현하기 위하여 학습 경험의 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개정의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인문·사회·과학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 교육을 강화한다

초·중등학교 전 교육 기간을 통하여 인문·사회·과학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이 균형 있게 개발되도록 하였다. 총론 차원에서는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에 기초 소양 함양에 관한 항목을 신설함으로써 교과 교육을 비롯한 학교 교육 전반을 통해 균형 있는 기초 소양 함양 교육이 강조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였다. 초등학교의 경우 기존의 교육과정 편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교과 교육과정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독서교육, 연극교육 강화 등 기초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였다. 고등학교에서는 교과 영역별 기초 소양의 균형 있는 함양을 위해 ‘공통 과목’을 재도입하며 사회 및 과학 교과군의 공통 과목으로는 ‘통합사회’, ‘통합과학’ 등 융합 과목을 개발하였다. 아울러 문·이과 간막이를 야기하고 있는 수능 체제 개선 방향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제를 개발하였다.

2)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기초 소양을 함양한다는

이유로 자칫 모든 학생들에게 획일적인 교육과정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경계되어야 하며, 기초 소양을 바탕으로 학생 개개인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학생 맞춤형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선택 과목에 대해 학생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중학교 학생들의 진로탐색 활동을 지원하는 자유학기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한 편성·운영 지침을 마련하였다.

3)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을 마련한다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가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을 제시하였다. 핵심역량은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 교과 교육을 포함한 학교 교육 전 과정을 통해 증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역량으로써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을 핵심역량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추구하는 인간상, 핵심역량, 학교 급별 목표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학교 교육의 방향을 보다 명료하게 나타내고자 하였다. 또한 핵심역량 함양이 가능하도록 교과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의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즉, 단순한 지식 습득에서 벗어나 실제적인 역량의 함양이 가능하도록 교과 교육과정을 핵심 개념 중심으로 구조화하고 협력 학습, 토의·토론학습 등의 학생 참여 중심 수업과 과정 중심 평가를 확대하는 등의 구체적인 수업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4) 학습량을 적정화한다

총론과 교과 교육과정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핵심역량은 단순히 역량의 종류를 규정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교육과정을 통해 실제로 핵심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과 교육 내용의 적정화가 요구된다. 과도한 학습량과 피상적인 학습으로는 창의융합적 사고와 핵심역량을 기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교육 내용 적정화는 교육과정 개정의 시기마다 빠지지 않는 주요 사항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암기식 교육, 문제풀이식 교육은 크게 개선되지 못했으며 학생들의 학습 부담 또한 여전하다. 이는 교육 내용 적정화를 단순히 양적 감축 차원에서 접근했기 때문이다. 단편적인 사실들로 이루어진 교육 내용은 그대로 둔 채, 단지 성취기준의 개수를 표면적으로 줄이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없다. 교육 내용 적정화의 일차적인 목적은 학습 부담을 줄이는 데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될 수는 없다. 교육 내용 적정화의 보다 궁극적인 목적은 학습 경험의 질 개선을 통한 유의미한 학습에 있다. 따라서 이번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육 내용 적정화의 의미와 목적을 새롭게 규정하고 단순히 양을 축소하는 것에서 벗어나 소수의 핵심 개념⁵⁾을 중심으로 교과 교육과정을 재구조화하고자 하였다. 즉, 교육

내용의 질적 적정화를 통해 학습자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는 것과 함께 의미 있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 교육과정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교과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 구조화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교과와 전체적인 구조를 보여줄 수 있는 근본적인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핵심 개념을 결정하고, 전체 학교 급을 관통하는 일반화된 지식과 기능을 선정하였다. 일반화된 지식이란 핵심 개념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학습자들이 이해해야 하는 원리나 일반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일반화된 지식은 낱말의 구체적인 사실적 지식들을 아우르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과 사실들에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기능이란 지식을 습득할 때 활용되는 탐구 및 사고 기능이며, 동시에 학습의 결과로서 학생들이 ‘할 수 있어야 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반화된 지식은 단순 암기가 아닌 교과 고유의 사고 및 탐구 과정을 통해 그 의미를 이해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지식과 기능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교육 내용을 이와 같이 구조화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첫째, 교과별 세부 학습 내용들을 아우르는 큰 그림을 보여줌으로써 세부 내용들 간의 관련성과 그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을 돕는다. 둘째, 교과 내 지식과 기능, 교과 내 영역 간, 교과 간 내용의 연결성을 드러내도록 구조화하기 때문에 교과 지식의 통합을 가능하게 하고 학생들의 융합적 사고를 돕는다.

5) 교육 내용, 교수·학습, 평가가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핵심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는 교육 내용, 교수·학습, 평가가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일반화된 지식과 기능으로 교육 내용을 구조화 하였으며 이를 통해 핵심역량의 함양이 가능한 교수·학습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조하였다. 교수·학습에서는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요구를 파악하여 국가 교육과정의 내용을 재구성하고 학생이 특정 맥락에서 학습한 내용을 새로운 문제 상황에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풍부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평가가 교수·학습의 일부분으로 이루어지도록 과정 중심의 평가를 강조하였으며 수행평가를 포함한 다양한 평가 방법을 통해 교과 내 지식 간, 영역 간, 교과 간 학습 내용을 연결하여 융합적 사고를 기르도록 강조하였다.

6)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현행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2009 개정 교육과정과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총론의 편제 개

- 5) 핵심 개념이란 교과와 성격의 드러내는 기초 개념과 원리를 포함하는 근본적인 아이디어이다. 이는 학습 내용의 구조를 드러내며 그 교과에서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일반적 아이디어(general ideas), 빅 아이디어(big idea)와 유사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편은 최소화하되 2009 개정 교육과정 실행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개정을 추구하였다. 총론 차원에서는 범교과 학습 주제의 구조화, 창의적 체험활동에서의 단위 학교 자율성 강화, 안전 교육 강화 등의 방안이 중점적으로 모색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부담을 해소하고자 범교과 학습 주제를 10개의 대주제로 범주화하였다. 범교과 학습은 미래 사회 변화를 전망하여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요구되는 학습 내용이자 여러 교과와 경계를 가로지르는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학습 주제로서, 제7차 교육과정에서 도입된 이래로 점점 증가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주제의 수가 39개로 늘어났다. 따라서 과도한 범교과 학습 주제로 인해 발생하는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부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39개로 나열되어 있던 범교과 학습 주제를 10개의 대주제로 범주화하였다.

둘째,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권을 확대하고자 창의적 체험활동 관련 지침을 개선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을 신설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의 하위 영역을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구분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기존 창의적 체험활동의 4개 영역 구성은 유지하되 학교 수준에서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권을 발휘하고 학교의 특색을 살리는 방향에서 영역의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도록 창의적 체험활동의 지침을 개선하였다. 즉, 창의적 체험활동 편성·운영의 주체인 단위 학교가 자율적으로 특색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단위 학교의 자율권을 보다 확대하였다.

셋째,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체계적인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 의식이 내면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체육, 기술·가정(실과), 과학, 보건 등 관련 교과(목)에 안전 단원을 신설하여 이론과 실천·체험을 체계적으로 다루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였다. 특히 초등학교 1~2학년(군)의 경우 수업 시수를 주당 1시간(총 64시간) 증배하여 안전 교육을 강화하였다. 국제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초등학교 수업 시수 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사회적으로 안전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른 것이다. 단, 별도의 교과를 신설하는 대신 창의적 체험활동에 ‘안전한 생활’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체험 중심의 안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마.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주요 개정 방향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국가·사회적 측면에서 새롭게 제시된 인재상에 적합한 교육과정 체제를 구축하고, 행복한 학습을 구현하기 위하여 학습 경험의 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 체제를 유지하면서 유치원 누리과정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학생의 기초학습 능력 향상 차원에서 한글교육을 강화하였다. 또한 1,2학년 수업시수를 순증하여 안전한 생활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소프트웨어(SW) 교육을 강화하였다. 구체적인 개정의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2009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기본 체제 유지

2009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2개 학년씩 학년군별 총 수업 시수를 배정함으로써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위 학교에서 좀더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교과는 교육 목적상의 근접성, 학문 탐구 대상 또는 방법상의 인접성, 생활양식에서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교과(군)별로 재분류되었다. 즉,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실과,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 등 총 8개의 교과(군)으로 구성되었다. 다만, 1,2학년의 교과는 국어, 수학,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로 하였다. 또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종래의 교과별 수업 시수의 성격을 ‘연간 최소 수업 시수’에서 증감이 가능한 ‘기준 시수’로 전환하여 각 학교로 하여금 교과별 수업 시수를 자율적으로 증감하여 편성·운영하도록 하였다. 수업 시수의 증감 범위는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를 고려하여 각 교과(군)별로 20% 범위 내에서 증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만, 체육과 예술(음악/미술) 교과는 증배만을 허용하고 있다.

2015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도 학년군, 교과군, 교과(군)별 20% 범위 내 증감 허용, 교과 집중이수⁶⁾ 등의 지침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이외에도 창의적 체험활동 하위 4개 영역(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 및 입학초기 적응 활동, 정보통신활용 교육, 보건 교육, 한자 교육 강화 등의 사항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2) 누리과정 연계 및 한글교육 강화

만 3~5세를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의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이 연계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교육과정 개정 시기마다 지적되어온 사항이다(김진숙, 2006b; 박순경, 2013; 이미숙 외, 2014; 김정자 외, 2016). 특히, 김정자 외(2016)의 연구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누리과정과의 연계 방안으로 문서 체계의 연계, 각 교육과정에 연계 지침 제시, 학습 영역 간의 연계, 내용의 구조와 진술방식의

6) 초등학교에서의 교과 집중이수는 학년별, 학기별 집중이수보다는 특정 교과 내용을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학습함으로써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

연계, 초등 통합교과의 영역(대주제)과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주제’ 간의 계열성 확보, 초등 1~2학년군 국어와 수학의 출발점과 누리과정의 도달점의 연계 등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연계는 두 교육과정을 동시에 개정하지 않고 초·중등학교 교육과정만 개정하는 상황에서 많은 부분이 실현되지 못하였다.

이번 2015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연계성을 강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먼저, 초등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교과에서는 누리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생활 도구의 활용, 자연 탐구 활동 및 신체 활동을 강조함으로써 몸으로 익히는 활동을 강화하여 할 줄 아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우리말과 글자에 대한 누리과정에서의 자연스러운 학습 경험을 바탕으로, 초등 1~2학년에서는 한글을 완전히 깨우칠 수 있도록 한글 교육을 강화한 점을 들 수 있다. 1,2학년 국어 교과서를 기준으로 한글 교육 시간이 27차시(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62차시 내외(2015 개정 교육과정)로 확대됨으로써 의무교육을 시작하는 시기인 초등학교 1~2학년에서의 기초·기본 교육을 강화하였다.

3) 1,2학년 수업시수 순증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1~2학년군의 수업시수를 64시간(주당 1시간 기준) 순증하여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안전한 생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수업시수 64시간 증배는 처음부터 안전 교육 시간으로 배정하기 위함은 아니었다.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저학년 수업 시수 조정은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한 학교에서의 보육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 수업시수 국제 비교 연구 결과⁷⁾에 따라 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즉, 초등 1,2학년에서 매일 5교시 정도의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당 수업 시수를 현행보다 2~3시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하지만 교육부가 주관한 공청회와 사·도 교육청 및 학교 현장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에서는 수업 시수 증가가 가져올 수 있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과 발달적 특성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다.

결국 초등학교 저학년의 수업 시수는 주당 1시간(40분 기준) 분량만큼을 증배하되, 학생들의 추가적인 학습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창의적 체험활동을 272시간(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336시간(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순증하여 체험 중심의 ‘안전한 생활’ 교육과정을 신설하였다.

4) 국가·사회적 요구에 따른 안전교육 강화

학생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교육은 매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강조되었다. 이번 개정에서는 2014년 세월호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는 더 강했다. 이에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고려하면서 체험 중심의 안전

7) 온정덕(2014), 초등학교 수업시수 국제비교 및 적정화 방안 연구.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의 교과를 신설하는 대신 기존의 창의적 체험활동에 ‘안전한 생활’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한 생활’ 교육과정은 2016년 2월에 일선학교에 보급된 안전 교육 7대 표준안 및 5세 누리과정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개발하였다. 1, 2학년 학생들이 생활에서의 위험 요소를 알고 위험을 예방하며 위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목적으로 내용 체계 및 교수·학습 지침 등을 포함하여 개발하였다. ‘안전한 생활’은 ‘생활안전’, ‘교통안전’, ‘신변안전’, ‘재난안전’으로 영역을 구성하였으며, 자기관리 역량, 공동체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을 함양하는 데 관련되는 내용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역량과 더불어 위험을 식별하기, 예방하기, 위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험 상황을 알리기로 대표되는 기능을 익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안전한 생활’은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에 따라 1, 2학년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64시간에 걸쳐 편성·운영해야 하며, ‘바른 생활’과, ‘슬기로운 생활’과, ‘즐거운 생활’과의 영역(대주제)과 연계하여 지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초등학교 3~6학년에서는 체육, 실과 등의 관련 교과에 안전 대단원을 신설하였고, 모든 교과 활동 과정에서 관련되는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화재 대피 훈련 등과 같이 필요한 경우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체험 중심의 안전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5) 창의적 체험활동 지침 개선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권을 확대하고자 창의적 체험활동 관련 지침을 개선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하위 영역을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구분하고, 모든 학년에서 4가지 영역의 활동을 균형있게 다루도록 하였다. 이는 단위 학교에서의 창의적 체험활동 편성·운영 자율권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기존의 하위 영역은 유지하되 학교 수준에서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권을 발휘하고 학교의 특색을 살리는 방향으로 영역의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도록 창의적 체험활동의 지침을 개선하였다.

6) 소프트웨어(SW) 교육 강화

2015 개정 교육과정에는 과학기술 소양 함양 교육의 일환으로 소프트웨어(SW)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가·사회적 요구가 강하게 반영되었다. 소프트웨어(SW) 교육의 강화 방안으로서 초등학교에서는 실과 교과의 정보통신활용 교육 내용을 소프트웨어(SW) 교육 내용 중심으로 개편하였다. 기존 초등학교 5,6학년 실과 교과의 ICT 활용 중심의 정보 단원을 소프트웨어(SW) 기초 소양 중심의 대단원으로 구성하여 소프트웨어(SW) 도구를 활용함으로써 놀이처럼 재미있게 17시간 이상 학습하도록 하였으며, 저작권 보호 등 정보 윤리 내용도 포함하였다.



Ⅱ.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II.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1. 추구하는 인간상

국가 교육과정에서는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이 추구해 나가야 할 교육 비전으로서 교육적 인간상을 제시해 왔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기존의 인간상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포함하여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제시하였다. 먼저, 앞부분에 제시된 추구하는 인간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는 교육기본법(제2조)에 제시된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이념과 교육 목적을 바탕으로,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

- 가.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는 자주적인 사람
- 나.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다양한 발상과 도전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인 사람
- 다.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교양 있는 사람
- 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

가.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는 자주적인 사람

교육받은 인간은 ‘자주적인 사람’이어야 한다. 자주적인 사람은 전인(全人)적 성장을 도모하며, 이를 바탕으로 자존감과 자신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자아정체성을 형성하여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는 사람을 뜻한다. 전인적 성장이란 학생들의 몸과 마음이 고루 발달하여 건강하고 바른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는 학생들로 하여금 전인적 성장을 통해 균형 잡힌 인격을 가지고 건강하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또한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자존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긍정적인 자아정체

성을 형성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아울러 학교는 학생 각자가 자신의 삶의 비전을 발견하고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찾아 미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궁극적으로 자신의 비전에 따라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나.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다양한 발상과 도전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인 사람

교육받은 사람은 ‘창의적인 사람’이어야 한다. 창의적인 사람은 다양한 영역에 대한 폭넓은 기초 지식과 자신의 전문 영역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논리적이면서도 새로운 통찰력, 융통성 있는 발상의 전환, 새로운 일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 등을 통해서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산출해 내는 사람이다.

창의적인 사람을 기르기 위해 학교에서는 먼저 창의성의 바탕이 되는 폭넓은 기초 지식과 전문적인 지식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확산적 사고 능력,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능력 등을 갖추도록 지도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이 새로운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민감하게 대처하며, 도전 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특히 오늘날처럼 영역들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문제 해결을 위한 융합적 사고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학생들이 융통성 있는 발상의 전환을 하며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술과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다.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교양 있는 사람

교육받은 사람은 ‘교양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교양 있는 사람은 인류 문화의 여러 영역에서의 소양을 함양하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감수성과 공감적 이해 능력을 습득함으로써, 인류 문화를 심미적으로 향유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행복하고 품격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학교는 학생들이 여러 영역에서의 문화적 소양을 균형 있게 함양하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공감적 이해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교육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하며, 특히 비판적 성찰을 통해 자신과 타인과 사회를 이해하고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인류 문화를 심미적으로 향유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궁극적으로 행복하고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

교육받은 사람은 ‘더불어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 더불어 사는 사람은 공동체 의식과 민주 시민 의식을 갖춘 사람이며,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배려와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는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의 문제 해결 및 발전을 위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학생들이 공동체 의식과 민주 시민 의식을 가지고 세계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한다. 특히 오늘날의 지구촌 사회에서는 인류의 발전을 위해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며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다음으로, ‘추구하는 인간상’의 뒷부분에 제시된 핵심역량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 교과 교육을 포함한 학교 교육 전 과정을 통해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핵심역량은 다음과 같다.

- 가.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관리 역량
- 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식정보처리 역량
- 다.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 사고 역량
- 라.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는 심미적 감성 역량
- 마.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의사소통 역량
- 바.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

총론에서 제시하는 핵심역량은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포함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 활동을 통해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능력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위와 같이 여

섯 가지 핵심역량을 제시하였다. 학교에서는 학교 교육 전반에서 이 핵심역량이 길러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핵심역량 이외에도 학교 교육에 필요한 역량은 더 있을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핵심역량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관리 역량

자기관리 역량이란 자신의 삶, 학습, 건강, 진로에 필요한 기초적 능력 및 자질을 지속적으로 계발·관리하고, 변화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자아정체성 확립, 자신감 획득, 자기 통제 및 절제, 기본 생활 습관 형성, 자신의 감정 조절, 건강관리, 기초학습능력 및 자기주도 학습능력, 진로개발 능력, 합리적 경제생활, 여가 선용 등의 하위 요소가 포함될 수 있다.

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식정보처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이란 학습과 삶 등에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분석·평가·선택하고, 적절한 매체를 활용하여 지식과 정보와 자료를 효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것은 단지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다루는 것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지식을 다루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처리’한다는 용어 역시 모든 자료를 수집·분석·평가·선택하여 활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합리적인 문제 해결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지식정보처리 역량은 문제 해결 능력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여기에는 논리적, 비판적 사고를 통한 문제 인식, 지식정보의 수집·분석·활용 등을 통한 문제 해결 방안의 탐색, 해결 방안의 실행 및 평가, 매체 활용 능력 등의 하위 요소들이 포함될 수 있다.

다.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 사고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이란 다양한 영역에 대한 폭넓은 기초 지식과 자신의 전문 영역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산출해내고, 다양한 분야의 지식·기술·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인지적 측면에서의 창의적 사고 기능으로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유추성 등이 하위 요소로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정의적 측면에서의 창의적 사고 성향으로서 민감성, 개방성, 독립성, 과제집착력, 자발성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서로 다른 분야의 지식과 기술들을 융합하여 의미 있고 새로운 것을 산출하는 사고 능력으로서의 융합적 사고도 하위 요소로 포함될 수 있다.

라.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는 심미적 감성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이란 다양한 가치에 대한 개방적 태도와 반성적 성찰을 통해서 자신과 타인과 사회 현상들을 공감하고, 문화적 소양과 감수성을 통해 삶의 의미와 사물들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며, 이를 바탕으로 질 높은 삶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문화적 소양과 감수성, 문화적 상상력, 타인의 경험 및 인간에 대한 공감 능력, 다양한 가치에 대한 존중, 정서적 안정감,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의 추구하고 향유 등이 하위 요소로 포함될 수 있다.

마.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의사소통 역량

의사소통 역량이란 다양한 상황에 적합한 언어, 상징, 텍스트, 매체를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능력, 타인의 말과 글에 나타난 생각과 감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능력,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며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능력 등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언어적 표현 능력, 타인 이해 및 존중 능력, 갈등 조정 능력 등이 하위 요소로 포함될 수 있다.

바.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

공동체 역량이란 지역·국가·지구촌의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수용하고 실천하는 능력, 지역적·국가적·세계적 차원의 다양한 문제 해결에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 다양한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협업하고 상호작용하는 능력, 다른 사람들을 배

려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등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시민의식, 준법정신, 질서의식, 공정성과 정의감, 참여와 책임의식, 협동과 협업 능력, 나눔과 배려 등이 하위 요소로 포함될 수 있다.

2.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교육 이념과 인간상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함양하여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은 다음과 같다.

이 교육과정은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추구해 온 교육 이념과 인간상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함양하여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한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은 다음과 같다.

- 가. 인문·사회·과학기술 기초 소양을 균형 있게 함양하고,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선택 학습을 강화한다.
- 나. 교과와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구조화하고 학습량을 적정화하여 학습의 질을 개선한다.
- 다. 교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하여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르고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한다.
- 라.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를 강화하여 학생이 자신의 학습을 성찰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한다.
- 마. 교과와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수·학습 및 평가의 일관성을 강화한다.
- 바.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하여 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초 역량과 직무 능력을 함양한다.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을 바탕으로 설정된 인재상으로, ‘바른 인성을 가지고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으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창의성은 창의융합형 인재의 중심 가치가 되며, 창의적인 사람은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생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융합적 사고를 필요로 하며 융합은 다양한 지식과 아이디어를 연결하는 능력으로 통합과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 즉, 창의적인 사람은 융합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생성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활동은 인간과 사회에 이로운 것이어야 하므로 도덕성을 갖추어야 한다.

추구하는 인간상, 핵심역량, 인재상은 서로 어떤 관련이 있는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다음

그림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에 대한 가독성과 현장 이해도를 높이고 여러 관련 개념들 사이의 관련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추구하는 인간상, 핵심역량, 인재상의 관계를 제시한 것이다.



[그림 II-1] 추구하는 인간상, 핵심역량, 인재상의 관계

인문·사회·과학기술 기초 소양 함양과 선택 학습 강화

가. 인문·사회·과학기술 기초 소양을 균형 있게 함양하고,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선택학습을 강화한다.

○ 인문·사회·과학기술 기초 소양 함양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인문·사회·과학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을 갖추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문적 소양이란 세상을 보는 안목과 인간을 이해하는 능력이다. 인문적 소양은 자신과 타인,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고, 비판적 사고 및 판단 능력을 통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며, 사회의 발전에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학적 소양은 과학의 지식 및 탐구 과정에 대한 이해에 그치지 않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과학적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즉, 과학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과학 관련 문제에 반성적인 시민으로서 참여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OECD, 2013).

인문·사회·과학기술 기초 소양은 개인이 지식을 단지 아는 차원을 넘어서 사회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및 이러한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태도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특히 고등학교는 기존의 선택 교육과정에서 균형 잡힌 인문·사회학적 안목과 과학적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공통 과목을 도입하면서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명명하게 되었다.

○ 선택 학습 강화

기초 소양이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통의 학습 경험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선택 학습은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를 포함한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심화된 혹은 풍부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제7차 교육과정부터 이수 과정의 다양화를 추진하였고,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수과정의 다양화와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해 진로 집중 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유지하면서 적성과 진로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선택교과의 다양하고 탄력적인 운영에 초점을 맞추었다(황규호 외, 2015).

■ 핵심 개념 중심의 학습 내용 구조화 및 학습량 적정화

나. 교과와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구조화하고 학습량을 적정화하여 학습의 질을 개선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 내 영역별로 소수의 핵심 개념을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재구조화함으로써 학습량 적정화를 이루고 깊이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교육 내용 적정화는 그동안 여러 차례의 교육과정 개정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으나 주로 내용의 양과 수준을 조정하는 차원에 국한된 경향이 있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교육 내용을 단순히 기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식이 아닌 교과와 근본적인 아이디어, 즉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구조화하여 학습량을 적정화하고 학습 경험의 질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교육 내용 구조화는 각 교과와 구조를 중심으로 다양한 내용들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큰 그림에 대한 이해를 획득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이점을 지니며 교과 내 지식과 기능, 교과 내 영역 간, 교과 간 학습 내용의 연계성을 드러내어 창의융합형 인재를 기르기 위한 융합적 사고

계발을 가능하게 한다. 다양한 분야의 여러 지식 간 관련성을 파악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먼저 각 교과 of 중요한 개념과 원리, 교과 of 사고 및 탐구 기능을 학습해야 하고, 그 다음 교과 내, 교과 간 연결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융합이라는 실천적 행위를 배워야 한다.

핵심 개념이란 교과가 기반하는 학문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나 원리를 포함하는 교과 of 근본적인 아이디어이다. 이는 지식 of 한 종류인 개념(concept)과 동의어는 아니며 교과 of 가장 잘 대표하면서 교과 of 큰 그림을 볼 수 있도록 돕는 빅 아이디어 of 성격을 띤다. 예를 들어 규칙성, 에너지, 상호작용, 관계, 다양성 등과 같은 개념적인 아이디어일 수도 있지만 표현, 감상, 의사소통, 공감과 같이 기능적 혹은 정의적 내용들도 빅 아이디어로 볼 수 있다.

교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생 참여형 수업 활성화

다. 교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하여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르고 학습 of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 of 총론에서는 핵심역량을 제시하고 각 교과에서는 교과 역량 of 규명하였다. 교과 역량은 교과가 기반한 학문 of 지식 및 기능을 습득하고 활용함으로써 길러질 수 있다. 교과 역량 함양 of 목표로 하는 수업은 학생들이 교과 of 지식과 기능을 깊이 있게 탐구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학생 참여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사는 학생들이 교과 of 핵심 개념 및 일반화된 지식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중심으로 세부 학습 내용들을 서로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핵심 개념 및 일반화된 지식에 대한 학습자 of 심층적 이해는 단순한 지식 of 전달이 아닌 교과 고유의 사고 및 탐구기능을 통해 가르칠 때 가능한 것이다. 교과 고유의 사고 및 탐구기능은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학습한 내용을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이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을 교과 고유의 사고 및 탐구기능을 통해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다시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교과와 학습자 of 특성을 고려한 교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교과 역량 of 함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교사는 학생 of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고 교수·학습에 학생들을 참여시키고 교사와 학생, 학생 상호 간 of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최대한의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생 참여형 수업은 새로운 지식과 기능을 습득할 때뿐 아니라 협력적인 문제 해결 of 과정에도 유

용하다. 또한 학생 참여형 수업에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학습 과정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포함시킴으로써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학생 참여형 수업은 교사와 학생 간, 학생 상호 간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실행될 수 있다.

❶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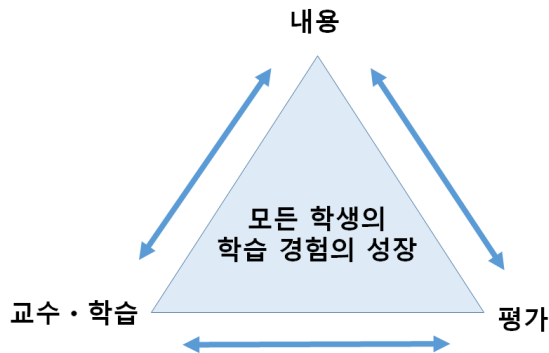
라.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를 강화하여 학생이 자신의 학습을 성찰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한다.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는 학습 후 학생의 지식 습득 정도나 수행을 측정하기 위한 일회성의 평가에서 벗어나 교수·학습과 통합적으로 연계되어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는 것을 강조한다.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평가의 주요 목적은 학생 스스로 무엇을 어느 정도 성취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학습 경험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있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의 전 과정에 걸쳐 공식,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피드백을 제공하여 학생이 자신의 학습을 성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평가의 결과는 학습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업을 개선하기 위한 자료로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❷ 교과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수·학습 및 평가의 일관성 강화

마. 교과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수·학습 및 평가의 일관성을 강화한다.

교육 목표를 달성하고 교과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교육 내용, 교수·학습 및 평가가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학생의 학습 경험의 성장을 우선에 두고 교육 내용, 교수·학습, 평가의 일관성이 확보될 때 의도한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며, 이는 교육과정 개발뿐만 아니라 실행에서도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이다.



[그림 II-2] 교육 내용, 교수·학습 및 평가의 일관성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는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으로 교육 내용을 구조화하였으며 이를 성취기준으로 진술하였다. 교과와 성취기준은 교과를 통해 학생들이 배워야 할 지식과 기능 및 태도의 총체로서 학년(군)별 학습으로 기대되는 결과를 의미한다. 교수·학습 과정에서는 이러한 교육 내용에 대한 의미 있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요구를 파악하여 내용을 재구성하고, 학생들이 특정 맥락에서 습득한 내용을 새로운 상황에서 적용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평가에서는 학생들이 수행을 통해 자신이 습득한 지식을 적용하고 고차원적 사고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사는 학생들에게 형성평가 및 총괄평가에 따른 피드백을 제공하고 학생들은 이를 기초로 자신의 학습을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바.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하여 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초 역량과 직무 능력을 함양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이하 NCS로 약칭)과 연계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한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자격기본법」 제2조)’을 말한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직업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학생들이 특정한 산업 분야에서 요구하는 직무 수행 능력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고교 졸업 후 어느 산업 분야로 취업을 하더라도 유능한 직업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직업 기초 능력도

개발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고교 졸업 직후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직업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해야 하는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학생들은 지속적인 직업 능력 개발이나 선취업 후진학 등을 활용하여 자신의 진로 경로를 능동적으로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학생들이 경력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학교 급별 교육 목표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학교 급별 교육 목표는 교육기본법에 제시된 교육 이념, 이를 반영한 추구하는 인간상, 그리고 초·중등 교육법에 규정된 학교 급별 교육 목적을 바탕으로 설정된다. 학교 급별 교육 목표는 이러한 기본적 근거 위에 국가·사회적 요구 및 국가 교육과정 개정 방향을 반영하여 설정된다. 이러한 학교 급별 교육 목표는 교과(또는 영역)별 목표를 설정하는 일반적인 지침이 되며, 단위 학교에서 편성, 운영되는 학교 교육과정의 총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교육부, 1997b: 115).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교 급별 교육 목표는 각각 총괄 목표와 하위 목표로 이루어진다. 하위 목표 네 가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각 학교 급별로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으로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감안하여 학교 급별 목표의 차별성 및 위계성을 갖도록 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학교 급별 교육 목표는 초·중등 교육법의 학교 급별 교육 목적에 중점을 두되, 앞에서 제시된 추구하는 인간상, 핵심역량과 연관되도록 설정되었다. 학교 급별 교육 목표는 각각 아래와 같다.

가. 초등학교 교육 목표

초등학교 교육은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습관 및 기초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 1)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르며, 풍부한 학습 경험을 통해 자신의 꿈을 키운다.
- 2) 학습과 생활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기초 능력을 기르고, 이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상상력을 키운다.
- 3)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기고 자연과 생활 속에서 아름다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심성을 기른다.
- 4) 규칙과 질서를 지키고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서로 돕고 배려하는 태도를 기른다.

먼저, 초·중등교육법 제38조는 초등학교의 교육 목적을 “초등학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한다. 초등학교의 교육 목표는 이러한 교육 목적에 기초하여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습관 및 기초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이라는 인간상을 반영하되,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초등학교 교육 목표를 설정하였다.

나. 중학교 교육 목표

중학교 교육은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 및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 1)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바탕으로 자아존중감을 기르고,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통해 적극적으로 삶의 방향과 진로를 탐색한다.
- 2)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 및 문제 해결력을 바탕으로, 도전정신과 창의적 사고력을 기른다.
- 3)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서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와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기른다.
- 4)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타인을 존중하고 서로 소통하는 민주 시민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초·중등교육법 제41조는 중학교의 교육 목적을 “중학교는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한다. 중학교의 교육 목표는 이러한 교육 목적에 기초하여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 및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이라는 인간상을 반영하되,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중학교 교육 목표를 설정하였다.

다. 고등학교 교육 목표

고등학교 교육은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개척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 1) 성숙한 자아의식과 바른 품성을 갖추고, 자신의 진로에 맞는 지식과 기능을 익히며 평생 학습의 기본 능력을 기른다.
- 2)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융합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기른다.
- 3) 인문·사회·과학기술 소양과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 4) 국가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초·중등교육법 제45조는 고등학교의 교육 목적을 “고등학교는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한다. 고등학교의 교육 목표는 이러한 교육 목적에 기초하여,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개척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이라는 인간상을 반영하되,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고등학교 교육 목표를 설정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및 핵심역량과 학교 급별 교육 목표와의 연계는 다음과 같다.

〈표 II-1〉 추구하는 인간상 및 핵심역량과 학교 급별 교육 목표와의 연계

추구하는 인간상		핵심역량	학교 급별 교육 목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교육은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습관 및 기초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중학교 교육은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 및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고등학교 교육은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개척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자주적인 사람	가.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는 자주적인 사람	자기 관리 역량	1)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르며, 풍부한 학습 경험을 통해 자신의 꿈을 키운다.	1)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바탕으로 자아 존중감을 기르고,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통해 적극적으로 삶의 방향과 진로를 탐색한다.	1) 성숙한 자아의식과 바른 품성을 갖추고, 자신의 진로에 맞는 지식과 기능을 익히며 평생학습의 기본 능력을 기른다.
창의적인 사람	나.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다양한 발상과 도전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인 사람	지식 정보 처리 역량 · 창의적 사고 역량	2) 학습과 생활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기초 능력을 기르고, 이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상상력을 키운다.	2)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 및 문제 해결력을 바탕으로, 도전정신과 창의적 사고력을 기른다.	2)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융합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기른다.
교양 있는 사람	다.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교양 있는 사람	심미적 감성 역량 · 의사 소통 역량 · 공동체 역량	3)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기고 자연과 생활 속에서 아름다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심성을 기른다.	3)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서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와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기른다.	3) 인문·사회·과학기술 소양과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더불어 사는 사람	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		4) 규칙과 질서를 지키고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서로 돕고 배려하는 태도를 기른다.	4)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타인을 존중하고 서로 소통하는 민주 시민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4) 국가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Ⅲ.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Ⅲ.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1. 기본 사항

- 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공통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한다.
- 나. 학년 간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학년군을 설정한다.
- 다. 공통 교육과정의 교과는 교육 목적상의 근접성, 학문 탐구 대상 또는 방법상의 인접성, 생활 양식에서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교과군으로 재분류 한다.
- 라.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기초 영역 학습을 강화하고 진로 및 적성에 맞는 학습이 가능하도록 4개의 교과 영역으로 구분하고 교과(군)별 필수 이수 단위를 제시한다.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보통 교과의 4개 교과 영역과 전문 교과로 구분하고 필수 이수 단위를 제시한다.
- 마. 고등학교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구분하며, 학생들의 기초 소양 함양과 기본 학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통 교과에 공통 과목을 개설하여 모든 학생이 이수하도록 한다.
- 바. 학습 부담을 적정화하고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조정하여 집중이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사.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의 소질과 잠재력을 계발하고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데에 중점을 둔다.
- 아. 범교과 학습 주제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지역사회 및 가정과 연계하여 지도한다.

안전·건강 교육, 인성 교육, 진로 교육, 민주 시민 교육, 인권 교육, 다문화 교육, 통일 교육, 독도 교육, 경제·금융 교육,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

- 자. 학교는 필요에 따라 계기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기 교육지침에 따른다.

2015 개정 교육과정 편제의 구조

- 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공통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공통 교육과정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과정으로 구성하되,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기존의 ‘선택 교육과정’을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편제를 바꾸었다. 이는 모든 과목이 선택 과목으로 편제되었던 2009 개정 교육과정과 달리,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선택 과목과 별도로 모든 고등학생이 이수해야 할 ‘공통 과목’이 신설되었기 때문이다.

〈표 III-1〉 개정 시기별 초·중등 교육과정 편제의 구조

2007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1~10학년 • 선택 중심 교육과정: 11~12학년	• 공통 교육과정: 초등학교 1학년~중학교 3학년 • 선택 교육과정: 고등학교 1학년~3학년	• 공통 교육과정: 초등학교 1학년~중학교 3학년 • 선택 중심 교육과정: 고등학교 1학년~3학년

■ 학년군 설정

나. 학년 간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학년군을 설정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현행 교육과정과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설정되었던 학년군제를 유지하였다. 학년군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1) 학년군은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학년 간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유연성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표 III-2〉 학년군 설정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학년	3~4학년	5~6학년	1~3학년	1~3학년

- 2) 초등학교는 1~2학년, 3~4학년, 5~6학년의 3개 학년군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3개 학년을 각각 1개 학년군으로 설정한다.
- 3) 초등학교에서는 학년군제에 따라 필요한 경우 담임 연임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는 개별 학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의 학습 및 제반 영역의 성장 발달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4) 학년군 편성을 통해 상대적으로 수업 시수가 적은 교과를 학년별·학기별·분기별 집중이수를 하면 학기당 이수 교과 수를 줄여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공통 교육과정의 교과군

다. 공통 교육과정의 교과군은 교육 목적상의 근접성, 학문 탐구 대상 또는 방법상의 인접성, 생활양식에서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교과군으로 재분류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설정되었던 교과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교과군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 교과군

2007 개정 교육과정의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10개 교과를 교육 목적상의 근접성, 학문 탐구대상 또는 방법상의 인접성, 실제 생활양식에서의 상호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재분류한 것이다.

교과군 접근은 교육과정의 수평적 연계성을 통하여 교과 간 소통과 교육 내용의 통합 가능성을 증진시키고, 교과 간 및 활동 간 불필요한 내용의 중복 해소와 재구성을 촉진함으로써 학습 경험의 통합성, 학습 효과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교과군 내 혹은 교과군 간 비슷한 주제의 교과목을 통합·연계 운영하여, 학교가 자체적으로 교과별 수업 시수를 조정하거나 수업 시수 운영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

교과군 접근은 기존 교과의 운용 방안을 벗어나 학기당 이수 교과 수를 줄이는 방안이 될 수도 있으며, 블록타임제를 통해 집중 학습을 가능하게 하고 토론과 발표, 실험과 같은 탐구중심 수업을 내실화하는 것을 돕는다.

(2007 개정) 10개 교과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 (영어)
↓		↓			↓			↓		
(2009 개정 이후) 7개 교과(군)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실과		체육	예술 (음악/미술) 영어		

[그림 Ⅲ-1] 초등학교 교과(군) 설정의 변화

2) 중학교 교과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설정되었던 교과군을 그대로 유지하되, 중학교 교육과정의 경우 교과군이 일부 변경되었다. 소프트웨어(SW) 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선택 교과의 정보 과목을 소프트웨어 교육내용 중심으로 개편하고 기존의 ‘과학/기술·가정’ 교과군에 포함시켜 해당 교과군을 ‘과학/기술·가정/정보’ 교과군으로 변경하였다.

2009 개정	8개 교과(군)	국어	사회(역사포함)/ 도덕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예술 (음악/미술)	영어	선택
↓		↓		↓		↓			
2015 개정	8개 교과(군)	국어	사회(역사포함)/ 도덕	수학	과학/ 기술·가정/정보	체육	예술 (음악/미술)	영어	선택

[그림 III-2] 중학교 교과(군) 설정의 변화

●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교과 영역 및 교과군 설정

라.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기초 영역 학습을 강화하고 진로 및 적성에 맞는 학습이 가능하도록 4개의 교과 영역으로 구분하고 교과(군)별 필수 이수 단위를 제시한다. 특성화 고등학교 교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보통 교과의 4개 교과 영역과 전문 교과로 구분하고 필수 이수 단위를 제시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 영역은 2009 개정 교육과정과 동일하며, 일부 교과(군)이 변경되었다. 사회(역사/도덕 포함) 교과군에 포함되어 있던 한국사 과목이 역사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기초 영역에 포함됨으로써 교과(군)은 8개에서 9개가 되었다. 또한 예술 교과군에 인성 교육 및 인문학적 소양 함양을 위해 연극 과목이 포함되었으며, 이로 인해 교과군 명칭도 ‘예술(음악/미술)’에서 ‘예술’로 변경되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4개 교과 영역	기초			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양
	8개 교과(군)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역사/도덕 포함)	과학	체육	예술 (음악/ 미술)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
↓		↓			↓				
2015 개정 교육과정	4개 교과 영역	기초			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양
	9개 교과(군)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 (역사/도덕 포함)	과학	체육	예술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

[그림 III-3] 고등학교 보통 교과의 교과 영역 및 교과(군) 설정 변화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단위 배당 기준표를 일반 고등학교(자율 고등학교 포함)와 특수 목적 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제외)의 단위 배당 기준표와 구분하여 제시한 것은 2009 개정 교육과정과 동일하다.

고등학교 교과목의 구분 변경 및 공통 과목의 신설

마. 고등학교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구분하며, 학생들의 기초 소양 함양과 기본 학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통 교과에 공통 과목을 개설하여 모든 학생이 이수하도록 한다.

고등학교의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구분된다. 이것은 2009 개정 교육과정과 다르지 않으나 그 세부 내용에 변화가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보통 교과의 심화 과목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보통 교과가 아닌, 전문 교과로 재배치되었다. 전문 교과는 특수 목적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 교과Ⅰ과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 교과Ⅱ로 구분되었다. 모든 과목이 선택 과목으로 구성되었던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보통 교과와 달리,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보통 교과에는 기초 소양 함양과 기본 학력을 갖추기 위하여 모든 학생이 이수해야 하는 ‘공통 과목’을 신설하고 선택 과목을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구분하였다. 일반 선택 과목은 고등학교 단계에서 필요한 교과별 학문의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과목이라면, 진로 선택 과목은 교과 융합학습, 진로 안내학습, 교과별 심화학습, 실생활 체험학습 등이 가능한 과목으로 구성하였다.

 교과(목) 집중이수

바. 학습 부담을 적정화하고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조정하여 집중이수를 실시할 수 있다.

학습 부담을 적정화하고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 시행되었던 교과(목) 집중이수는 시행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학기당 이수 교과목수 제한을 완화하는 조치가 이루어졌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교의 여건, 학교 급 및 교과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중점

사.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의 소질과 잠재력을 계발하고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데에 중점을 둔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과와 함께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양대 영역 중 하나로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기존의 재량 활동과 특별 활동을 통합하여 신설한 교육과정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의 기본 구조(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사 활동, 진로 활동의 4개 영역)는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학생의 소질과 잠재력을 계발하고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데에 중점을 두며 그 성격은 다음과 같다.

- 1)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과와 상호 보완적 관계 속에서 삶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심신을 조화롭게 발달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과 이외의 활동이다.
- 2) 창의적 체험활동은 나눔과 배려를 실천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개인의 소질과 잠재력을 계발·신장하여 창의적인 삶의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초등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은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개성과 소질을 탐색하고 발견하는 데 중점을 둔다.
- 3) 창의적 체험활동은 핵심역량의 함양을 통해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기여한다.
- 4)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4개 영역으로 구성하되, 학생의 발달 단계와 교육적 요구 등을 고려하여 학교 급별, 학년(군)별, 학기별로 영역 및 활동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5)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의 주체는 학교이며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는 학교와 지역의 특색을 고려하여 전문성을 갖춘 인적·물적 자원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한다.

범교과 학습 주제 교육

아. 범교과 학습 주제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지역사회 및 가정과 연계하여 지도한다.

안전·건강 교육, 인성 교육, 진로 교육, 민주 시민 교육, 인권 교육, 다문화 교육, 통일 교육, 독도 교육, 경제·금융 교육,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범교과 학습 주제를 학교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학교별로 다양하고 특색 있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교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범교과 학습 주제를 교과 내에서 통합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권장된다. 또한 주제에 따라서는 창의적 체험활동 중 ‘자율 활동’ 영역의 ‘창의주제활동’으로 특정 주제를 정하여 학교 실정에 따라 학년별로 운영할 수도 있으며,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지도할 수도 있다. 범교과 학습 주제의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및 가정과의 연계 지도 등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문화예술교육, 미디어교육, 의사소통·토론 중심

교육, 정보화 및 정보윤리교육 등은 범교과 학습 주제로 포함하지는 않았으나, 관련 교과(군)에서 충실하게 다뤄지도록 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되었던 39개 범교과 학습 주제를 추가, 삭제, 통합 등을 통해 10개 주제로 범주화하였다. 안전·건강교육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익혀야 할 내용, 즉 자연 재난 상황에서 안전을 지키는 방법, 보건 및 성교육, 건강한 식생활 및 영양교육 등을 체육, 과학, 실과와 같은 관련 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다룰 수 있도록 하였다. 인성교육은 학교교육 활동 전반을 통해 부모님께 효도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우리나라 전통윤리를 몸으로 익힐 수 있게 하면서, 생명을 존중하며 타인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진로교육은 자신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고, 진로 체험 활동 등 관련한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며, 여가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 등을 익혀 궁극적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였다.

민주 시민 교육은 건전한 사회를 위해 청렴·반부패 문화를 형성하고, 헌법의 정신 및 법질서를 존중하도록 하며, 생산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인권 교육은 아동 및 청소년이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고,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며, 양성평등, 노동인권 존중 등과 같이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이 존중받고, 각종 폭력을 예방하도록 한다. 다문화 교육은 우리나라에서의 다문화 가정 증가, 외국인 근로자 및 탈북 학생 유입 확대에 따라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활동을 강화하고, 세계시민교육 및 국제이해 등에 대한 학습을 통해 국제 사회 전반에 걸쳐 다문화 이해와 상호 존중의 정신을 함양하도록 하였다.

통일 교육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 통일이 왜 필요한지 학습하게 하고, 범교과적으로 국가 상징, 한국문화사 교육, 호국보훈 등에 대한 학습을 통해 국가정체성을 명확히 하도록 하였다. 독도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국토에 대한 개념을 인식하게 하고, 우리 땅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였다. 경제·금융 교육은 소비자의 책임과 권리, 창업(기업가)정신, 복지와 세금·금융생활·지적 재산권 등을 학습하여 합리적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은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 교육, 물 보호·에너지, 해양교육, 농업·농촌 이해 교육 등을 통해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과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계기 교육

자. 학교는 필요에 따라 계기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기 교육 지침에 따른다.

계기 교육은 시기별, 계절별로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는 주제나 변화하는 사회 현안에 대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계기 교육은 교과협의회와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를 통해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교수·학습 계획과 학습 자료를 학교장의 사

전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또한, 계기 교육은 교육의 중립성과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확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실시되어야 하므로 시·도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계기 교육 지침에 따라야 한다. 다만 사회적 논란이나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등의 경우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협의를 거쳐 계기 교육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2. 초등학교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

가. 편 제

- 1)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
- 2) 교과(군)는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실과,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로 한다. 다만, 1, 2학년의 교과는 국어, 수학,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로 한다.
- 3)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한다. 다만, 1, 2학년은 체험 활동 중심의 ‘안전한 생활’을 포함하여 편성·운영한다.

총론 중심의 개정이 이루어졌던 2009 개정 교육과정과 달리 2015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기존 교육과정과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총론 편제상에서의 변화는 최소화하고 실제적인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2015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1, 2학년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안전한 생활’이 포함된 것 이외에는 2009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편제와 동일하다. 2015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편제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III-4] 2015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제

2009 개정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교과군과 학년군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2009 개정 교육과정과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되 교과군과 학년군의 의미를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통해 교육과정의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편성·운영이라는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15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제상에서 주요한 변화는 초등학교 1~2학년 군의 수업 시수를 64시간 증배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의 시수에 배당하고, 증가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안전한 생활’을 별도로 편성·운영하도록 한 점이다. 이것은 국가·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부터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안전의식을 내면화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안전한 생활’은 생활안전, 교통안전, 신변안전, 재난안전의 4개 영역으로 설정되었으며, 일상 생활과 재난 상황에서 접하게 되는 위험을 알고 안전하게 생활하는 방법을 익혀 위험을 예방하고 위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즉, ‘안전한 생활’은 자연스럽게 안전한 생활 습관과 의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식보다는 체험 중심 학습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나. 시간 배당 기준

구 분		1~2학년	3~4학년	5~6학년
교 과 (군)	국어	국어 448	408	408
	사회/도덕		272	272
	수학	수학 256	272	272
	과학/실과	바른 생활 128	204	340
	체육	슬기로운 생활 192	204	204
	예술(음악/미술)		272	272
	영어	즐거운 생활 384	136	204
	소계	1,408	1,768	1,972
창의적 체험활동		336 안전한 생활 (64)	204	204
학년군별 총 수업 시간 수		1,744	1,972	2,176

- ① 이 표에서 1시간 수업은 40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② 학년군 및 교과(군)별 시간 배당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2년간의 기준 수업 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 ③ 학년군별 총 수업 시간 수는 최소 수업 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 ④ 실과의 수업 시간은 5~6학년 과학/실과의 수업 시수에만 포함된 것이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시간 배당 기준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1) 초등학교에서 수업은 ‘시수제’로 운영되며, 1시간 수업은 40분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수업 시간을 융통성 있게 재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한 학생이 학습을 설계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수업을 강화하기 위해 블록 타임(70분, 80분, 90분, 120분)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때 학교장은 원칙적으로 40분을 1차시 기준으로 합산한 학년군별 최소 수업 시간보다 줄어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2) 2015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시간 배당 기준에 제시된 수업 시수는 2009 개정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기준 수업 시수’와 ‘최소 수업 시수’를 이원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각 학년군별 총 수업시간 수와 교과(군) 소계 수업 시수는 ‘최소 수업 시수’를 의미하며, 학년군 및 교과(군)별 시간 배당은 연간 34주(초등학교 1학년은 30주)를 기준으로 한 2년간의 ‘기준 수업 시수’를 나타낸다. 예컨대, 3~4학년의 경우 국어 408시간은 20% 범위 내 증감이 가능한 기준 수업 시수이며, 교과(군) 소계 1,768시간과 학년군별 총 수업시간 수인 1,972시간은 최소 수업 시수인 것이다.

즉, 학년군별 총 수업 시간 수와 교과(군) 소계 시수는 ‘최소 수업 시수’이므로 단위 학교에서는 반드시 그 이상 이수해야 하며, 수업 시수 확보는 학교에서 계획한 시수 이상만큼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에 비해 ‘기준 수업 시수’는 학년군별로 운영해야 할 각 교과(군)의 연간 시수로, 이 시수를 기준으로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수업 시수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기준 수업 시수’의 제시는 단위 학교에서 교과(군)별 수업 시수의 20%범위 내 증감 운영을 가능하게 하여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저가 되고 있다. 다만, 교과(군) 수업 시간 수의 ‘소계’ 이상만큼 이수해야 한다. 어느 교과(군)에서 20%를 감축한다면 감축한 분량을 다른 교과(군)에서 증배하여 교과(군) ‘소계’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3) 교과(군)의 설정으로 과학/실과 교과군이 제시되었는데, 3~4학년군에서는 과학을, 5~6학년군에서는 과학/실과 교과군을 지도하게 된다. 즉, 5~6학년군의 340시간에는 실과의 수업 시수가 포함된 것이다. 이는 초등학교 고학년 단계의 학생들에게 실습 노작을 할 수 있는 교육 경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단위 학교에서는 교과군 운영 시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수를 고려하여 교과별 시간 배당을 해야 할 것이다.

- 4) 1~2학년군에 제시된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 시수 336시간에는 ‘안전한 생활’ 64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1~2학년군 수업 시수를 64시간(주당 1시간 분량) 증배하되, 추가적인 학습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체험 중심의 ‘안전한 생활’을 편성·운영하도록 하였다. 초등학교 1~2학년군의 수업 시수 증배는 초등학교 저학년 수업 시수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에 의한 초등학교 돌봄 기능 강화에 대한 요구 확산 등을 폭넓게 고려하여 결정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초등학교 1~2학년군 창의적 체험활동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272시간이었던 것에 비해 ‘안전한 생활’을 위한 64시간이 증가된 총 336시간으로 제시되었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학년군별 시간 배당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2년간의 기준 수업 시수를 나타낸 것이지만 1학년의 경우 3월 초 입학 초기 적응활동을 집중 편성할 경우를 대비하여 30주를 기준으로 한다. 이에 따라 ‘안전한 생활’을 포함한 1, 2학년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 편성을 예시하면 1학년 창의적 체험활동은 입학 초기 적응활동 포함 창의적 체험활동 170시간, 안전한 생활 30시간으로, 2학년 창의적 체험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 102시간, 안전한 생활 34시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안전한 생활’ 시수는 창의적 체험활동 하위 영역(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 활동)에 포함하지 않고 1,2학년군에서 별도로 64시간 이상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다만, 안전한 생활 교수·학습 활동은 안전한 생활 단독 수업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련 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하위 영역과 연계하거나 통합하여 블록타임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즐거운 생활 성취기준 ‘[2즐02-04] 여러 가지 놀이나 게임을 하면서 몸나들이를 즐긴다.’의 교수·학습 활동을 전개하면서, 안전한 생활 성취기준 ‘[2안01-07] 현장체험학습이나 캠핑 등 야외 활동에서의 위험 요인을 알고 사고를 예방한다.’와 블록타임으로 3~5차시 통합 수업을 전개할 수도 있다. 이는 실제 상황에서 몸으로 체득하는 안전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안전한 생활 영역별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지역 사회 체험 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 1) 학교는 모든 교육 활동을 통해 학생의 기본 생활 습관, 기초 학습 능력, 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 2) 학교는 학년군별로 이수해야 할 교과를 학년별, 학기별로 편성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한다.
- 3) 학교는 각 교과의 기초적, 기본적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학습되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특히 국어 사용 능력과 수리 능력의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 4) 학교는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교과(군)별 20% 범위 내에서 시수를 증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단,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는 기준 수업 시수를 감축하여 편성·운영할 수 없다.
- 5) 학교는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년별, 학기별로 교과 집중 이수를 실시할 수 있다.
- 6) 전입 학생이 특정 교과를 이수하지 못할 경우,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보충 학습 과정 등을 통해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7)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복식 학급을 편성·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육 내용의 학년별 순서를 조정하거나 공통 주제를 중심으로 교재를 재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 8) 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을 학생들의 발달 수준,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년(군)별로 선택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9) 학교는 1학년 학생들의 입학 초기 적응 교육을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의 시간을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입학 초기 적응 프로그램 등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 10) 정보통신활용 교육, 보건 교육, 한자 교육 등은 관련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기본 생활 습관, 기초 학습 능력, 바른 인성의 함양

- 1) 학교는 모든 교육 활동을 통해 학생의 기본 생활 습관, 기초 학습 능력, 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초등학교 교육은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기르기 위한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교육의 성격을 지닌다. 기본적인 언어 능력, 수리적 사고 능력, 기초 체력 등은 문제 해결력이나 창의력과 같은 고등 사고 능력의 바탕이 되므로 초등학교에서부터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교육을 충실히 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이와 함께 초등학교 교육은 학생들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 수 있도록 기본 생활 습관의 형성과 바

른 인성의 함양을 강조해야 한다. 규칙과 질서를 지키고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서로 돕고 배려하는 태도는 어린 시절부터 습관화되도록 구체적인 체험과 실천을 통해 강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 기본 생활 습관과 예절 형성을 위한 반복적, 지속적 교육이 되도록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하며, 학교에서의 교육이 가정 및 사회와 연계되도록 적절한 실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인지적, 정의적, 신체적 성장이 왕성한 초등학교 시기에는 전인적 성장을 위한 기초·기본 교육과 함께 배려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바른 인성 함양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관련 안내

2) 학교는 학년군별로 이수해야 할 교과를 학년별, 학기별로 편성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2009 개정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시수의 20%의 범위 내에서 시수를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학교는 학년군별로 이수해야 할 교과를 학년별, 학기별로 편성하여 학교 교육과정 문서 및 학교 홈페이지, 나이스 학부모서비스 등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하여 학습 계획 설계를 돕고, 전·입학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맞게 학생이 학습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학생 참여형 교수·학습 활동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40분 단위로 분절된 교수·학습 시간 운영에 한정하지 않고 프로젝트 수업, 블록타임 수업, 변동시간표 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교와 가정의 소통을 강화하고 교수·학습 활동을 더욱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주별 또는 월별로 학년(급)의 세부적인 교수·학습 활동 계획을 세워 학부모 및 학생에게 안내할 수 있다.

기초·기본 요소의 체계적 학습

3) 학교는 각 교과의 기초적, 기본적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학습되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특히 국어 사용 능력과 수리 능력의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교육 내용의 기초는 ‘읽기, 쓰기, 셈하기’를 가리키며 이러한 국어사용 능력과 기초적인 수리력은 초등학교 이후의 학습을 위한 밑바탕이 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능력이다. 따라서 초등학교 교육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이러한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학습 능력을 충분히 갖추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초 학습 능력은 초등학교 입학 초기에 개인별 차이가 비교적 크기 때문에 학교는 저학년에서부터 개인별 출발점 행동을 철저히 조사하여 학습 결손이 생기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기초 학습 능력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하여 후속 학습에서 학습 결손이 누적될 경우 이를 메우는 데에 많은 노력과 비용이 요구되므로 단위 학교에서는 별도의 기초 학력 증진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이는 초등학교 학생의 기초·기본 학습 능력 제고에 대한 단위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동시에 강조하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초등학교 1, 2학년 단계에서 담임책임지도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모든 학생들이 한글을 해독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아울러 다문화 가정 학생 등 기초 학습 능력이 부족한 특별한 학생에게도 해당 학생의 발달 단계 및 수준에 맞는 국어 사용 능력 및 수리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야 한다.

기초 학습 능력의 향상과 함께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각 교과와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해야 한다. 초등교육에서 다루어지는 각 교과는 학문의 기초적, 기본적 요소들을 정선하여 담아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실제 교실 수업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이것은 초등학교 교육에서 배우는 각 교과와 기본적인 요소들이 이후의 학습을 지속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교과별 수업 시수의 20% 범위 내 증감 운영

- 4) 학교는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교과(군)별 20% 범위 내에서 시수를 증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단,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는 기준 수업 시수를 감축하여 편성·운영할 수 없다.

교과(군)별 수업시수 20% 범위 내 증감 허용에 대한 지침의 의도는 학교의 지역적, 사회적 여건과 학생들의 수준과 능력 등을 감안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단위 학교에서는 학교의 특성, 학생·학부모·교사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중점사항을 발굴하여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초·기본교육, 인성 교육, 예술 교육 등은 학교 교육 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교과 활동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해당 교과와 수업 내용, 수업량 등을 고려하여 증감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때 특정 교과 시간을 20% 감축하는 것은 단원 재구성, 교육과정 압축 등과 같은 방식으

로 교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운영함을 의미하는 것이지 일부 내용(성취기준)을 삭제하여 가르쳐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교과별 수업 시수를 20% 범위에서 증감 운영할 수 있다는 지침이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수업 시수를 감축하더라도 교과 교육과정 기준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다.

아울러 교과(군)별 수업시수 20% 범위 내 증감 편성 시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는 제시된 기준 시수보다 감축하여 편성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학년별, 학기별 교과 집중이수

- 5) 학교는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년별, 학기별로 교과 집중 이수를 실시할 수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다교과 분산 이수제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 부담 과중과 흥미 저하 문제를 개선하고자 집중이수제를 도입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도입한 교과 집중 이수의 근본 취지는 학기당 이수 교과 수의 감축을 통한 학습 부담 경감과 학습의 질 개선에 있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집중 이수의 근간을 유지하되, 초등학교의 경우 집중 이수의 의미를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의 감축보다는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의미로 재규정하였다. 즉, 초등학교에서의 집중 이수는 특정 교과 내용을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학습함으로써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10월 초에 체육대회를 실시할 경우 9월 중에 체육 수업 시간을 집중 편성하여 운영하거나, 학년별 학예발표회를 계획하면서 관련 교과 및 내용을 해당 시기에 집중 편성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위 학교는 교사,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 학교의 여건 등에 대한 충분한 실태 파악과 논의를 통해 교과 집중 이수 실시 여부에 대해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과 집중 이수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 시 각 교과(군)별로 계절적 특성 등이 나타나는 교육 내용이나 학습 소재 등에 유의하여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전입 학생의 학습 결손 방지를 위한 '보충학습 과정' 등의 운영

- 6) 전입 학생이 특정 교과를 이수하지 못할 경우,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보충학습 과정 등을 통해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편제상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교육과정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도입된 학년군, 교과군 및 교과 집중이수의 기본적 틀을 유지하였다. 따라서 교과목의 이수 시기, 학년이나 학기당 이수하는 교과목의 분량이나 내용 등이 학교마다 다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일부 전입 학생들이 교과 미이수나 중복이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위 학교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첫째, 학교는 학년군별로 이수해야 할 교과를 학년별, 학기별로 편성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한다. 학생과 학부모는 이를 고려하여 전출 학교의 교육과정과 전입 학교의 교육과정 간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과 미이수나 중복이수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관할 교육청과 학교는 교과 집중이수로 인해 해당 교과를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학업성적관리지침’ 등을 참고로 하여 해당 학생의 학습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방송이나 전자학습(e-learning), 보충 학습 과정 등을 통해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때, 보충 학습 과정은 학기 중이나 방학 중 학생이 이수할 수 있는 시간에 제공하며, 관할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 학생의 성취수준 등을 확인하여 이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복식 학급 운영 시의 교육 내용 조정

- 7)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복식 학급을 편성·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육 내용의 학년별 순서를 조정하거나 공통 주제를 중심으로 교재를 재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소규모 학교에서는 2~3개 학년을 묶어 복식 학급을 운영할 수 있다. 가급적 동일 학년군(1-2학년군, 3-4학년군, 5-6학년군)으로 구성할 것을 권장하며, 복식 학급의 수업 운영을 위하여 학년 간 교육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즉, 복식 학급으로 묶여진 학년 간에 교육 내용의 순서를 조정할 수 있으며, 공통의 주제나 공동의 과제를 선별하여 이를 수준별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주제 통합형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학교는 교재를 재구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소규모 학교의 경우 교육 시설·설비, 인적 자원 등 교육 여건과 환경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서는 교육과정 컨설팅단, 교과 연구회 등을 활용하여 소규모 학교의 복식 학급을 위한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컨설팅, 교재의 재구성, 교육 자료의 개발·보급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선택적 편성·운영

8) 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을 학생들의 발달 수준,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년(군)별로 선택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교과 외 활동으로 기존의 특별 활동과 재량 활동을 통합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을 신설하고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의 4개 영역을 구성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기존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과의 연속성, 안정성을 고려하여 4개의 영역 체제를 유지하되,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에서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학생의 발달 단계와 학교의 여건 등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고려하여 학교 급별, 학년(군)별, 학기별로 영역을 1개 이상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초등학교 1~2학년의 예를 들면, 자율 활동을 중심으로 편성·운영하거나, 자율 활동과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영역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도 있으며, 필요한 경우는 4개 영역 모두 편성할 수도 있다. 즉,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단위 학교가 자율적으로 특색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단위 학교의 자율권을 보다 확대하고자 하였다.

다만,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 활동, 내용 등을 선정할 때에는 학생의 입장에서 초등학교 6개 학년 동안 의미있는 성장에 초점을 맞춰 프로그램을 설계함으로써 체계적이면서도 지속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입학 초기 적응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의 편성·운영

9) 학교는 1학년 학생들의 입학 초기 적응 교육을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의 시간을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입학 초기 적응 프로그램 등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2007 개정 교육과정까지 초등학교 1학년의 교육과정 편제에는 교과 영역에 ‘우리들은 1학년’이라는 교과가 제시되었으나,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입학 초기 적응 프로그램을 학교 자체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서 편성·운영하도록 하였다. 이는 ‘우리들은 1학년’ 교과 자체가 새로운 환경에의 원만한 적응을 목적으로 하는데, 취학전 교육 기관 및 교육 기회의 확대에 의해 특정 교과로 제시할 필요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역 또는 개별 학습자에 따라 취학전 교육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으므로 지역 특성이나 학생들의 요구에 적절하게 입학 초기 적응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과 운영은 융통성을 가져야 한다. 즉,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한 입학 초기 적응 프로그램은 의무교육에 입문하는 모든 학습자로 하여금 학교 환경에 자연스럽게

적응하게 함과 동시에 학습의 출발점을 같게 하여 이후의 학습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에서는 학생의 입학 초기 학교생활 적응과 학습 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지역의 특색과 학생의 교육적 요구 등을 반영하여 입학 초기 적응 활동의 적용 시기와 시수 및 활동 내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편성·운영하도록 한다. 예컨대, 입학 초기 적응 활동은 3월 초에 교과를 편성하지 않고 집중적으로 편성·운영하거나 1학년 1학기 중 일정 시기 동안에 다른 교과와 함께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입학 초기 적응 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 내에서 ‘안전한 생활’과 함께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정보통신활용 교육, 보건 교육, 한자 교육 등의 체계적 지도

10) 정보통신활용 교육, 보건 교육, 한자 교육 등은 관련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015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이어 정보통신활용 교육, 보건 교육, 한자 교육 등을 관련 교과(군) 시간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지도하거나 관련 교과(군) 시간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모두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활용 교육, 보건 교육, 한자 교육 등은 초등학교급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도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이다. 따라서 초등학교에서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 정보통신활용 교육, 보건 교육, 한자 교육 등이 관련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통해 의미 있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지도 시간 수, 대상, 시기 등은 교육 내용의 특성, 학교 교육 수요자의 요구, 학교의 여건, 학생의 수준,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특수한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 가. 초·중·고등학교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이 교육과정에 따라서 편성·운영한다.
- 나. 국가가 설립 운영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해당 시·도 교육청의 편성·운영 지침을 참고하여 학교장이 편성한다.
- 다. 공민학교, 고등 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근로 청소년을 위한 특별 학급 및 산업체 부설 학교, 기타 특수한 학교는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특성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운영한다.
- 라. 야간 수업을 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이 교육과정을 따르되, 다만 1시간의 수업을 40분으로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마.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따르되,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이 교육과정의 편제와 시간·단위 배당 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1) 편제와 시간·단위 배당 기준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되, 중학교는 2,652시간 이상, 고등학교는 162단위 이상 이수하도록 한다.
 - 2) 학교 출석 수업 일수는 연간 20일 이상으로 한다.
- 바. 특성화 학교, 자율 학교, 재외한국학교 등 법령에 따라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이 부여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따른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청(재외한국학교의 경우 교육부)의 지침에 따른다.
- 사. 교육과정의 연구 등을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교육과정의 기준과는 다르게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특수한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 가. 초·중·고등학교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이 교육과정에 따라서 편성·운영한다.
- 나. 국가가 설립 운영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해당 시·도 교육청의 편성·운영 지침을 참고하여 학교장이 편성한다.
- 다. 공민학교, 고등 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근로 청소년을 위한 특별 학급 및 산업체 부설 학교, 기타 특수한 학교는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특성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운영한다.

초등학교에 준하는 특수한 학교는 이 교육과정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해야 한다. 또한 국가가 설립한 학교는 시·도 교육청의 관할에 속하지 않지만, 각 학교는 이 지침에 따라 해당 학교 소재지 관할 시·도 교육청의 편성·운영 지침을 준용하도록 한다. 아울러 공민학교를 포함한 특수한 학교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의 실정 및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으나, 이 경우라도 하더라도 학교를 관할하고 있는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야간 수업을 하는 학교의 교육과정

라. 야간 수업을 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이 교육과정을 따르되, 다만 1시간의 수업을 40분으로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야간에 수업을 편성·운영하는 중·고등학교는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을 모두 지도해야 할 것이다. 다만 시간 운영의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단위 수업 시간을 40분으로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도 교육청은 야간에 수업을 하는 학교의 경우 특별 활동 및 야외 학습 등의 실시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마.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따르되,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이 교육과정의 편제와 시간·단위 배당 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1) 편제와 시간·단위 배당 기준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되, 중학교는 2,652시간 이상, 고등학교는 162단위 이상 이수하도록 한다.
- 2) 학교 출석 수업 일수는 연간 20일 이상으로 한다.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편성·운영하기 위해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 및 교육 방식, 학교 출석 수업 일수 등을 조정·제시하였다. 즉 ①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되 중학교는 2,652시간 이상, 고등학교는 162단위 이상 이수하도록 하였으며, ② 학교 출석 수업 일수를 연간 20일 이상으로 하였다. 이것은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습 부담을 줄이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융통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 바. 특성화 학교, 자율 학교, 재외한국학교 등 법령에 따라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이 부여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따른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청(재외한국학교의 경우 교육부)의 지침에 따른다.
- 사. 교육과정의 연구 등을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교육과정의 기준과는 다르게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 및 특정 목적 하에 학교 운영의 특례 등이 부여되고 있는 특성화 학교 및 자율 학교 등으로 지정된 학교의 경우 해당 학교의 설립 이념 및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융통적인 운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에는 이러한 학교들의 경우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를 받아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시·도 교육청(재외한국학교의 경우 교육부)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야 하며, 해당 학교는 이 지침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교육과정 개선 연구 등을 위해 지정된 연구학교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과 다르게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이 지침의 취지는 해당 연구학교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행 교육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따르도록 제시되어 있는 지침과 다르게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장관의 승인은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이 절차에 따라 연구학교를 지정한 것으로 가름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시도교육청 및 학교와의 협의를 통해 2015 개정 교육과정 취지를 고려하여 해당 연구학교의 교육과정을 조정할 수 있다.



IV. 학교 교육과정 편성 · 운영

IV.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1. 기본 사항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서는 단위 학교에서의 학교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된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이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II.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하위 항목인 ‘4. 학교급별 공통사항’에 나열되어 있던 학교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지침들을 ‘기본 사항’, ‘교수·학습’, ‘평가’,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기회의 제공’으로 범주화한 후 이를 독립적인 항목으로 제시한 것이다.

- 가. 학교는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 실정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 나.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학년(군)별 교육과정 및 교과(목)별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 다. 학교 교육과정은 모든 교원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 편성한다.
- 라. 교육과정의 합리적 편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원, 교육과정 전문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이 위원회는 학교장의 교육과정 운영 및 의사결정에 관한 자문의 역할을 담당한다. 단,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산업계 인사가 참여할 수 있고, 통합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의 경우에는 특수교사가 참여할 것을 권장한다.
- 마.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때에는 교원의 조직, 학생의 실태, 학부모의 요구, 지역사회의 실정 및 교육 시설·설비 등 교육 여건과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 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 배열은 반드시 학습의 순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역의 특수성, 계절 및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요구, 교사의 필요에 따라 각 교과목의 학년군별 목표 달성을 위한 지도 내용의 순서와 비중, 방법 등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사. 학교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계획적으로 활용한다.
- 아. 학교는 학생의 요구, 학교의 실정 및 특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창의적 체험 활동의 영역, 활동, 시간 등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자. 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실질적 체험학습이 되도록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연계·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차.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 카. 학교는 가정 및 지역과 연계하여 학생이 건전한 생활 태도와 행동 양식을 가지고 학습에 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타. 학교는 동학년 모임, 교과별 모임, 현장 연구, 자체 연수 등을 통해서 교사들의 교육 활동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파.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적절성과 효과성 등을 자체 평가하여 문제점과 개선점을 추출하고, 다음 학년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그 결과를 반영한다.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계획 수립

- 가. 학교는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 실정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 나.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학년(군)별 교육과정 및 교과(목)별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 마.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때에는 교원의 조직, 학생의 실태, 학부모의 요구, 지역사회의 실정 및 교육 시설·설비 등 교육 여건과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모든 학교는 국가 교육과정과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근거하여 학교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을 수립한 후 그에 근거하여 실제로 학생들의 교수·학습 활동이 운영되는 학년(군) 교육과정 및 교과(목)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초등학교에서의 학년군 교육과정은 1~2학년, 3~4학년, 5~6학년으로 구분되며, 2개년간의 학년군 시간을 포함한다. 따라서 당해 학년 교육과정을 편성하더라도 시간 배당은 해당 학년군의 2년간 이수해야 할 시간을 포함해야 한다.

단위 학교에서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해야 함은 학습자 중심·교육 수요자 중심 교육을 실현하고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즉, 교육 실천가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생의 실태, 학교의 실정, 지역의 특성에 맞게 단위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함으로써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가능하게 하고, 다양하고 개성 있는 교육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학교 교육과정은 당해 학교의 교육 목표와 중점, 학년·교과·영역별 교육 내용과 방법, 평가 및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핵심 요소로 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구성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들 요소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융통성 있는 운영 방식도 중시되어야 한다.

학교 교육과정을 어떤 체제로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가 국가 기준이나 시·도 교육청 지침에 근거하여 자율권과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 교육과정은 다양한 형식을 취할 수 있지만, 학교의 교육 비전과 학교 교육 목표, 당해 연도 교육의 중점이 드러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과정의 편제와 시간 배당, 교과(군), 창의적 체험활동의 학년(군), 교과, 영역별 교육 중점과 연간 지도, 평가, 운영 방식이나 실천 방안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제시되어야 당해 학교의 실정에 알맞은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될 사항을 중심으로 다양한 편성 체제를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지역 및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학교에서 결정해야 한다.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기 위한 절차는 ① 준비 단계, ② 편성 단계, ③ 운영 단계, ④ 평가 단계의 4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각 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일반적인 절차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준비 단계	1.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 조직·운영 - 관련 규정 검토, 역할 구체화, 조직하기, 운영하기 ↓
	2. 기초 조사 - 전 학년도 학교 교육과정 평가 결과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관련 규정 검토 분석 - 계획 수립, 기초 조사 실시, 결과 분석, 시사점 반영 ↓
② 편성 단계	3. 편성 계획 ○ 구성 체제 결정 -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방향 -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지도 - 학교 교육과정의 평가 ○ 편성 절차 - 기본 원칙 설정 - 편성 시 결정 사항 - 편성 절차 ↓
	4. 기본 방향 설정 - 학교의 교육 비전 - 학교 교육 목표 - 교육 중점 과제 - 학교 특색 교육 - 중장기 발전 계획 ↓
	5. 학교 교육과정 시안 작성 - 편제와 시간 배당 - 학년군, 교과(군) 교육 활동 편성 계획 - 창의적 체험활동 편성 계획 - 교육과정 지원 계획

② 편성 단계	↓
	6. 시안 검토, 심의 확정 - 시안 검토 - 시안 심의 및 확정
③ 운영 단계	↓
	7. 교과 운영 - 교과(군) 수업 시수 증감 운영 - 교육과정의 재구성 - 역량 함양 교육 강화 - 인성 교육 강화
	↓
	8.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 창의적 체험활동의 성격 및 목표, 유의점 파악 - 내용 및 운영 방법 -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의 사례 파악 활용
	↓
	9. 범교과 학습 운영 - 범교과 학습 주제의 교육과정 반영 계획 - 범교과 학습 운영 방법 - 범교과 학습 운영의 실제
④ 평가 단계	↓
	10. 운영 관련 기타 사항 - 특별 보충 수업 - 귀국자, 다문화 가정 자녀 지원 - 인적·물적 자원 활용 - 돌봄 교실 운영 - 교육과정 변경 운영 -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점검 - 전입생 미이수 및 중복이수 문제 해소 계획 - 학칙 및 학업 성적 관리 규정 등
④ 평가 단계	↓
	11. 학교 교육과정 평가와 개선 ○ 학업 성취도 평가 - 교과 평가, 창의적 체험활동 평가 ○ 학교 교육과정 평가 - 학교 교육과정 연구와 개발 - 학교 교육과정 기본 계획 - 교과 교육과정 및 학습지도 - 창의적 체험활동 계획 및 운영 - 학교 교육과정 지원 - 학교 자체 점검 체제 - 계획별 성과 관리 활동 ○ 학년(군) 및 학교 교육과정 평가 ○ 개선점 추출, 다음 해의 편성·운영에 반영

[그림 IV-1]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절차

민주적 절차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 구성·운영

- 다. 학교 교육과정은 모든 교원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 편성한다.
- 라. 교육과정의 합리적 편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원, 교육과정 전문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이 위원회는 학교장의 교육과정 운영 및 의사 결정에 관한 자문의 역할을 담당한다. 단,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산업계 인사가 참여할 수 있고, 통합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의 경우에는 특수교사가 참여할 것을 권장한다.

○ 학교 교육과정 편성 절차와 과정의 민주성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는 모든 교원이 전문적인 역할을 하면서 참여해야 한다.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은 학교에서 만들어가는 것이므로, 교원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기 위한 자료의 준비, 편성 작업, 심의·검토, 수정·보완, 확정 등의 모든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전문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교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한 역할과 임무를 부여하고,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되, 실제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을 수시로 점검하는 책무성을 발휘하면서 교원이 운영 계획에 따라 전문적으로 수업 시간을 경영할 수 있도록 장학 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

학교 교육과정이 자율적이고 특색 있게 편성되려면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 교육과정 편성·운영 심의를 맡은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육과정 실천을 직접 담당하는 교과 협의회 및 학년 협의회가 상호 역할 분담을 적절하게 하면서 협력 체제가 구축되고 상호 교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 구성 및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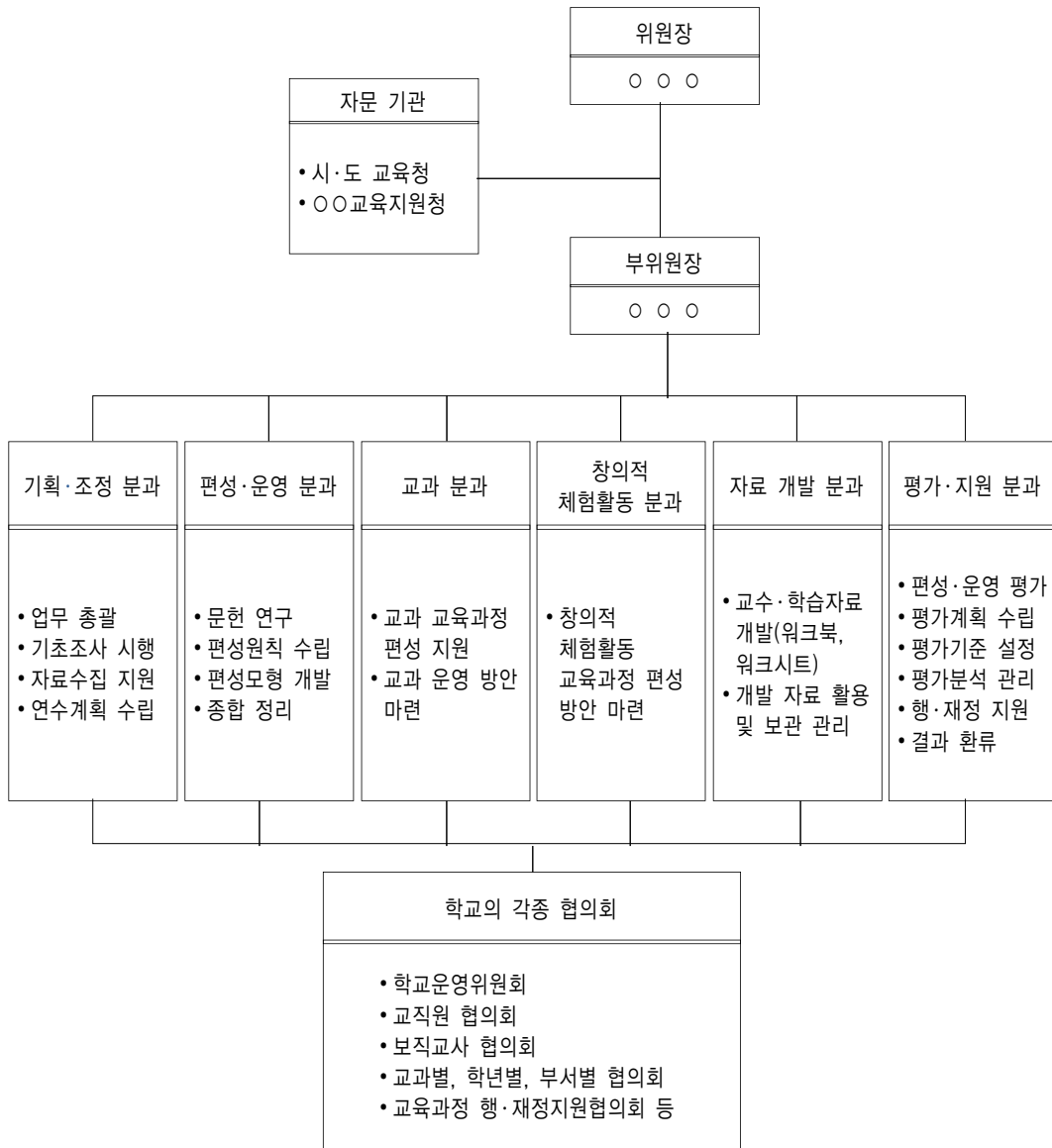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는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을 위한 조직으로서 학교 나름의 특색 있고 실천 가능한 교육 실천 방안을 모색하여 학교장이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자문 역할을 하는 조직이다.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는 교육과정의 합리적 편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교원, 교육과정(교과 교육) 전문가, 학부모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한 통합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의 경우, 특수교사가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에 참여할 것을 권장하며, 이를 통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하여 통합학급 교사와 특수학급 교사 간 체계적인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의 실정에 따라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도 있고, 교직원 회의, 동학년 회의, 교과 협의회 등 기존의 각종 학교 조직이나 협의회를 활용하여 민주적 절차와 과정에 따라 모든 교직원이 능동적·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합리적인 운영을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교원 양성 대학, 지역 유관 단체, 교육 전문 기관의 교수나 자문 위원과의 연계 추진도 필요하다. 여기서 학부모와 학생의 건의를 적극 수용하기 위한 의견 수렴 절차 마련 등 교육 수요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배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대규모 학교에서는 교원, 교육 전문가, 학부모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진·심의진을 구성하고 기능과 역할을 부여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소규모 학교에서는 지구별 교육과정 위원회 및 장학 위원회, 교과 연구회를 통하여 인근 학교와 공동으로 기구를 조직, 운영할 수도 있다.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는 학교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업무 중심, 교과 중심 등으로 하위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업무 중심의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는 기획·조정 분과, 편성·운영 분과, 교과 분과, 창의적 체험활동 분과, 자료 개발 분과, 평가·지원 분과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교과 중심의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는 편성·운영 분과, 교과별 분과, 통합교육 분과, 영재교육 분과, 기초학력 부진학생 분과, 창의적 체험활동 분과, 평가 분석 분과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를 조직하는 방식의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IV-2]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의 조직(예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일은 학교 교육의 본질적이고도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는 당해 학교장이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의사 결정을 하는 데 다음과 같은 자문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그림 IV-3]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의 역할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

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 배열은 반드시 학습의 순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역의 특수성, 계절 및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요구, 교사의 필요에 따라 각 교과목의 학년군별 목표 달성을 위한 지도 내용의 순서와 비중, 방법 등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교과 전문가로서 교사는 학교 특성과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맞게 지도 내용의 순서, 비중 등을 재구성하고, 교수학습 방법을 구안하여 맞춤형 수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과나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 배열은 학습의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예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학생이 성취하여야 할 교육 목표 및 성취기준에 따라 지도 내용의 순서, 비중 및 교수 학습 방법을 가장 효율적으로 재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예를 들어, 학년군 내에서 내용의 위계나 연계를 고려할 때 학습 시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교과서 또는 교과용지도서에 제시된 내용 순서와 지도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학습 시기를 조정하는 경우, 이를 반드시 교육과정 재구성임을 명시하여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조항에 위배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교과 내, 교과 간 유사 주제를 추출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통합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교육 활동

사. 학교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계획적으로 활용한다.

자. 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실질적 체험학습이 되도록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연계·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학교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교육 효과의 제고를 위하여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지역 사회의 다양한 시설을 활용하거나, 연계·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지역 사회의 유관 기관으로는 대학, 관공서, 사회복지 단체, 문화원, 지방 자치 단체, 박물관, 인근 학교, 지역 사회 학교, 기업체 등이 있다. 이들 기관들은 학교에서 제공할 수 없는 시설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지도하고 멘토가 될 수 있는 인적 자원도 갖추고 있다.

학교와 지역사회 유관 기관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학교는 학생의 필요와 요구, 특성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학교는 지역 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별로 활용 가능한 인사, 시설, 기관, 자료 등의 자원 실태를 파악하여 이와 연계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창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은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도자, 보조자 등의 인적 자원과 제반 시설, 설비, 자료 등의 물적 자원 및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율적 편성·운영

아. 학교는 학생의 요구, 학교의 실정 및 특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 활동, 시간 등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주체로서 학교의 자율성을 강조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도 창의적 체험활동의 시간 수 배정과 관련된 자율성이 언급되었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강화하고자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 활동, 시간 등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학교는 학년(군)별, 학기별로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과 활동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즉, 창의적 체험활동의 4개 하위 영역 모두를 매 학년 매 학기 반드시 편성·운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중 일부 영역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편성·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 및 활동들을 연계·통합하여 주제 중심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학생의 교육적 요구와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여 제시된 영역별 활동 이외의 다양한 활동을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시간 운영 또한 학교의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정일제, 격주제, 전일제, 집중제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즉,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지침을 개선하여 학생의 발달적 특성과 학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위 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편성·운영 자율권을 보다 확대하였다.

■ 방과후학교 혹은 방학 중 프로그램 개설과 운영

차.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학교에서는 방과 후 혹은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여 학생의 개성과 소질을 신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학교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학생의 소질 계발 기회로 삼으며, 학생의 기초 학습, 보충 학습, 심화 학습 등을 통한 수준별 보충 수업을 실현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의 학습 능력 신장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방과후학교 운영을 통해 소외 계층의 집중 지원과 학생 및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학교 내 교육 활동으로 흡수함으로써 사교육을 경감할 수 있다. 학교는 방과후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의 협조를 통해 방과 후 교육 활동을 활성화하고 학교 외부의 지도 교사를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카. 학교는 가정 및 지역과 연계하여 학생이 건전한 생활 태도와 행동 양식을 가지고 학습에 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가 학생 교육의 역할을 함께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이 건전한 생활 태도와 행동 양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학교·가정·지역의 연계 지도가 필요하다. 학교·가정·지역의 연계를 위해 먼저 교사와 학부모 간 신뢰 형성과 지역 사회 자원과 교육과정 연결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교사는 학부모들에게 교

육 방침을 설명하고 학부모의 요구를 적절히 수렴하면서 교사와 학부모 간 신뢰를 바탕으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 학교와 가정의 연계는 가정이 학교에 학생에 대한 정보, 학교 교육에 대한 의견 및 협력적 노력을 제공하고, 학교는 가정에 학생의 학교생활 및 학교 교육 프로그램 정보, 양질의 학부모 교육 등을 제공하는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활성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와 가정의 연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모 교육이 요청된다. 아동 및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과 부모의 역할, 아동 및 청소년의 문제 행동과 지도방법, 자녀와의 대화기법, 가정에서의 학습 환경 조성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학교의 적극적인 부모 교육 활동이 요청된다. 또한, 학교 교육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평가하는 과정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한편, 지역사회는 학교 교육을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으므로 학교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지역 사회의 인적 자원(각종 기관의 인력풀)과 시설(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체육관, 공연관 등), 교육 프로그램(지방자치단체 및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프로그램) 등을 검토하고, 이러한 자원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흥미와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흥미로운 교육 활동을 전개해 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수·학습 개선을 위한 교사 모임 및 연수, 연구 활동

타. 학교는 동학년 모임, 교과별 모임, 현장 연구, 자체 연수 등을 통해서 교사들의 교육 활동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학교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교육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효율적 교육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이해와 교과별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의 공유, 교육과정의 재구성, 교수·학습 자료의 공동 제작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동학년 협의회, 교과별 협의회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교수·학습과 평가에 대한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교사들의 활발한 연구와 연수가 이루어지도록 예산 등을 지원한다. 특히 초등교사의 경우 여러 교과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교과 및 영역별 능력 개발 요소를 파악하여 학교가 계획적으로 능력 개발 연수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는 방학 등의 휴업일 기간에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심층 연구하도록 하여 충실한 학기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자체 평가

파.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적절성과 효과성 등을 자체 평가하여 문제점과 개선점을 추출하고, 다음 학년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그 결과를 반영한다.

제7차 교육과정 이후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에 대한 자율적 편성·운영과 이에 따른 책무성 강화로 학교 교육과정의 계획,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가 강조되고 있다. 학교에서는 학교 교육과정을 국가 교육과정의 기준에 적합하게 편성하였는지, 지역과 학교의 특징, 학부모나 학생들의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타당성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하였는지, 그리고 이를 잘 운영하여 어느 정도의 교육적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매년 자체적으로 성과를 점검하고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평가결과를 이해 관계자에게 보고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학교에 따라서는 평가 참여자를 교사, 학부모, 학생 등으로 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평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평가결과는 다음 학년도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반영되어야 하며, 학교 교육과정의 적합성, 타당성,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평가 기준은 학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구안할 수 있을 것이나, 예시 자료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⁸⁾

〈표 IV-1〉 학교 교육과정 평가 준거 예시 자료

평가 영역	평가 요소	평가 지표
학교 교육과정 계획	계획 수립 과정	○ 전년도 학교 교육과정 계획·운영실태·성과를 충실하게 분석하였는가?
		○ 지역 사회·학교의 특성 및 학생·학부모·교사의 요구 사항을 충실하게 조사하고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는가?
		○ 학교 교육과정 계획 수립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 간의 공식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였는가?
		○ 교원·학생·학부모는 학교 교육과정 계획 수립 과정에 만족하는가?
	계획 내용	○ 국가 교육과정 기준 및 시·도 교육청의 편성·운영 지침을 학교 교육과정 계획에 반영하였는가?
		○ 학교의 교육 중점 및 중장기 발전 계획, 운영 지원 계획 등을 학교 교육과정 계획에 반영하였는가?
		○ 학교 특성과 학생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을 계획하였는가?
		○ 학생의 특성과 수준을 고려하여 영역별 평가 활동을 계획하였는가?
		○ 교원·학생·학부모는 학교 교육과정 계획 내용에 만족하는가?

8) 학교 교육과정 평가 준거는 ‘학교 교육과정 평가 도구의 타당화 및 평가 실행 체제 연구’(민용성 외, 2009)에서 제시한 내용을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추어 일부 변형한 것임.

평가 영역	평가 요소	평가 지표
학교 교육과정 운영	교과 교육	○ 교과 교육 계획과 실제의 교수·학습 및 평가는 일치하였는가?
		○ 학교 여건 및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교과별 교수·학습이 이루어졌는가?
		○ 교과별 역량, 목표, 내용에 일관성 있는 평가를 실시하였는가?
		○ 교원·학생·학부모는 교과 교육 활동 운영에 만족하는가?
	창의적 체험활동	○ 창의적 체험활동 계획과 실제 운영은 일치하였는가?
		○ 학교 여건 및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을 실시하였는가?
		○ 창의적 체험활동 목표 및 내용에 일관성 있는 평가를 실시하였는가?
		○ 교원·학생·학부모는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에 만족하는가?
	지원 체제	○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원 연수 및 장학을 실시하였는가?
		○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부모, 지역 인사 등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였는가?
		○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교육시설, 설비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였는가?
		○ 교원·학생·학부모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교의 지원 내용과 방식에 만족하는가?
학교 교육과정 성과	교육 성과	○ 학생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성취 기준에 도달하였는가?
		○ 학생은 긍정적인 학습태도를 형성하였는가?
		○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결과, 학생의 바람직한 인성 형성에 도움이 되었는가?
		○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에서 이루어진 교육계획별 교육성과에 만족하는가?
		○ 교원은 교육과정 운영 지원 체제와 각 교육계획에 따른 학교 변화에 만족하는가?
	교육 성과 활용	○ 학교·교원·학생은 교육과정 목표달성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였는가?
		○ 학교·교원은 평가결과 문제점 및 개선 사항, 교육과정 성과 등을 다음 학년도 교육과정 계획·운영에 활용하였는가?

2. 교수·학습

가. 학교는 교과목별 성취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고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1) 교과의 학습은 단편적 지식의 암기를 지양하고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의 심층적 이해에 중점을 둔다.
- 2) 각 교과의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 및 기능이 학생의 발달 단계에 따라 그 폭과 깊이를 심화할 수 있도록 수업을 체계적으로 설계한다.
- 3) 학생의 융합적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교과 내, 교과 간 내용 연계성을 고려하여 지도한다.
- 4) 실험, 관찰, 조사, 실측, 수집, 노작, 견학 등의 직접 체험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 5) 개별 학습 활동과 함께 소집단 공동 학습 활동을 통하여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협동학습 경험을 충분히 제공한다.

- 6) 학생이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토의·토론 학습을 활성화한다.
- 7) 학생에게 학습 내용을 실제적 맥락 속에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다.
- 8)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학습 과정과 학습 전략을 점검하고 개선하며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나. 학교는 효과적인 교수·학습 환경 설계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둔다.

- 1) 교사와 학생 간, 학생과 학생 간 상호 신뢰와 협력이 가능한 교수·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 2)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하고, 학교의 여건과 학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학습 집단을 구성하여 학생 맞춤형 수업을 하도록 한다.
- 3) 학교는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특별 보충 수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제반 운영 사항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 4) 각 교과와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 교실제 운영을 활성화한다.
- 5) 학교는 교과용 도서 이외에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개발한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 6) 실험 실습 및 실기 지도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 및 기계 기구,약품, 용구 사용의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성취기준에 따른 교수·학습의 중점

가. 학교는 교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고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성취기준은 교과와 지식과 기능 및 태도를 담고 있으며, 학습의 결과로 학생들이 할 수 있어야 할 것을 의미한다. 교사는 다음과 같은 교수·학습의 지침에 따라 학생들이 성취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교과 학습의 중점

- 1) 교과와 학습은 단편적 지식의 암기를 지양하고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의 심층적 이해에 중점을 둔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와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구조화함으로써 단편적인 지식 암기식 교과 학습에서 벗어나 교과 내용의 심층적인 이해와 탐구가 가능하도록 학습 경

험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수많은 단편적 지식들의 암기에 의존하는 학습은 과도한 학습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상황에서 배운 내용을 적용하거나 창의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교과 학습은 구체적인 학습 내용의 기저에 있는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핵심 개념이란 교과가 기반하는 학문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나 원리를 포함하는 교과의 근본적인 아이디어로서 교과의 세부적인 학습 내용들을 구조화하는 역할을 한다. 일반화된 지식이란 핵심 개념이라는 큰 범주 속에서 학습자들이 이해해야 하는 원리나 일반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일반화된 지식은 구체적인 사실적 지식들을 아우르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과 사실들에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적용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교과의 내용을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 중심으로 구조화한 것이 교수·학습 측면에서 함의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 그 자체를 전통적인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주입하거나 학생들로 하여금 이를 단순 암기하도록 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은 교수·학습 과정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을 제공하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이 개별 사실이나 정보를 습득할 때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에 기초하여 교과의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사고를 자극하고 탐구를 유도하는 심층 학습을 통해 전체적인 구조 내에서 학습한 내용들 간의 관계와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학습한 내용을 다른 맥락과 상황 속에 적용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학생의 발달 단계에 따른 체계적인 수업 설계

2) 각 교과의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 및 기능이 학생의 발달 단계에 따라 그 폭과 깊이를 심화할 수 있도록 수업을 체계적으로 설계한다.

각 교과의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기능은 학교급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학습 내용이지만 동일한 수준으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발달 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학생들은 대체로 연령에 따라 다른 발달적 특성과 인지 능력을 보인다. 교사는 학생들의 다양한 특성 및 학생들이 가진 오개념, 선경험, 선지식을 파악하고 이를 교육 내용과 관련지어 제시해야 한다. 동일한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 및 기능이라 할지라도 학년이 거듭될수록 그 내용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게 된다. 이렇게 축적되는 경험으로 학생은 교과 내 지식을 충분히 이해하고, 교과 역량을 갖출 수 있게 된다.

○ 융합적 사고 지도 방안

3) 학생의 융합적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교과 내, 교과 간 내용 연계성을 고려하여 지도한다.

다양한 지식을 연결시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융합적 사고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기르는 데 필수적이다. 교사는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에 기초하여 학생들이 개별 사실이나 정보를 습득할 때 교과와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단편적인 지식과 정보를 가르치는 것은 학생들에게 과도한 학습 부담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왜 그러한 지식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제공하지 못하는 피상적인 학습에 머무르게 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단편적인 지식과 정보를 피상적으로 학습하는 것은 학습한 내용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학습한 내용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고 통합적 사고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교과와 구조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세부 학습 내용들은 그러한 구조 속에서 서로 연결되고 관련지어져야 한다. 따라서 교사는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에 기초하여 공통성 혹은 관련성을 가지는 내용을 연결하여 교과 내 지식과 기능 간, 교과 내 영역 간, 교과 간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수·학습을 계획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학습한 내용들 간의 상호 관련성을 의미 있게 파악하게 되고, 다양한 영역을 넘나들면서 배운 내용을 서로 연결하여 창의적으로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될 것이다.

○ 체험 활동

4) 실험, 관찰, 조사, 실측, 수집, 조작, 견학 등의 직접 체험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학생이 자신의 선경험과 선개념을 바탕으로 지식을 스스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학습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 내용을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강의식 위주의 수업을 지양하고, 실제로 참여하고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교수·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실험, 관찰, 조사, 실측, 수집, 조작, 견학 등 학생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활동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 밖 현장체험학습은 교과 교육과정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을 권장한다. 현장체험학습 1일 수업시간은 학생들의 건강 및 학습효과 등을 고려하여 학교에서의 학년별 1일 수업시간(예, 6학년의 경우 6시간 정도) 범위 내에서 운영할 것을 권장한다.

◦ 협동학습 경험 제공

5) 개별 학습 활동과 함께 소집단 공동 학습 활동을 통하여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협동학습 경험을 충분히 제공한다.

학습자마다 선행 학습의 정도(출발점 행동)나 현재의 지식수준, 능력, 학습 선호도, 학습에 대한 동기 등이 서로 다르므로 학습자 개개인에 적절한 학습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러한 개별화된 학습은 학습자 특성에 맞는 학습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의 학습목표 달성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위해서 교사는 학습자의 준비 정도, 학습에 필요한 시간과 속도, 선호하는 학습 방법,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학습 방법과 전략을 구성해야 한다. 개별 학습 활동은 단순히 학습자가 혼자서 하는 학습의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에 초점이 있으며 활동 방식은 학습자 개인 활동 또는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능력을 바탕으로 한 소집단 활동 모두 가능하다.

협동학습은 소집단으로 구성된 학생들이 공동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함께 활동하며 학습 목표에 도달하는 학생 주도적인 교수·학습방법이다. 소집단 구성원 간 끊임없는 대화와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는 협력적인 문제 해결 과정 속에서 구성원들의 인지적 성장이 일어난다. 또한 학생들은 공동의 과제를 완성하기 위해 소집단 내 다른 구성원을 격려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되며, 구성원 각자가 맡은 역할의 수행과 구성원 간의 관계가 공동 과제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협동학습을 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학생의 인지적 영역의 발달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학생은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구성원의 역할에 따른 책임, 리더십, 의사소통능력, 갈등조정능력 등의 사회적 기능을 습득하게 된다.

◦ 학생의 능동적 수업 참여 및 토의·토론 학습 활성화

6) 학생이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토의·토론 학습을 활성화한다.

서로 다른 주장을 논증과 실증으로 정당화하는 토론 학습, 여러 사람이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며 결론을 내는 토의 학습은 모두 학생이 학습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이다. 학생은 토의·토론 학습 활동을 통해 교사 뿐 아니라 동료 학생들과 활발한 언어적·비언어적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을 형성하기도 하며 기존의 지식을 수정

하거나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학생들이 학교에서의 수업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토의·토론 학습을 강화하여야 한다.

◦ 학습 내용의 실제적 적용

7) 학생에게 학습 내용을 실제적 맥락 속에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다.

교사는 각 교과와 학습 내용을 가르칠 때 실생활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지식과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을 계획해야 한다.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통해 학생은 새로운 지식과 기능을 획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배운 내용을 적용하고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학습의 소재 또는 자료는 교과서에 머물지 말고 학생의 일상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사용하도록 노력한다.

교과의 핵심 개념 및 일반화된 지식은 단순 암기가 아닌 교과 고유의 사고 및 탐구 기능을 통해 심층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학습 내용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이루어질 때 학습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실제적 맥락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지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핵심 개념 및 일반화된 지식에 대한 학생들의 깊이 있는 이해가 교과 수준에서 머무르지 않고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 메타인지적 전략 및 자기주도적 학습

8)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학습 과정과 학습 전략을 점검하고 개선하며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학습은 학생 안에서 일어나며 개인이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여 의미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가르침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학생이 학습의 주체가 되어 자신의 학습을 주도해 갈 때 학습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일어난다.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학생은 기본적인 학습 방법을 알고 자신의 학습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학습을 주도하며 학습에 대한 즐거움을 느낀다.

교사는 교수·학습 활동 과정에서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먼저 학생의 선 경험과 선지식을 고려하여 수업을 설계해야 한다. 수업 과정에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언제 어떻게 학습 전략을 적용해야 하는지 시범을 보여주고 학생이 충분히 연습해 볼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교사는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학습 활동을 확인하고, 점검 및 평가하여 자신의 학습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 효과적인 교수·학습 환경 설계

○ 신뢰와 협력이 가능한 교수·학습 환경

나. 효과적인 교수·학습 환경 설계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둔다.

- 1) 교사와 학생 간, 학생과 학생 간 상호 신뢰와 협력이 가능한 교수·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교실은 모든 학습자와 교사가 상호 존중되는 안정적이며 공정한 공간이어야 한다. 또한 교실은 지속적인 성장과 발달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상호 협력하는 학습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교사는 학습자의 능력과 특성에 따른 다양한 학습 방법을 통해 모든 학생이 각 교과목별 학습 목표를 성취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그리고 계획적인 배려와 지도를 통해 학습 결손이 누적되거나 학습 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학생 맞춤형 수업

- 2)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하고, 학교의 여건과 학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학습 집단을 구성하여 학생 맞춤형 수업을 하도록 한다.

학생 맞춤형 수업은 학습자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되, 다른 학습자와의 협력과 소통을 강조하며 학습자 스스로 최대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수업 설계 방식이다. 학생의 능력과 적성, 흥미, 학습 유형에서의 학생들의 특성을 존중하고, 이를 수업에 반영하여 학생들이 각각 성공적인 학습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되, 유연한 집단 구성을 통한 협력 학습으로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교사는 학생의 준비도, 관심사 및 흥미, 학생이 선호하는 학습 방식, 진로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학습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은 요소에 반영하여 수업을 설계할 수 있다.

- ① 교육 내용: 교수·학습에 있어 ‘투입’에 해당하며, 학생들이 학습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학습해야 할 내용이다.
- ② 교육 방법: 학습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이자 교육 방법을 의미하며 학생들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학습 활동을 제시하여 선택하게 할 수 있다.

- ③ 교육 결과물: 학생이 자신이 이해한 것을 드러낼 때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평가나 과제가 될 수 있도록 교사의 의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맞춤형 수업에서는 융통성 있는 집단 구성을 통한 협동학습을 강조한다. 교사는 학습 주제나 수업 상황에 따라서 학생의 준비도, 관심, 학습 양식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다양한 학습 집단을 구성할 수 있다. 유연한 집단 편성은 학생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으며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집단 내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

◦ 특별 보충 수업

- 3) 학교는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특별 보충 수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제반 운영 사항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정규 교육과정에서 학업 성취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에게는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일과 전후에 별도의 시간을 활용하여 특별 보충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특별 보충 수업의 편성·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교실 수업에서 부족한 학습 내용을 재학습하는 과정으로 운영 시기와 대상 학생을 적절히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한 교과목의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학부모와의 협조를 통하여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 교과 교실제 운영

- 4) 각 교과목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 교실제 운영을 활성화한다.

각 교과목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 교실제를 활성화한다. 지식 암기가 아닌 학생 참여형 교수·학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과 교육 내용과 학습 활동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 시설 및 기자재를 구비한 특성화된 교실이 요구된다. 탐구형 수학학습, 과학 실험, 음악실 악기를 활용한 실용 교육 등 교과 학습의 효율성을 적극 증대하기 위하여 전용 교실의 운영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교육 시설 및 기자재 등의 교육 여건을 적절하게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장학 담당자는 각 교과 전용 교실에 대한 사용 및 관리 계획, 활용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의 활용

5) 학교는 교과용 도서 이외에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개발한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효과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과용 도서 이외에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개발한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을 지원하고 교과 학습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학습 자료, 속진 및 노력형 학습자를 위한 학습 자료, 통합 학급의 특수 아동을 위한 학습 자료,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위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 등의 공동 개발과 활용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별 장학 협의회, 교과 교육 연구회 등을 통한 지역의 자원 인사나 교원, 학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며, 학교에서 실천한 각종 교수·학습 자료, 우수 사례 또는 각종 교육 자료전이나 경진대회에 출품된 우수 교수·학습 자료를 공개하고 일반화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학교와 교사는 교육청 및 유관기관 등에서 제공한 장학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 실험 실습 및 실기 지도 과정의 안전사고 예방

6) 실험 실습 및 실기 지도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 및 기계 기구,약품, 용구 사용의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실험 실습이나 실기 지도에 있어서는 시설 및 기계 기구, 약품 사용의 안전에 유의하도록 한다. 과학 실험이나 실습을 주로 하는 교과와 실기 지도, 체육 및 예술 교과와 실기 지도에 있어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수 있으므로 학교 위기관리차원에서 실습 시설 및 기계 기구 사용 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실습 시설 및 기계 기구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학생들이 실습 전·중·후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더불어 실험·실습실에 필요한 안전 용구를 구비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며, 정기적인 점검과 함께 사용 방법 및 대피 요령 등에 대한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3. 평가

가. 평가는 학생의 교육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 1) 학교는 학생에게 평가 결과에 대한 적절한 정보 제공과 추수 지도를 통해 학생이 자신의 학습을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2) 학생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수업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나. 학교와 교사는 성취기준에 근거하여 학교에서 중요하게 지도한 내용과 기능을 평가하며 교수·학습과 평가 활동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1) 학생에게 배울 기회를 주지 않은 내용과 기능은 평가하지 않도록 한다.
- 2) 학습의 결과뿐만 아니라 학습의 과정을 평가하여 모든 학생이 교육 목표에 성공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
- 3) 학교는 학생의 인지적 능력과 정의적 능력에 대한 평가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다. 학교는 교과와 성격과 특성에 적합한 평가 방법을 활용한다.

- 1) 서술형과 논술형 평가 및 수행평가의 비중을 확대한다.
- 2) 정의적, 기능적, 창의적인 면이 특히 중시되는 교과는 타당한 평정 기준과 척도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 3) 실험·실습의 평가는 교과목의 성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한다.
- 4) 창의적 체험활동은 내용과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의 주안점을 학교에서 결정하여 평가한다.
- 5) 전문 교과Ⅱ의 실무 과목은 성취 평가제와 연계하여 내용 요소를 구성하는 ‘능력 단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평가의 목적

가. 평가는 학생의 교육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 1) 학교는 학생에게 평가 결과에 대한 적절한 정보 제공과 추수 지도를 통해 학생이 자신의 학습을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2) 학생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수업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의 교육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평가 결과를 교육적 의사결정의 자료로 활용하여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하는 데 있다. 교사는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자신의 학습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공식적·비공식적 피드백을 제공해야 하며 적합한 추수 지도를 통해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해야 한다. 평가 결과를 바탕

으로 한 학습의 방향과 방법에 대한 적절한 정보 제공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학습 과정에 대하여 스스로 생각하고 잘못된 점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교사는 시기와 상황에 적합하게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합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수업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 성취기준에 근거한 평가

나. 학교와 교사는 성취기준에 근거하여 학교에서 중요하게 지도한 내용과 기능을 평가하며 교수·학습과 평가 활동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1) 학생에게 배울 기회를 주지 않은 내용과 기능은 평가하지 않도록 한다.
- 2) 학습의 결과뿐만 아니라 학습의 과정을 평가하여 모든 학생이 교육 목표에 성공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
- 3) 학교는 학생의 인지적 능력과 정의적 능력에 대한 평가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성취기준은 각 교과에서 학생이 학습을 통해 얻어야 할 지식이나 기능 혹은 태도를 담고 있으며, 학습의 결과로 학생들이 할 수 있어야 할 것을 진술한 것이다. 따라서 평가는 성취기준에 근거하여 계획, 실행되어야 하며, 이는 교수·학습과 평가 활동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평가는 교과별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근거하여 학교에서 학생이 배운 것에 대한 교육 목표 도달을 확인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성취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평가하는 것은 학생에게 학습 부담을 야기하고 학업에 대한 자신감을 떨어뜨리게 된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넘어서는 평가는 학교 교육에 대한 불신을 가져와 결과적으로 사교육을 조장하게 된다. 따라서 학교와 교사는 학생에게 배울 기회를 주지 않은 내용과 기능을 평가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는 학습 후 학생의 지식 습득 정도나 수행을 측정하기 위한 일회성의 평가에서 벗어나 교수·학습과 통합적으로 연계되어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는 것을 강조한다. 평가 방법의 경우, 가르친 내용 및 사용한 교수·학습법과 연관되면서 그 특성을 드러내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을 평가의 과정에 포함시키고 자기 평가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수행의 과정과 결과물을 평가하는 준거를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들어 자기 평가하도록 한다. 다양한 수행 지표에 대해서 교사와 이야기하고 스스로 평가하도록 하는 형태의 자기 평가는 학생들이 자신을 인식하는 능력을 향상시켜주고 학습과 수행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인다.

학생 평가는 인지적 영역의 평가 뿐 아니라 정의적 영역에 대한 평가와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들의 자아개념, 가치관, 흥미, 책임, 협력 등 일반적인 정의적 요소에 대한 평가는 학생의 학교 학습을 향상시키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교과와 관련된 가치, 태도, 흥미, 관심 등 교과별 정의적 능력은 인지적 능력과 별도로 확인한다. 학생들의 영역별 흥미와 관심도를 파악하여 교수·학습에 반영하여 수업을 계획할 수 있으며 학생에 대한 이해와 상담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정의적 능력에 대한 평가는 수행평가, 관찰법, 자기평가를 통한 설문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교과의 성격과 특성에 적합한 평가 방법 활용

다. 학교는 교과의 성격과 특성에 적합한 평가 방법을 활용한다.

- 1) 서술형과 논술형 평가 및 수행평가의 비중을 확대한다.
- 2) 정의적, 기능적, 창의적인 면이 특히 중시되는 교과는 타당한 평정 기준과 척도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 3) 실험·실습의 평가는 교과목의 성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한다.
- 4) 창의적 체험활동은 내용과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의 주안점을 학교에서 결정하여 평가한다.
- 5) 전문 교과Ⅱ의 실무 과목은 성취 평가제와 연계하여 내용 요소를 구성하는 '능력단위'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서술형 평가는 내용을 요약하거나 개념을 설명하거나 풀이과정을 제시하는 등 학습한 내용을 기술하는 형식이라고 볼 수 있다. 서술형은 주로 사실의 나열, 요약, 설명 등으로 답안을 작성하게 되며 어느 정도 객관적인 정답(모범답안)이 존재한다. 논술형은 생각과 주장을 창의적·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조직하여 작성하는 형태이다. 논술형 평가 채점 시 교사(채점자)는 주관적 판단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평가 요소와 채점기준을 명확히 하고,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행평가는 학생들이 구체적 상황이나 맥락 속에서 지식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선택형 검사에서는 문제가 탈맥락적으로 제시되지만, 수행평가 과제에서는 학습자들에게 의미 있고, 도전적이며,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실생활 맥락성, 간학문성, 다차원적 측면들을 강조한다. 수행평가 과제는 교육과정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하며, 실제 계에 가깝고 교과 통합적이며, 여러 차원의 지식과 인지적 기능을 측정할 수 있는 과제의 형태로 만들어진다. 즉, 실제 생활과 유사한 맥락에서의 수행 능력을 평가하여 암기 위주의 학습보다는 과제 수행과 관련된 고등 사고기능이나 협력적 문제 해결력의 학습을 중요하게 다루게 된다. 또

한 수행평가는 학습의 결과 뿐 아니라 그러한 결과에 도달하게 된 과정을 평가함으로써 학생들이 스스로의 변화와 성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평가 방법은 교과와 특성과 교육 목표에 따라 달라지며, 교과 교육 활동에서 사용한 다양한 교수·학습법과 일관되면서 그 특성을 드러내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다양한 교과 평가에 있어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평가 기준 마련이 중요하다. 자아개념, 가치관, 흥미, 태도, 책임, 협력, 동기 등의 정의적 측면이나 다양한 교과 관련 기능적 측면, 또는 확산적 사고를 포함한 창의적 측면이 증시되는 교과는 평가 계획 수립에 있어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공감 가능하며 전문적인 평정 기준과 척도를 마련하여 평가를 해야 한다.

실험·실습의 평가는 교과목의 성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해야 한다. 개인과 집단에 대한 실험·실습 과정의 직접 관찰, 결과 보고서 등 계획된 모든 평가 방법에 대한 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단편적 기능뿐 아니라 적용 능력 및 문제 해결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요구된다. 또한, 실험·실습의 평가 시행에 있어 세부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학생에게 공개한 후 실시해야 한다. 수행 기준과 평가 기준이 명백하게 마련되어 충분히 논의된 후 학생이 학습 활동과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학습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고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의미 있는 체험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생활을 통해 나눔과 배려 등의 인성을 함양하며, 자발적인 사고와 활동을 통해 창의력을 키우는 것을 기저로 하고 있다. 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과 특성, 지역사회의 여건과 학교의 실태, 학습자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창의적 체험활동 평가의 주안점을 작성·활용해야 한다.

4.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기회의 제공

- 가. 교육 활동 전반을 통하여 남녀의 역할, 학력과 직업, 종교, 이진 거주지, 인종, 민족에 관한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지도한다.
- 나. 학습 부진 학생, 장애를 가진 학생,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 귀국 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 등이 학교에서 충실한 학습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한다.
- 다. 특수 교육 대상 학생을 위해 특수 학급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학생의 장애 특성 및 정도를 고려하여 이 교육과정을 조정하여 운영하거나 특수 교육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 라.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특별 학급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한국어 능력을 고려하여 이 교육과정을 조정하여 운영하거나,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한국어 교육과정은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주당 10시간 내외에서 운영할 수 있다.

마. 학교가 종교 과목을 개설할 때에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허용되는 종립학교의 경우 학생·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단수로 개설할 수 있다.

교육적 편견 극복

가. 교육 활동 전반을 통하여 남녀의 역할, 학력과 직업, 종교, 이전 거주지, 인종, 민족에 관한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지도한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점차 다원화되고 복잡한 양상을 띤다. 특히 인종, 민족, 태어난 곳 등이 다른 이주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남녀의 역할에 대한 편견 없는 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이 각자 타고난 소질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며, 학력을 중시해 온 한국 사회의 풍조를 극복하기 위해 학생들이 학력과 직업 등에 관한 편견이 없는 개방적 관점과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적 지원

나. 학습 부진 학생, 장애를 가진 학생,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 귀국 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 등이 학교에서 충실한 학습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한다.

학교는 학습 부진 학생, 장애를 가진 학생,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 귀국 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 등이 충실한 학습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충분한 배려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단위 학교에서는 학습 부진 학생,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 다문화 가정의 학생 교육을 위한 특수한 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별도로 과정을 설치·운영하기가 어려울 때에는 이를 지구 단위에서 공동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는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해 특수 학급을 설치·운영하고, 교육과정의 조정, 보조 인력의 지원, 학습 보조기기의 지원, 교원 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는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학교 및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하여 노력하며, 학생들이 다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귀국 학생 교육은 장기간의 해외 체류로 인하여 국어 능력이 부족하거나 국내 학교 교육에의 적응이 곤란한 귀

국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일정 기간 집중적인 한국어 지도와 학습 결손 또는 부진 교과와 보충 지도 및 생활 지도를 실시하여 귀국 후 나타날 수 있는 학습 장애와 심리적 갈등 요인을 해소하고, 국내 생활 및 학습 적응을 용이하게 해주어 국내 학교로 순조롭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와 함께 귀국 학생들이 해외에서 터득한 언어적·문화적 특성을 신장시키며, 경험을 통해 습득한 국제적인 감각을 유지하고 신장시키도록 도와야 한다.

❶ 특수 학급 설치·운영

다. 특수 교육 대상 학생을 위해 특수 학급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학생의 장애 특성 및 정도를 고려하여 이 교육과정을 조정하여 운영하거나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특수 교육 대상 학생을 위해 특수 학급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학생의 장애 정도와 능력 및 교육적 요구를 고려하여 적합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과정의 내용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정신 지체, 지체 부자유, 학습 지체 및 발달 지체 등 특수 교육 대상 학생들은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해당 학년(군)의 교육과정을 따르되 장애 유형에 따라 혹은 장애 정도가 심하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조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시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총론 및 교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운영할 수 있다.

특수 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은 개별화되어야 하며,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 및 장애 특성에 적합한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육 방법 등 개인에게 알맞은 학습 자료를 사용하여 실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매 학기마다 학생에 대한 개별화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참고).

❷ 다문화 가정 학생 지원

라.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특별 학급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한국어 능력을 고려하여 이 교육과정을 조정하여 운영하거나,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한국어 교육 과정은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주당 10시간 내외에서 운영할 수 있다.

다문화 학생이 일정 수준의 한국어로 학습하는 것이 가능해질 때까지 특별 학급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원칙적으로 일반 학급에 배치한다. 그리고 기초적인 한국어 능력 및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해 일반 학급에서 수업하기 어려운 시간에 한정하여 특별 학급 프로그램에 참

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다문화 학생이 기초적인 한국어 능력 및 한국 문화 소양을 갖추어 나가면서 동시에 많은 교우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 학생을 위해 교육과정을 조정·운영하는 경우에는 일반 학생들이 타문화를 이해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초·중등학교에 다문화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비율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크므로 교육청에서는 다문화 학생의 한국어 능력 향상 및 이를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종교 과목 개설 시 고려사항

마. 학교가 종교 과목을 개설할 때에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허용되는 종립 학교의 경우 학생·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단수로 개설할 수 있다.

학교가 종교과목을 개설할 때에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도록 한다. 특히, 건학 이념 또는 설립 취지가 분명한 종교계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특정 종교 교육이 전교생에게 일률적으로 실시되지 않도록 한다. 따라서 학생 개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종교 이외의 과목을 복수로 제시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허용되는 종립학교에서는 종교 과목을 단수 개설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학생을 모집하는 단계에서부터 종교 과목 개설과 관련한 학교의 방침을 충분히 알리고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다.

◇ 교육기본법 제6조

- ②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 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V. 학교 교육과정 지원

V. 학교 교육과정 지원

1. 국가 수준의 지원

이 교육과정의 원활한 편성·운영을 위하여 국가 수준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가.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지원 활동과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활동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나. 이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학업 성취도 평가, 학교와 교육 기관 평가,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활용한다.

1) 교과별, 학년(군)별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학력의 질 관리와 교육과정의 적절성 확보 및 개선에 활용한다.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초 학력과 평생 학습 역량의 강화를 위한 학업 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는 기초 학력과 직업 기초 능력의 향상, 취업 역량 강화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2)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교육청의 교육과정 지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학교와 교육청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3)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지원 체제의 적절성 및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다. 학교에서 평가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개발하여 학교에 제공한다.

1) 교과별로 성취 기준에 따른 평가 기준을 개발·보급하여 학교가 교과 교육과정의 목표에 부합되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2) 교과별 평가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 방법, 절차, 도구 등을 개발하여 학교에 제공한다.

라.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가 기준 학과별 국가직무능력표준이나 직무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해 관련 교과용 도서와 교수·학습 자료 개발, 평가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

바. 이 교육과정이 교육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청 수준의 교원 연수와 전국 단위의 교과 연구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사. 학교 교육과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 시설 및 교원 수급 계획을 마련하여 제시한다.

■ 시·도 교육청과 단위 학교의 유기적 협력 지원

가.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지원 활동과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활동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국가는 시·도 교육청이 단위 학교 교육과정의 효율적 편성·운영을 위해 유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시·도 교육청의 단위 학교에 대한 2015 개정 교육과정 연수 지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컨설팅지원단 운영,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분석·환류 등의 지원 활동을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해야 한다. 국가는 시·도 교육청에 대한 상시 평가 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지원함으로써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시·도 교육청과 단위 학교 간의 유기적인 지원 체계가 원활하게 되도록 해야 한다.

■ 교육과정 질 관리

나. 이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학업 성취도 평가, 학교와 교육 기관 평가,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활용한다.

- 1) 교과별, 학년(군)별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학력의 질 관리와 교육과정의 적절성 확보 및 개선에 활용한다.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초 학력과 평생 학습 역량의 강화를 위한 학업 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는 기초 학력과 직업 기초 능력의 향상, 취업 역량 강화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 2)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교육청의 교육과정 지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학교와 교육청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 3)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지원 체계의 적절성 및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이 지침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해 국가에서 시행해야 하는 평가의 종류와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제시한 것이다. 국가 교육과정의 본래 취지가 학교 현장에서 충분히 구현되고 있는지, 당초 의도했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고 개선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교육과정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가 수준에서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의 기초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질 관리를 위해 국가 수준에서 수행해야 하는 평가로 학업 성취도 평가와 학교 및 교육청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하여,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평가를 하는 것은 국가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학업 성취 정도를 절대 기준에 의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는 매년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여 학습 부진 학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교육복지 기반을 확충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이러한 국가 수준의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는 학생 개인의 학력을 학부모에게 알려 주는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도록 한다.

또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태와 교육청에서 교육과정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국가 수준에서 주기적으로 학교와 교육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이처럼 교육과정 평가를 통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실태를 파악하여 개선점을 강구하도록 한다. 더불어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교육청의 지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교육청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학교 지원을 촉진한다. 학교 평가는 단위 학교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서 일정한 주기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평가를 한다.

국가에서는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지원 체계의 적절성 및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활용함으로써 학교의 원활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지원해야 한다. 따라서 이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시점부터 다양한 절차를 거쳐 해당 학교, 학년, 학생에게 교육과정이 적절한지를 조사하여 평가하되, 교육과정 평가 연구는 교육과정의 편제, 단위 배당, 편성·운영 지침의 적절성과 그 적용 효과에 중점을 둔다.

학교의 평가 활동 지원

다. 학교에서 평가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개발하여 학교에 제공한다.

- 1) 교과별로 성취 기준에 따른 평가 기준을 개발·보급하여 학교가 교과 교육과정의 목표에 부합되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 2) 교과별 평가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 방법, 절차, 도구 등을 개발하여 학교에 제공한다.

국가는 단위 학교 수준에서 국가 교육과정이 밀도 있게 실행되도록 그 질을 관리하기 위한 여러 종류의 평가 활동을 시행한다. 그 뿐만 아니라 단위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정신을 구현한 평가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제공해 주어야 한다. 또한 국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국가 수준에서 교과별로 다양한 종류의 평가 방법, 절차, 도구 등을 개발하여 학교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성취기준에 따른 평가 기준과 다양한 평가 방법, 절차, 도구 등을 개발·보급하여 단위 학교의 현장성에 적합한 평가 활동을 지원한다.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평가 활동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평가 도구의 개발·보급이 필수적이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또는 직무 분석에 기초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라.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가 기준 학과별 국가직무능력표준이나 직무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가 수준의 행·재정적 지원 업무는 특성화 고등학교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육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산업 현장과 교육과정 및 자격의 기준 불일치, 학교 교육을 통해 만들어지는 인력과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상과의 차이 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이다. 국가 직무능력표준(NCS)은 산업 현장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핵심 능력을 산업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으로 국가가 인증·고시한 것이며, 이를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교과를 학습하게 한다면 학생들의 현장 적합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산업계가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를 표준화된 절차, 방법, 양식에 준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개발하였기에 산업계의 요구에도 부합할 수 있다.

산업 및 직업 세계를 고려한 기준학과 제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및 직무분석 결과에 기초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하고 현장성을 강화하는 교육과정에 있어 필수적이며, 국가가 이를 지원하는 것이 교육과정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마.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해 관련 교과용 도서와 교수·학습 자료 개발, 평가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수·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 자료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및 교수·학습 자료,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및 교수·학습 자료 등이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초·중등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 유형과 특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평가에 참여하기 어려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해 평가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유지하면서 참여 가능한 평가 방법과 절차, 도구 등의 개발이 필요하다.

교육청 수준의 교원 연수와 전국 단위의 교과 연구회 활동 지원

바. 이 교육과정이 교육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청 수준의 교원 연수와 전국 단위의 교과 연구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교육 현장에 정착하는 데에는 개정 교육과정의 지향점과 교과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교원 연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교원 연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교과 연구회 지원은 교원들의 자발적인 연구 모임을 통해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현장에 원활하게 정착하도록 하며, 지속적으로 교육과정 인력풀이 유지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과 연구회는 구체적인 교과 교육을 연구하는 연구회뿐 아니라,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해 연구하는 총론 차원의 연구회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연구회를 포함한다.

학교 시설 및 교원 수급 지원

사. 학교 교육과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 시설 및 교원 수급 계획을 마련하여 제시한다.

학교 교육과정이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 의도하는 대로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교 시설이 뒷받침 되어야 하고, 다양한 학생 활동 강화 및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교원 수급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학생 참여 중심의 교수·학습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학교가 행복한 학습 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교과교실을 비롯한 다양한 학교 시설이 필요하다.

2. 교육청 수준의 지원

이 교육과정의 원활한 편성·운영을 위하여 교육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원한다.

가. 시·도의 특성과 교육적 요구를 구현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 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한다.

- 1) 이 위원회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와 자문 기능을 담당한다.
- 2) 이 위원회에는 교원, 교육 행정가, 교육학 전문가, 교과 교육 전문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산업체 인사 등이 참여할 수 있다.

나. 지역의 특수성, 교육의 실태, 학생·교원·주민의 요구와 필요 등을 반영하여 교육청 단위의 교육 중점을 설정하고, 학교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시·도 교육청 수준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안내한다.

다. 학교가 새 학년도 시작에 앞서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교원의 전보를 적기에 시행한다.

라.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의 인정, 개발, 보급을 위해 노력한다.

마. 중학교 자유학기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자료의 개발·보급, 교원의 연수,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포함된 자유학기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바. 학교가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교과목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학교에 제공하고 학교로 하여금 필요한 사전 절차를 밟도록 지원한다.

사. 학교가 지역사회의 유관 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협력해서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관내 학교가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자원 목록’을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아. 학교 교육과정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학생의 배정, 교원의 수급 및 순회, 학교 간 시설과 설비의 공동 활용, 자료의 공동 개발과 활용에 관하여 학교 간 및 교육지원청 간의 협조 체제를 구축한다.

자. 전·입학, 귀국 등에 따라 공통 교육과정의 교과와 고등학교 공통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이 해당 교과를 이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주고,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공공성 있는 사회 교육 시설을 통해 이수한 과정을 인정해 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차. 귀국자 및 다문화 가정 학생의 교육 경험의 특성과 배경을 고려하여 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

카.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 학습 부진 학생,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교육 기회를 마련하고 지원한다.

타.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원 연수, 교육과정 컨설팅, 연구학교 운영 및 연구회 활동 지원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1) 교원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능력과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지도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원에 대한 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2) 학교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편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과정 컨설팅 지원단 등 지원 기구를 운영하며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각종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한다.
 - 3)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개선과 수업 개선을 위해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연구 교사제 및 교과별 연구회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파. 학교가 이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지원한다.
- 1)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해서 교육 시설, 설비, 자료 등을 정비하고 확충하는 데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 2)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원 수급, 시설 확보, 프로그램 개발 등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 3) 복식 학급 운영 등 소규모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원의 배치, 학생의 교육받을 기회 확충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 4) 수준별 수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하며, 기초학력 향상과 학습 결손 보충이 가능하도록 ‘특별 보충 수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 5) 지역사회와 학교의 여건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학교에서 돌볼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고, 이에 대해 충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 위원회 조직 및 운영

가. 시·도의 특성과 교육적 요구를 구현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 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한다.

시·도 교육청은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관련하여 업무를 담당할 교육과정 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해야 한다. 위원회의 명칭, 구성, 임기, 방법 등 위원회에 관한 세부 내용은 시·도 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적절히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 위원회 기능

- 1) 이 위원회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와 자문 기능을 담당한다.

이 위원회는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마련을 위한 조사 연구, 지침 심의, 교육과정 자문 역할 등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하위 분과로 교과별, 학년별 및 학교 급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실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하위 분과에서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태를 분석하거나, 시(도)교육청 교육 중점 사항 설정 및 자문 등의 적절한 지원과 관리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더불어 ‘교육과정 지원 장학 협의단’이나 ‘교육과정 컨설팅 지원단’ 등을 활용하여 지침(안)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다.

○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 위원회 구성

2) 이 위원회에는 교원, 교육 행정가, 교육학 전문가, 교과 교육 전문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산업체 인사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 위원회의 조직은 시·도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특색 있게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 운영 관련 조직인 교육과정 컨설팅 지원단 또는 별도로 구성되는 연구팀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교육과정 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교육 행정가, 교육학 전문가, 교과 교육 전문가, 학부모, 지역 사회 인사, 산업체 인사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균형 있는 연구 및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한다. 특히 학교 급별(유·초·중·고·특수학교) 특수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개발

나. 지역의 특수성, 교육의 실태, 학생·교원·주민의 요구와 필요 등을 반영하여 교육청 단위의 교육 중점을 설정하고, 학교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시·도 교육청 수준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안내한다.

시·도 교육청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하기 위한 관련 기구가 구성되면, 먼저 국가 수준 교육과정 기준에 대한 세밀한 분석·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시·도 교육청별로 지역의 특수성에 대한 다각적인 조사·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자연·산업·역사·문화·의식 등은 물론 학부모의 요구, 지역 사회의 필요와 단위 학교별 학생의 학력 실태, 교원의 지도 실태, 시설·환경 및 재정 등에 대한 기초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하여 교육에 반영해야 할 시사점을 추출한다. 이러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분석 결과와 기초 조사를 통해 나타난 해당 지역의 교육 현황을 파악하여 지역의 교육 중점 사항을 설정한다. 이때, 기초 조사·연구 활동은 시·도

교육청뿐만 아니라 교육 연구 기관, 연수 기관, 각종 학회와 교원 양성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받아 실시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하고 다각적인 관점에서의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기초 실태 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항목의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지역의 교육 현황 조사

- 학교 현황(지역별 학교 분포, 학교 수, 학교 규모, 학급 규모 등)
- 교원 현황(교원 수, 전담 교사, 연령별, 자격별 등)
- 학생 현황(남녀 학생 수, 지역별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등)

② 지역의 특수성 조사

- 자연환경(위치, 지형, 기후, 면적, 개발 계획 등)
- 인문환경(교통, 통신, 문화, 보건, 생활 모습, 지역별 전통문화 등)
- 사회환경(인구, 취락, 인구 이동, 행정, 재정, 산업 등)

③ 지역별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 조사

- 학생, 교원, 학부모의 요구
- 지역 사회의 요구 및 필요
- 학부모의 교육관 및 기대 수준

④ 시·도 교육청의 강조 사항

- 교육 중점 과제의 선정·운영 실태
- 시·도의 실정에 맞는 교육 방향 설정
- 시·도별 단기·중기·장기 계획 등

⑤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실태

- 학교의 교육 비전, 교육 철학, 교육 목표 등
- 교육 중점 실태
-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실태
- 편제와 시간 배당 실태
- 교과 교육과정 운영 실태
-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실태
- 교육과정 재구성 실태

- 자유학기 활동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태(중학교 해당)

⑥ 교육 시설·설비 및 자료 활용 현황

- 교과서 이외의 학습 자료 활용 현황
- 실험·실습 시설 및 설비 현황
- 교육 기자재 보유 및 활용 현황

⑦ 교원 연수 및 연구 활동

- 교원 연구 모임 현황(종류, 활동 실태 등)
- 교원 연수 현황(학습공동체별, 교과별, 학교별, 지역별 연수 등)

⑧ 지역 사회의 시설·환경

- 지역 사회의 시설 및 활용 현황
- 지역 사회의 교육 환경 현황
- 지역 사회의 교육 지원 현황
- 각종 체험활동 지원 체제(진로 체험, 자유학기 체험 등)

⑨ 교육과정 평가

- 학생의 학업 성취 정도
- 학교 교육과정 운영 평가 결과
- 학교와 교육 기관과의 협조 체제 현황

이상과 같은 각종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할 시사점을 추출하고, 교육청의 교육 중점이나 강조점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교육에 관한 단기·중기·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지침에 반영되도록 한다.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료 개발·보급

다. 학교가 새 학년도 시작에 앞서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교원의 전보를 적기에 시행한다.

시·도 교육청은 단위 학교가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기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시·도 교육청 장학 자료를 개발·보급하여 단위 학교에서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지원해야 하며 각종 교수·학습 자료, 자유학기 활동 자료 등을 조기에 개발·보급해야 한다. 또한 단위 학교가 학년도 개시 이전에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새 학년도의 시작과 동시에 교육과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편성·운영 자료의 개발 보급과 교원 전보의 시기를 적절하게 조정해야 한다.

교과용 도서 인정·개발·보급

라.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의 인정, 개발, 보급을 위해 노력한다.

시·도교육청에서는 교과용 도서의 인정, 개발, 보급에 대한 사항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기타 활동을 통해 지원한다.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교과서나 지도서 같은 도서 외에 교육 방송, 시청각 기자재, 각종 학습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교과서 중심의 수업을 벗어나 교육 정보망, 멀티미디어 등 컴퓨터를 활용한 학습 매체의 개발·보급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자유학기 지원계획 수립·추진

마. 중학교 자유학기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자료의 개발·보급, 교원의 연수,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포함된 자유학기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과정에 자유학기를 새롭게 도입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진로 탐색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자유학기는 개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방식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자유학기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록 지원함으로써 자유학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먼저 자유학기 운영 체제 및 방안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지역별·학교 규모별 운영 모델을 제시하고, 자유학기 취지에 맞는 학생 참여형 수업 운영 방안, 자유학기 중 운영되는 4개 영역별 다양한 체험활동 지침 등을 마련하여 제공하는 한편, 이를 위한 교수·학습 자료도 개발·보급할 수 있다. 또한 교사가 자유학기 활동과 교과 수업 및 평가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재구성,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에 대한 전문성 신장의 기회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수업과 평가에 관한 실무 중심의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수업 나눔과 성찰, 수업 전문성 신장을 할 수 있는 교과 연구회 등의 활동을 다양하게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도 교육청은 지역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학교와 연계하는 등 자유학기 체험 자원 확충과 내실화를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도 교육청별, 교육지원청별 ‘자유학기 지원체제(단)’를 구성하여, 협동학습, 토의·토론 학습, 프로젝트 학습 등 학생 참여형 수업을 위한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교사 연수 및 컨설팅을 강화하는 한편, 교사 연수회를 지원하고 자유학기 활동이 학생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단위 학교 교과목 개설 지원

바. 학교가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교과목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학교에 제공하고 학교로 하여금 필요한 사전 절차를 밟도록 지원한다.

시·도 교육청에서는 학교가 필요에 의해서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과목을 신설하고자 할 때의 승인과 신청 절차를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등에 제시해 주어야 한다. 여기에는 신청 시기, 신청 양식, 심사 요령, 결과 통보 시기 등을 안내해야 하며, 특히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융통성 부여를 위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제시해야 한다.

지역자원 목록 작성 및 제공

사. 학교가 지역사회의 유관 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협력해서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관내 학교가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자원 목록’을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시·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교육의 다양성과 내실화를 유도하기 위해 단위 학교의 교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교육청은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에 연

계할 수 있는 유관 기관과의 협약 체결 등을 통해 ‘지역 자원 목록’을 단위 학교에 제공한다. 또한 교육지원청, 학교와 함께 우수 사례 발굴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지역 자원 목록’의 지속적인 확충, 활용 방법의 구체화, 질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학교 및 인접 교육지원청 간의 협조체제 구축

아. 학교 교육과정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학생의 배정, 교원의 수급 및 순회, 학교 간 시설과 설비의 공동 활용, 자료의 공동 개발과 활용에 관하여 학교 간 및 교육지원청 간의 협조 체제를 구축한다.

시·도 교육청에서는 학교 교육과정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학생의 배정, 교원의 수급 및 순회교사 운영 등의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운영해야 한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운영되는 중학교의 자유학기제와 고등학교의 진로 선택 과목 등의 체제 변화에 따른 교원 수급 변화를 예측하여 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근 학교 겸임(순회) 교사 발령은 물론, 교원 양성, 부전공 연수 등의 장기적인 교원 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함으로써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 간 및 인접 교육지원청 간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단위 학교에서 해결할 수 없는 학생 배정의 문제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고, 개별 학교에서 갖추기 어려운 시설과 설비를 관내 학교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자료의 공동 개발 및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미이수 과목 이수 기회 제공 및 인정

자. 전·입학, 귀국 등에 따라 공통 교육과정의 교과와 고등학교 공통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이 해당 교과를 이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주고, 학생들이 지역사회와 공공성 있는 사회 교육 시설을 통해 이수한 과정을 인정해 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전·입학, 편입학, 복학 또는 귀국 학생 등의 경우 각 학교 간 및 입학년도 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차이로 인하여 공통 교육과정의 교과 또는 고등학교 공통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이 발생할 수 있다. 시·도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단위 학교 내에서 학기 중 또는 별도의 시기를 정하여 해당 교과를 이수할 기회를 제공하거나, 일정 지역의 학교들을 연합하여 미이수 교과목을 개설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이때 미이수 과목 중 개설이 어려운 교과목의 경우에는 온라인 수업 활용, 겸임 교사 활용, 강사 채용 등을 통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기회 제공

- 차. 귀국자 및 다문화 가정 학생의 교육 경험의 특성과 배경을 고려하여 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
- 카.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 학습 부진 학생,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교육 기회를 마련하고 지원한다.

귀국 학생 교육은 장기간의 해외 체류로 인하여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거나 국내 학교 교육에 적응이 어려운 귀국 자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일정 기간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장기 해외 체류로 발생한 학습 장애와 심리적 갈등 요인을 해소하여 국내 생활 및 학교 교육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해외에서의 학습 경험을 살릴 수 있는 학습 교재를 개발하여 활용하거나 학생의 능력에 알맞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최대한의 인적·물적 지원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도 교육청은 특정 학교에 특별 학급을 지정·설치하여 귀국 학생이 입학, 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위 학교가 귀국자 및 다문화 가정의 자녀 교육을 위한 특수한 과정을 설치·운영하기가 어려울 때에는 이를 교육지원청별 또는 지구별 단위에서 공동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학교 및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학생들의 언어 및 문화장벽 해소와 사회적 귀속감 증대를 위하여 각각의 능력에 맞는 개별적인 지도 방안을 강구하고,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도 개발하여 지원해야 한다.

학교는 모든 학생의 능력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학생의 능력에 따라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따라서 지역 및 단위 학교의 특수성에 대한 기초 실태 조사를 통해 문학, 외국어, 과학, 체육, 예능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 학습 부진 학생,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학교 급별로 이를 위한 방과 후 교육 활동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지역 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체제를 확립하고, 학생들의 적성과 능력에 따른 다양한 장학 자료를 개발하여 단위 학교에 보급하고, 이에 대한 홍보 및 연수 활동을 병행해야 한다.

교원 연수, 교육과정 컨설팅, 연구학교 운영 및 연구회 활동 지원

○ 교원 연수 계획 및 시행

다.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원 연수, 교육과정 컨설팅, 연구학교 운영 및 연구회 활동 지원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1) 교원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능력과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지도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원에 대한 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시·도 교육청은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현장 교원의 교육과정 이해도 제고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교육과정의 총론 및 관련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에 대한 현장 교원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연수 과정에서는 교육과정 개발 연구에 참여했던 연구진이 지침의 성격, 개발 과정에서 검토되었던 쟁점, 지침 적용 시 주의를 요하는 사항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더불어 각 학교에서 작성해야 할 학교 교육과정 편성 역량 강화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시·도 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 기관 등에 소속된 교육 전문직 대상의 교육과정 연수도 필요하다.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 전문직의 이해와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수업 개선에 대한 전문적인 지도·조언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시·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등에 소속된 일반 행정직, 학교 운영 위원, 학부모, 지역 인사 등에 대한 연수도 실시하여 행·재정적인 지원과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교육과정 컨설팅단 운영 및 편성·운영 자료 개발·보급

- 2) 학교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편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과정 컨설팅 지원단 등 지원 기구를 운영하며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각종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한다.

시·도 교육청은 ‘교육과정 컨설팅 지원단’ 등 전문적인 컨설팅 기구를 조직·운영하여 단위 학교별로 다양하고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학교의 교육 활동 결과가 국가 수준의 각종 평가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컨설팅 지원단은 교육과정에 대한 단위 학교별 연수 지원과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모형 개발, 교과 및 창의적 체험 활동 운영을 위한 연구,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개발·보급과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단위 학교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구별 장학 협의회, 교과 교육 연구회 등을 조직하여 운영한다. 이때 지역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교원, 학부모 등의 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학교나 개별 교사가 실천한 각종 교수·학습 자료, 우수 사례 등을 모아 책자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거나 공유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연구학교, 연구교사, 교과별 연구회 활동 지원

3)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개선과 수업 개선을 위해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연구 교사제 및 교과별 연구회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시·도 교육청에서는 관내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수업 개선 등을 위하여 연구학교를 운영·지원하고, 교과별·연구 영역별 수업 연구 교사 및 교원 연구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시·도 교육청은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영역에서 교수·학습 지도 능력과 연구 수행 능력이 우수한 교사를 연구 교사 등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 중심 학교 경영 문화, 학생 참여형 교수·학습 및 평가에 대해 연구하고 실천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같이 연구 교사제를 운영할 경우 세부 운영 방침을 세워 연구 영역 및 연구 기간, 연구 교사 자격 및 심사 기준을 제시하여 질 관리에 힘써야 한다.

또한 교과별, 학년별, 주제별, 학교별로 교원들의 자발적이고 집단적인 교원 연구 모임을 적극 발굴하여 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학생 맞춤형 수업 운영, 수업 및 평가 방법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행·재정 지원

○ 교육 시설, 설비, 자료에 대한 행·재정 지원

파. 학교가 이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지원한다.

- 1)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해서 교육 시설, 설비, 자료 등을 정비하고 확충하는 데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시·도 교육청은 단위 학교가 교육 공동체(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안전한 학교 시설 운영을 위해서

단위 학교별로 교육 시설 및 설비를 자체 정비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점검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점검 기준에는 교육시설 및 설비가 그 목적에 부합하게 설치·사용되는지, 교육 시설이 교육 활동을 지원함에 부족함이 없는지, 학생 안전을 위한 시설 정비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점검 및 정비는 매 학년도 말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분기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한다. 새로운 시설이나 설비 구축에 대한 단위 학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재정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한편 다양한 학생 프로그램, 교과 수업모형의 예시자료, 교과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자료, 창의적 체험활동(자율·동아리·봉사·진로활동)운영 매뉴얼 등을 개발·보급하여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한 행·재정 지원

2)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원 수급, 시설 확보, 프로그램 개발 등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있어서 학생의 적성과 진로 탐색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학교는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과정에 교과목을 편제할 수 있다. 단위 학교에서 학생이 선택한 과목을 개설·운영하기 위해서 우선 충족되어야 할 조건 중 하나가 해당 교과목의 교원 수급이다. 단위 학교에서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여 과목을 개설·운영하려 해도 교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실제적인 개설·운영은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예를 들어, 학생의 요구로 신설된 과목(예술교과의 연극, 진로 선택 과목, 전문 교과의 과목 등)을 편성·운영할 경우 해당 과목의 교원 수급 문제는 단위 학교가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따라서 시·도 교육청에서는 교과(군)별로 해당 교과목 교원의 인력풀을 구축·안내하여 단위 학교에서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한편 소수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은 인근 학교 간 순회교사 제도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원의 수급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단위 학교의 교과목 개설을 위한 강사비 지원과 같은 재정적 지원도 필요하다.

한편 수업을 진행할 교실 및 특별실, 전문 교과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등 해당 과목 수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필요한 시설이 적정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거나 학교 간 설비의 공동사용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학생 프로그램과 교수 학습 자료 및 평가 자료의 개발·보급, 교원 대상 전문성 강화 연수 등을 통해 해당 교과목의 수업이 내실 있게 운영되어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은 지역 여건에 맞는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해야 할 것이다.

○ 소규모 학교에 대한 행·재정 지원

3) 복식 학급 운영 등 소규모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원의 배치, 학생의 교육받을 기회 확충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농촌·산촌·어촌 및 벽지 지역의 경우 소규모 학교가 대부분이다. 이들 학교는 교육 시설·설비, 인적 자원 등 교육 여건과 환경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현재의 학년 체제 운영 방식과는 다른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시·도 교육청은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가능하도록 둘 이상의 다른 학년이 하나의 학급이나 교사에 의하여 운영되는 복식 학급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더불어, 복식 학급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의 편성, 교재의 재구성,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보급을 위한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한편 교원 수급 상 해당 교과목의 교원 배치가 학교별로 충족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교육청에서는 학교 교육과정의 공동 편성이나 순회교사제 등 소규모 학교가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행·재정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안내해야 한다. 소규모 학교 학생들이 교육 활동 참여에 소외되지 않고 학력 수준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서는 인근학교 공동 프로그램 개발, 교수·학습 자료 개발, 수업 개선 방안 등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수준별 수업을 위한 행·재정 지원

4) 수준별 수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하며, 기초학력 향상과 학습 결손 보충이 가능하도록 ‘특별 보충 수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시·도 교육청은 학생 맞춤형 수업의 일환으로 수준별 수업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교육지원청은 지구별 장학과 교과 연구회 등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학생들의 특성을 반영한 수업 방법과 수준별 수업 자료 등의 연구와 개발·적용 등이 공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시·도 교육청은 단위 학교에서 기초학습 부진 학생을 조기에 진단·지도하여 학습 결손을 최소화하고 기초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하여 기초학력 수준을 판별할 수 있는 진단 체계를 구축하고 제공하여 기초학습 부진 학생을 조기에 진단함과 동시에, 기초학습 결손 방지를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및 매뉴얼을 개발·보급하여 적기에 효율적인 지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보급하며, 교육지원청과 단위 학교에서 전문적인 진단과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 초등학교 돌봄 기능 강화를 위한 행·재정 지원

5) 지역사회와 학교의 여건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학교에서 돌볼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고, 이에 대해 충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시·도 교육청은 초등학교의 돌봄 교실이 활발히 운영되도록 지역 및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행·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즉, 돌봄전담사 확보 및 연수, 프로그램 지원, 시설 및 교재·교구의 구비 등 제반 여건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수준에서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돌봄 교실은 정규 교육 활동과는 별도로 현재 시행 중인 방과후학교 등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희망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 집중 과정에 대한 행·재정 지원

6) 개별 학교의 희망과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 내 학교 간 개설할 집중 과정을 조정하고, 그 편성·운영을 지원한다. 특히 소수 학생이 지망하는 집중 과정을 개설할 학교를 지정하고, 원활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시·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과정이 편성·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소수 학생이 지망하는 집중 과정을 한 학교 내에서 운영하기에 한계가 있는 경우, 해당 집중 과정을 개설할 인근 학교를 지정하여 행·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이 때 학생들이 타 학교의 교과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이동하는 거리 및 시간을 고려할 때, 지역 내에서 학교 간 집중 과정을 달리하여 개설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는 지역 내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의 개설·운영에 관련한 지침과 매뉴얼을 제시하고, 교육지원청은 지역 내 개별 학교의 요구와 여건에 따라 집중 과정의 유형과 운영 방식, 집중 과정 개설학교의 지정 등이 실행될 수 있도록 지역 내 학교 간 의사소통의 장(場)을 마련한다.

한편 시·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지역 내 학교별 집중 과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어 해당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교육 시설 및 교육 설비 구축, 수업 및 평가 자료의 개발·보급, 자격소지 교원의 확보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학생이 해당 집중 과

정이 개설된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과목의 이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과목 이수 인정, 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제공함으로써 소수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 되도록 해야 한다.

◦ 독서활동 활성화 지원

7) 인문학적 소양 및 통합적 읽기 능력 함양을 위해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도록 다양한 지원을 한다.

학교는 독서 활동을 통해 학생의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고 통합적 읽기 능력을 개발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단위 학교에서 독서 활동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학교에서의 독서 활동이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가정 및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다양한 독서 체험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 특성화된 교육과정에서의 내실 있는 현장 실습 운영 지원

8)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가 산업체와 협력하여 특성화된 교육과정과 실습 과목을 편성·운영할 경우, 학생의 현장 실습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성격과 특성을 고려하여 개설 전공과 유사한 산업체와 연계·협력하여 특성화된 교육과정과 실습 과목을 편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시·도 교육청은 산학 연계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따른 현장 실습이 내실 있게 운영 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이 교육과정에서는 각 교육청 수준에서 전문 교육을 주로 하는 학교의 특성화 교육 강화를 위해 산학 협력이 활성화되도록 행·재정적 지원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담당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도 교육청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산업체와 긴밀한 상호협력 등을 통해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학교 교육과정의 질 관리

○ 학교 교육과정의 질 관리 지원

하. 학교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실시한다.

- 1) 학교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실태와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효과적인 교육과정의 운영과 개선 및 질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시·도 교육청에서는 중·장기적 계획에 따라 학교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문제점 개선과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별도로 조직·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 질 관리 연구팀이나 ‘교육과정 지원 장학 협의단’, ‘교육과정 컨설팅 지원단’ 등을 활용하여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을 위한 지원을 해야 한다. 더불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을 살리면서 학교 실정, 학생 실태, 교육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다양하고 특색 있는 학교 교육과정이 편성·운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 및 지도·조언을 실시한다.

○ 학교 교육과정 평가 실시 및 결과 활용

- 2)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질 관리와 교육과정 편성·운영 체제의 적절성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업 성취도 평가, 학교 교육과정 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활용한다.

시·도 교육청은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대한 질 관리와 학생의 학업 성취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평가 도구와 방법을 개발하고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단위 학교에 대한 장학 활동을 통해 학교 급별 교육 목표와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의 일관성 있는 실천 과정을 확인하며, 실제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실증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평가하여 수업의 개선과 교육의 질 관리에 활용하도록 한다.

○ 교육청 수준의 자체평가 강화

- 3) 교육청 수준의 학교 교육과정 지원에 대한 자체 평가와 교육과정 운영 지원 실태에 대한 점검을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시·도 교육청은 교육청 수준의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지원이 계획에 따라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교육청 수준의 학교 교육과정 지원에 대한 단위 학교의 평가를 수렴할 수 있는 평가 도구와 방법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환류하여 지원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삼아야 한다.



부 록

[부록 I] 2015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 Q & A

[부록 II]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부록 III]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신·구 비교

[부록 IV] 교육과정의 법적 근거

[부록 I]

2015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 Q & A

● 국가 교육과정의 성격과 역할은 무엇인가요?

국가 교육과정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 활동에 대한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의 역할을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시·도교육청에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대한 지침을 만들고, 단위 학교에서는 국가 교육과정과 시·도교육청 수준의 교육과정을 근거로 하여 학교의 특색과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합니다.

● 핵심역량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핵심역량은 간단하게 정의하면 학교 학습을 통해서 기르고자 하는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능력입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학교 교육을 통해서 길러주고자 하는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또한 핵심역량은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살아가게 될 미래 사회에서 시민으로서 혹은 직업인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데 필요한 능력이므로 미래 지향적입니다. 정보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사회가 점차 복잡해지고 다원화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지식을 소유하는 것에서 벗어나 지식을 활용하고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능력을 길러주고자 하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 추구하는 인간상과 핵심역량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핵심역량은 추구하는 인간상이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서,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포함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 활동을 통해 길러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핵심역량과 추구하는 인간상의 관계는 ‘자기관리 역량’과 ‘자주적인 사람’의 경우와 같이 일부 인간상과 일부 핵심역량이 좀 더 밀접한 관계를 맺고는 있지만 일대일 대응관계로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인간상과 핵심역량은 오히려 우리 교육이 추구해야 할 과제를 각기 다른 측면에서 요약하여 제시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는 어떠한 사람을 의미하나요?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을 바탕으로 설정된 인재상으로, ‘바른 인성을 가지고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으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창의성은 창의융합형 인재의 중심 가치가 되며, 창의적인 사람은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생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융합적 사고를 필요로 하며 융합은 다양한 지식과 아이디어를 연결하는 능력으로써 통합과 유사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창의적인 사람은 융합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생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은 인간과 사회에 이로운 것이어야 하므로 도덕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 왜 인문·사회·과학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이 강조되나요?

핵심역량을 기르고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을 가르치기 보다는 다양한 분야에서 기초적인 소양을 길러줄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날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인간소외의 문제나 도덕성 상실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에 대한 이해, 사회에 대한 이해, 과학기술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과 사회에 대한 안목을 갖추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교과 역량은 무엇인가요? 핵심역량과 어떻게 다른가요?

교과 역량은 교과가 기반한 학문의 지식 및 기능을 습득하고 활용함으로써 길러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역량은 일반 역량과 교과 역량의 차원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핵심역량은 일반 역량에 해당합니다. 일반 역량은 교과 역량을 아우르며 조절하는 총체적인 역할을 하고, 일반 역량은 교과 역량이 제대로 계발되어야 발달될 수 있으므로 일반 역량과 교과 역량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역량과의 연결성 속에서 교과 역량을 파악하고, 교과 역량들 간의 연결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역량 함양을 위한 수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역량 함양을 위한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학습 내용을 다양한 상황 속에서 적용·실천하도록 하며, 지식과 기능을 활용하여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자의 필요나 발달 수준에 부합하며, 협력과 탐구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평가의 경우에는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를 강조하고, 평가를 통해 양적인 정보 뿐 아니라 질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수업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IV.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3. 평가'와 '4. 교수·학습'에는 역량이라는 용어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역량의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과 평가의 방향이 반영되었습니다.

● 교과 교육과정에서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기능은 각각 무엇을 의미하나요?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에서는 교과 역량을 함양하는 데 필요한 학습 내용을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기능(사고 및 탐구기능)을 중심으로 구조화하였고, 이를 내용 체계에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 체계를 바탕으로 성취기준을 개발하였습니다.

핵심 개념이란 교과가 기반하는 학문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나 원리를 포함하는 교과의 근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예를 들어 규칙성, 에너지, 상호작용, 관계, 다양성 등과 같은 개념적인 아이디어일 수도 있지만 표현, 감상, 의사소통, 공감과 같이 기능적 혹은 정의적 내용들도 핵심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화된 지식은 핵심 개념을 배우기 위해 학생들이 학습해야 될 학교급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원리 및 지식입니다. 일반화된 지식은 구체적인 사실적 지식들을 아우르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과 사실들에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능이란 지식을 습득할 때 활용되는 탐구 및 사고기능이면서, 동시에 학습의 결과로서 학생들이 '할 수 있어야 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별 교육과정 내용 체계에서는 영역을 대표하는 핵심 개념을 바탕으로 일반화된 지식을 제시하고, 이와 함께 교과 고유의 사고 및 탐구과정을 제시함으로써 교과만의 열개 혹은 구조를 드러내고자 하였습니다.

●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교과 교육과정을 구조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구조화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첫째, 교과별 세부 학습 내용들의 관련성을 아우르는 큰 그림을 보여줌으로써 내용들 간의 관련성과 그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을 돕습니다. 둘째, 교과 내 지식과 기능, 교과 내 영역 간, 교과 간 내용의 연결성을 드러내도록 구조화하기 때문에 교과 지식의 통합을 가능하게 하고 학생들의 융합적 사고를 돕습니다.

학습한 내용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고 융합적 사고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교과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세부 학습 내용들은 그러한 구조 속에서 서로 연결되고 관련지어져야 합니다.

● **교과의 성취기준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교과 역량과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성취기준은 내용 체계(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를 바탕으로 개발되었으며, 교과 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알아야 하고(지식) 할 수 있어야 하는 것(기능)을 나타냅니다. 학생들이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하는지 수행의 용어로 표현되며, 교과에 따라 활동을 포함하고 있기도 합니다. 성취기준은 학습 결과로서 교과 학습 후 학생들이 도달해야 할 지점을 의미하며, 평가 기준의 근거가 됩니다. 역량은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를 통합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발휘되는 능력이므로 학생들이 성취기준에 도달함으로써 교과 역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수준별 수업이 유지되나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을 학생 개개인이 의미를 구성해나가는 과정으로 보고 맞춤형 수업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학습하는 능력, 속도, 방식 등에는 개인차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수준별 수업은 학생들의 능력에 따라 교육 내용의 단계나 깊이를 조정한다는 면에서 맞춤형 수업과 취지는 비슷하지만, 맞춤형 수업은 학생의 능력 뿐 아니라 흥미와 선호하는 학습 방식 등 학생들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수준별 수업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수준별 수업은 학생 맞춤형 수업의 한 부분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란 무엇인가요?**

학습의 결과 뿐 아니라 학습의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양적, 질적 피드백을 제공하여 모든 학생들이 성취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학습을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평가를 의미합니다. 학습을 위한 평가, 성찰로서의 평가라는 관점을 반영하여 평가 자체가 교육적인 활동이 됩니다. 교사는 평가를 수업의 한 부분으로 실시하며,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하고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여러 형태의 정보를 수집하고 해석함으로써 수업에 환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 **계기 교육을 실시하기 전 교수·학습 계획과 학습 자료에 대한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계기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교과 협의회와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를 통해 적정성을 검토받고, 학교장으로부터 교수·학습 계획과 학습 자료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범교과 학습 10개 주제에 포함되지 않는 정보통신활용 교육, 보건 교육, 한자 교육도 지도해야 하나요? 정보통신활용 교육, 보건 교육, 한자 교육 외 다른 주제들을 학교 구성원의 요구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나요?**

정보통신활용 교육, 보건 교육, 한자 교육은 범교과 학습 주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은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지도해야 합니다. 다만, 지도 시간 수, 대상, 시기 등은 교육 내용의 특성, 학교 교육 수요자의 요구, 학교의 여건, 학생의 수준,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보통신활용 교육, 보건 교육, 한자 교육 외의 다른 주제들도 학교 구성원의 요구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학교장은 학생들의 학습부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 초등학교 1~2학년의 ‘안전한 생활’은 어떻게 편성·운영해야 하나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1~2학년에 신설된 ‘안전한 생활’은 생활안전, 교통안전, 신변안전, 재난안전의 4개 영역으로 구분되며, 창의적 체험활동에 주어진 시수를 활용하여 체험중심으로 운영합니다. ‘안전한 생활’은 독립적으로 가르치거나 관련 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하위 영역별 활동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지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1학년 학생의 경우 창의적 체험활동의 입학초기 적응 활동과 연계하여 학년초부터 학교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 지도해야 합니다.

‘안전한 생활’은 체험 및 활동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된 교과서를 활용하여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이론 중심의 학습이 아니라 역할극 또는 생활 경험과 연관된 체험 활동을 통해 몸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중심의 수업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안전한 생활의 편성·운영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고시 제2015-74 호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별책 42】에 상술되어 있습니다.

‘안전한 생활’은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감, 타 교과와의 연계 교육 등을 위해 담임교사가 지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사·도 교육청의 지침과 학교 여건 등에 따라 1,2학년 지도 경험이 있는 전담교사가 지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임교사가 안전한 생활을 가르칠 경우 5,6학년 보다 1,2학년 담임교사의 수업시수가 더 많아질 수 있으므로 1,2학년 담임교사 수업 경감 차원에서 별도의 창의적 체험활동 주제(예, 놀이교육 등)를 전담교사가 지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학습 내용에 따라 소방관 등 지역사회 인사를 활용하는 수업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 초등학교 1~2학년 안전한 생활은 1학년이나 2학년 중 집중이수 방법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나요?

초등학교 1~2학년은 학년군 체제이므로 안전한 생활을 집중이수 방법으로 편성·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이면서 체계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는 측면에서 특정 학년 또는 학기에 집중 편성하기보다는 가급적 2년간에 걸쳐 지도하기를 권장합니다.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초등학교에 처음 적용되는 2017년 2학년 학생들의 경우는 안전한 생활 총 64시간 중 34시간 이상 편성·운영하면 됩니다.

● 창의적 체험활동을 학년(군)별로 하나의 영역에만 해당하는 활동으로 구성해도 되나요?

학교는 학교 급별, 학년(군)별, 학기별로 4개의 영역 중에 1개 이상의 영역을 선택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1~2학년의 예를 들면, 자율 활동을 중심으로 편성·운영하거나, 자율 활동과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영역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도 있으며, 필요한 경우는 4개 영역 모두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 즉,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단위 학교가 자율적으로 특색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단위 학교의 자율권을 보다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 활동, 내용 등을 선정할 때에는 학생의 입장에서 초등학교 6개 학년 동안 의미 있는 성장에 초점을 맞춰 프로그램을 설계함으로써 체계적이면서도 지속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특정 학년이나 학기에 아예 편성되지 않거나, 창의적 체험활동의 시수가 특정 학년이나 학기에 지나치게 적게 편성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 교과(군)별 20% 범위 내에서 시수를 증감하여 편성·운영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입니까?

국가 교육과정에서는 교육적 필요와 여건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교과(군)별 기준 수업 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증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때 교과(군)별 20% 범위 내에서 시수를 증감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시수 증감은 교과(군)내에서만 가능하며, 교과(군)에서 시수를 감축하여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를 증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즉, 어느 교과(군)에서 20%를 감축한다면 감축한 분량의 시수를 다른 교과(군)에서 증배하여 ‘교과(군)’의 ‘소계’ 시수를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군)는 기준 수업 시수를 감축하여 편성·운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체능 교과(군)에 해당하는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은 기준 수업 시수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한편, 초등학교 1~2학년의 즐거운 생활 교과는 예·체능 교과(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때 시간 배당을 반드시 학년군에 의해 2년간의 시간을 배당해야 하나요?**

2015 개정 교육과정은 2009 개정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학년군제에 의거하여 ‘학년군별 총 수업 시간 수’를 이수하도록 시간을 배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학년의 경우 다음 학년도에 해당하는 2학년 시간까지 배당하여 ‘교과(군)’의 ‘소계’ 시간과 ‘학년군별 총 수업 시간 수’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2학년의 경우는 이전 학년도에 해당하는 1학년 시간까지 포함하여 시간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 **학교 교육과정의 심의 및 확정은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하나요?**

학교 교육과정은 학교장의 결재가 이루어져야 확정이 되는 것이며, 적용은 당해 학년도 3월 1일부터입니다. 따라서 학교장 결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이루어지는 단계이므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는 그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당해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학교장 결재를 통한 학교 교육과정이 확정되어져야 합니다.

[부록 II]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15-80호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2015.9.23.)

【별책 1】 총론의 부칙 중 일부 과목의 적용 시기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부 칙

1. 이 교육과정은 학교 급별, 학년별로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가. 2017년 3월 1일 : 초등학교 1, 2학년
 - 나. 2018년 3월 1일 :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 다. 2019년 3월 1일 :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 라. 2020년 3월 1일 :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단, 중학교 사회 교과(군)의 ‘역사’ 및 고등학교 기초 교과 영역의 ‘한국사’ 과목은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3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1.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별책 1】 과 같습니다.
2.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2】 와 같습니다.
3. 중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3】 과 같습니다.
4.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4】 와 같습니다.
5. 국어과 교육과정은 【별책 5】 와 같습니다.
6. 도덕과 교육과정은 【별책 6】 과 같습니다.
7. 사회과 교육과정은 【별책 7】 과 같습니다.
8. 수학과 교육과정은 【별책 8】 과 같습니다.
9. 과학과 교육과정은 【별책 9】 와 같습니다.
10. 실과(기술·가정)/정보과 교육과정은 【별책 10】 과 같습니다.
11. 체육과 교육과정은 【별책 11】 과 같습니다.
12. 음악과 교육과정은 【별책 12】 와 같습니다.
13. 미술과 교육과정은 【별책 13】 과 같습니다.
14. 영어과 교육과정은 【별책 14】 와 같습니다.
15.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은 【별책 15】 와 같습니다.
16. 제2외국어과 교육과정은 【별책 16】 과 같습니다.
17. 한문과 교육과정은 【별책 17】 과 같습니다.
18. 중학교 선택 교과 교육과정은 【별책 18】 과 같습니다.
19. 고등학교 교양 교과 교육과정은 【별책 19】 와 같습니다.
20. 과학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은 【별책 20】 과 같습니다.
21. 체육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은 【별책 21】 과 같습니다.
22. 예술 계열 전문 교과(보통 교과 연극 과목 포함) 교육과정은 【별책 22】 와 같습니다.
23. 외국어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은 【별책 23】 과 같습니다.
24. 국제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은 【별책 24】 와 같습니다.

25.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은 【별책 25~41】 과 같습니다.
26. 창의적 체험활동(안전한 생활 포함) 교육과정은 【별책 42】 와 같습니다.
27. 한국어 교육과정은 【별책 43】 과 같습니다.

부 칙

1. 이 교육과정은 학교 급별, 학년별로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가. 2017년 3월 1일 : 초등학교 1, 2학년
 - 나. 2018년 3월 1일 :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 다. 2019년 3월 1일 :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 라. 2020년 3월 1일 :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2. 중학교 자유학기 편성·운영 관련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3. 교육부 고시 제2013-7호의 전문 교과는 2016년 3월 1일부터 이 교육과정의 전문 교과Ⅱ 실무 과목으로 대체하여 편성할 수 있습니다.
4.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2009.12.23.),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0-24호(2010.5.12.),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5호(2011.1.26.),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13호(2011.2.24.),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2011.8.9.),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호(2012.3.2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2012.7.9.),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29호(2012.12.7.),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1호(2012.12.13.), 교육부 고시 제2013-7호(2013.12.18.)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은 2020년 2월 29일로 폐지합니다.
5.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2월 29일까지로 합니다.

〈참고〉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고시의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와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정부 3.0정보 공개>법령 정보>입법·행정 예고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ncic.go.kr)>교육과정 자료실>교육과정 원문 및 해설서

교육과정의 성격

이 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고시한 것으로, 초·중등학교의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며, 초·중등학교에서 편성·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이 교육과정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가.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학교,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육과정이다.

나.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이다.

다.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 교원·학생·학부모가 함께 실현해 가는 교육과정이다.

라. 학교 교육 체제를 교육과정 중심으로 구현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마. 학교 교육의 질적 수준을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I.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1. 추구하는 인간상

우리나라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이념과 교육 목적을 바탕으로,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

- 가.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는 자주적인 사람
- 나.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다양한 발상과 도전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인 사람
- 다.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교양 있는 사람
- 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 교과 교육을 포함한 학교 교육 전 과정을 통해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핵심역량은 다음과 같다.

- 가.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관리 역량
- 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식정보처리 역량
- 다.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 사고 역량
- 라.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는 심미적 감성 역량
- 마.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의사소통 역량

- 바.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

2.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이 교육과정은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추구해 온 교육 이념과 인간상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함양하여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한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은 다음과 같다.

- 가. 인문·사회·과학기술 기초 소양을 균형 있게 함양하고,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선택 학습을 강화한다.
- 나. 교과와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구조화하고 학습량을 적정화하여 학습의 질을 개선한다.
- 다. 교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하여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르고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한다.
- 라.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를 강화하여 학생이 자신의 학습을 성찰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한다.
- 마. 교과와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수·학습 및 평가의 일관성을 강화한다.
- 바.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하여 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초 역량과 직무 능력을 함양한다.

3. 학교 급별 교육 목표

가. 초등학교 교육 목표

초등학교 교육은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습관 및 기초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 1)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르며, 풍부한 학습 경험을 통해 자신의 꿈을 키운다.

- 2) 학습과 생활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기초 능력을 기르고, 이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상상력을 키운다.
- 3)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기고 자연과 생활 속에서 아름다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심성을 기른다.
- 4) 규칙과 질서를 지키고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서로 돕고 배려하는 태도를 기른다.

나. 중학교 교육 목표

중학교 교육은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 및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 1)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바탕으로 자아존중감을 기르고,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통해 적극적으로 삶의 방향과 진로를 탐색한다.
- 2)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 및 문제 해결력을 바탕으로, 도전정신과 창의적 사고력을 기른다.
- 3)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서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와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기른다.
- 4)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타인을 존중하고 서로 소통하는 민주 시민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다. 고등학교 교육 목표

고등학교 교육은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개척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 1) 성숙한 자아의식과 바른 품성을 갖추고, 자신의 진로에 맞는 지식과 기능을 익히며 평생학습의 기본 능력을 기른다.
- 2)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융합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기른다.
- 3) 인문·사회·과학기술 소양과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 4) 국가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Ⅱ.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1. 기본 사항

- 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공통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한다.
- 나. 학년 간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학년군을 설정한다.
- 다. 공통 교육과정의 교과는 교육 목적상의 근접성, 학문 탐구 대상 또는 방법상의 인접성, 생활양식에서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교과군으로 재분류한다.
- 라.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기초 영역 학습을 강화하고 진로 및 적성에 맞는 학습이 가능하도록 4개의 교과 영역으로 구분하고 교과(군)별 필수 이수 단위를 제시한다.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보통 교과의 4개 교과 영역과 전문 교과로 구분하고 필수 이수 단위를 제시한다.
- 마. 고등학교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구분하며, 학생들의 기초 소양 함양과 기본 학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통 교과에 공통 과목을 개설하여 모든 학생이 이수하도록 한다.
- 바. 학습 부담을 적정화하고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조정하여 집중이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사.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의 소질과 잠재력을 계발하고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데에 중점을 둔다.
- 아. 범교과 학습 주제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지역사회 및 가정과 연계하여 지도한다.

안전·건강 교육, 인성 교육, 진로 교육, 민주 시민 교육, 인권 교육, 다문화 교육, 통일 교육, 독도 교육, 경제·금융 교육,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

- 자. 학교는 필요에 따라 계기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기 교육 지침에 따른다.

2. 초등학교

가.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

1) 편제

가)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

나) 교과(군)는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실과,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로 한다. 다만, 1, 2학년의 교과는 국어, 수학,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로 한다.

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한다. 다만, 1, 2학년은 체험 활동 중심의 ‘안전한 생활’을 포함하여 편성·운영한다.

2) 시간 배당 기준

〈표 1〉

구 분		1~2학년	3~4학년	5~6학년
교 과 (군)	국어	국어 448	408	408
	사회/도덕		272	272
	수학	수학 256	272	272
	과학/실과	바른 생활 128	204	340
	체육	슬기로운 생활 192	204	204
	예술(음악/미술)	즐거운 생활 384	272	272
	영어		136	204
	소계	1,408	1,768	1,972
창의적 체험활동		336 안전한 생활 (64)	204	204
학년군별 총 수업 시간 수		1,744	1,972	2,176

- ① 이 표에서 1시간 수업은 40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② 학년군 및 교과(군)별 시간 배당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2년간의 기준 수업 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 ③ 학년군별 총 수업 시간 수는 최소 수업 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 ④ 실과의 수업 시간은 5~6학년 과학/실과의 수업 시수에만 포함된 것이다.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 1) 학교는 모든 교육 활동을 통해 학생의 기본 생활 습관, 기초 학습 능력, 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 2) 학교는 학년군별로 이수해야 할 교과를 학년별, 학기별로 편성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한다.
- 3) 학교는 각 교과의 기초적, 기본적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학습되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특히 국어 사용 능력과 수리 능력의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 4) 학교는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교과(군)별 20% 범위 내에서 시수를 증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단,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는 기준 수업 시수를 감축하여 편성·운영할 수 없다.
- 5) 학교는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년별, 학기별로 교과 집중이수를 실시할 수 있다.
- 6) 전입 학생이 특정 교과를 이수하지 못할 경우,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보충 학습 과정 등을 통해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7)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복식 학급을 편성·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육 내용의 학년별 순서를 조정하거나 공통 주제를 중심으로 교재를 재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 8) 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을 학생들의 발달 수준,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년(군)별로 선택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9) 학교는 1학년 학생들의 입학 초기 적응 교육을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의 시간을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입학 초기 적응 프로그램 등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 10) 정보통신활용 교육, 보건 교육, 한자 교육 등은 관련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3. 중학교

가.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

1) 편제

- 가) 중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
- 나) 교과(군)는 국어, 사회(역사 포함)/도덕, 수학, 과학/기술·가정/정보,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 선택으로 한다.
- 다) 선택 교과는 한문, 환경, 생활 외국어(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보건, 진로와 직업 등의 과목으로 한다.
- 라)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한다.

2) 시간 배당 기준

〈표 2〉

구 분		1~3학년
교 과 (군)	국어	442
	사회(역사 포함)/도덕	510
	수학	374
	과학/기술·가정/정보	680
	체육	272
	예술(음악/미술)	272
	영어	340
	선택	170
	소계	3,060
창의적 체험활동		306
총 수업 시간 수		3,366

- ① 이 표에서 1시간 수업은 45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② 학년군 및 교과(군)별 시간 배당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3년간의 기준 수업 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 ③ 총 수업 시간 수는 3년간의 최소 수업 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 ④ 정보 과목은 34시간을 기준으로 편성·운영한다.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 1) 학교는 3년간 이수해야 할 교과목을 학년별, 학기별로 편성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한다.
- 2) 교과(군)의 이수 시기와 그에 따른 수업 시수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 3) 학교는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20% 범위 내에서 시수를 증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단,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는 기준 수업 시수를 감축하여 편성·운영할 수 없다.
- 4) 학교는 학습 부담을 적정화하고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8개 이내로 편성한다. 단,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는 이수 교과목 수 제한에서 제외하여 편성할 수 있다.
- 5) 전입 학생이 특정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보충 학습 과정 등을 통해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6) 학교가 선택 과목을 개설할 경우, 2개 이상의 과목을 개설함으로써 학생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한다.
- 7) 학교는 필요한 경우 새로운 선택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8) 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을 학생들의 발달 수준,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및 자유학기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들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9) 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하고,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하여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자유학기를 운영한다.
 - 가)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는 자유학기로 운영한다.
 - 나) 자유학기에는 해당 학기의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자유학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편성·운영한다.
 - 다) 자유학기에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진로 탐색 활동, 주제 선택 활동, 동아리 활동, 예술·체육 활동 등 다양한 체험 중심의 자유학기 활동을 운영한다.
 - 라) 자유학기에는 협동 학습, 토의·토론 학습, 프로젝트 학습 등 학생 참여형 수업을 강화한다.
 - 마) 자유학기에는 중간·기말고사 등 일제식 지필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는 과정 중심의 평가를 실시한다.
 - 바) 자유학기에는 학교 내외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진로 탐색 및 설계를 지원한다.

- 사) 학교는 자유학기의 운영 취지가 타 학기·학년에도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10) 학교는 학생들의 심신을 건강하게 발달시키고 정서를 함양하기 위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편성·운영한다.
- 가)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동아리 활동으로 편성한다.
- 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학년별 연간 34~68시간(총 136시간) 운영하며, 매 학기 편성하도록 한다. 학교 여건에 따라 연간 68시간 운영하는 학년에는 34시간 범위 내에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체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 다)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시간은 교과(군)별 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감축하거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를 순증하여 확보한다. 다만, 여건이 어려운 학교의 경우 68시간 범위 내에서 기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확보할 수 있다.
- 라)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종목과 내용은 학생들의 희망을 반영하여 학교가 정하되, 다양한 종목을 개설함으로써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한다.

4. 고등학교

가.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

1) 편제

- 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
- 나)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한다.
- (1) 보통 교과
- ㉠ 보통 교과의 영역은 기초, 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양으로 구성하며, 교과(군)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역사/도덕 포함), 과학, 체육, 예술, 기술·가정/제2외국어/한문/교양으로 한다.
 - ㉡ 보통 교과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구분한다. 공통 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과학탐구실험 포함)으로 하며,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으로 구분한다.
- (2) 전문 교과
- ㉢ 전문 교과는 전문 교과Ⅰ과 전문 교과Ⅱ로 구분한다.
 - ㉣ 전문 교과Ⅰ은 과학, 체육, 예술, 외국어, 국제 계열에 관한 과목으로 한다.
 - ㉤ 전문 교과Ⅱ는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라 경영·금융, 보건·복지, 디자인·문화콘텐츠

츠, 미용·관광·레저, 음식 조리, 건설, 기계, 재료, 화학 공업, 섬유·의류, 전기·전자, 정보·통신, 식품 가공, 인쇄·출판·공예, 환경·안전, 농림·수산업, 선박 운항 등에 관한 과목으로 한다. 전문 교과Ⅱ의 과목은 전문 공통 과목, 기초 과목, 실무 과목으로 구분한다.

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한다.

2) 단위 배당 기준

가) 일반 고등학교(자율 고등학교 포함)와 특수 목적 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제외)

〈표 3〉

	교과 영역	교과(군)	공통 과목(단위)	필수 이수 단위	자율 편성 단위
교과 (군)	기초	국어	국어(8)	10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편성
		수학	수학(8)	10	
		영어	영어(8)	10	
		한국사	한국사(6)	6	
	탐구	사회 (역사/도덕 포함)	통합사회(8)	10	
		과학	통합과학(8) 과학탐구실험(2)	12	
	체육·예술	체육		10	
		예술		10	
	생활·교양	기술·가정/ 제2외국어/한문/교양		16	
	소계			94	
창의적 체험활동				24(408시간)	
총 이수 단위				204	

- ① 1단위는 50분을 기준으로 하여 17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이다.
- ② 1시간의 수업은 50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③ 공통 과목은 2단위 범위 내에서 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단, 한국사는 6단위 이상 이수하되 2개 학기 이상 편성하도록 한다.
- ④ 과학탐구실험은 이수 단위 증감 없이 편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학 계열, 체육 계열, 예술 계열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⑤ 필수 이수 단위의 단위 수는 해당 교과(군)의 '최소 이수 단위'로 공통 과목 단위 수를 포함한다. 특수 목적 고등학교와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의 경우 예술 교과(군)는 5단위 이상, 생활·교양 영역은 12단위 이상 이수

할 것을 권장한다.

- ⑥ 기초 교과 영역 이수 단위 총합은 교과 총 이수 단위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⑦ 창의적 체험활동의 단위는 최소 이수 단위이며 ()안의 숫자는 이수 단위를 이수 시간 수로 환산한 것이다.
- ⑧ 총 이수 단위 수는 고등학교 3년간 이수해야 할 ‘최소 이수 단위’를 의미한다.

나)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표 4〉

		교과 영역	교과(군)	공통 과목(단위)	필수 이수 단위	자율 편성 단위
교과 (군)	보통 교과	기초	국어	국어(8)	24	학생의 적성·진 로와 산업계 수 요를 고려하여 편성
			수학	수학(8)		
			영어	영어(8)		
			한국사	한국사(6)	6	
		탐구	사회 (역사/도덕 포함)	통합사회(8)	12	
			과학	통합과학(8)		
		체육·예술	체육		8	
			예술		6	
		생활·교양	기술·가정/ 제2외국어/한문/교양		10	
		소계				
	전문 교과Ⅱ	17개 교과(군) 등			86	
	창의적 체험활동					24(408시간)
	총 이수 단위					204

- ① 1단위는 50분을 기준으로 하여 17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이다.
- ② 1시간의 수업은 50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등과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③ 공통 과목은 2단위 범위 내에서 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단, 한국사는 6단위 이상 이수하되 2개 학기 이상 편성하도록 한다.
- ④ 필수 이수 단위의 단위 수는 해당 교과(군)의 ‘최소 이수 단위’를 의미한다.
- ⑤ 창의적 체험활동의 단위는 최소 이수 단위이며 ()안의 숫자는 이수 단위를 이수 시간 수로 환산한 것이다.
- ⑥ 총 이수 단위 수는 고등학교 3년간 이수해야 할 ‘최소 이수 단위’를 의미한다.

3) 보통 교과

〈표 5〉

교과 영역	교과(군)	공통 과목	선택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기초	국어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실용 국어, 심화 국어, 고전 읽기
	수학	수학	수학 I, 수학 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실용 수학, 기하, 경제 수학, 수학과제 탐구
	영어	영어	영어 회화, 영어 I,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 II	실용 영어, 영어권 문화, 진로 영어, 영미 문학 읽기
	한국사	한국사		
탐구	사회(역사/도덕포함)	통합사회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여행지리, 사회문제 탐구, 고전과 윤리
	과학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물리학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물리학 II, 화학 II, 생명과학 II, 지구과학 II, 과학사, 생활과 과학, 융합과학
체육·예술	체육		체육, 운동과 건강	스포츠 생활, 체육 탐구
	예술		음악, 미술, 연극	음악 연주, 음악 감상과 비평 미술 창작, 미술 감상과 비평
생활·교양	기술·가정		기술·가정, 정보	농업 생명 과학, 공학 일반, 창의 경영, 해양 문화와 기술, 가정과학, 지식 재산 일반
	제2외국어		독일어 I, 일본어 I, 프랑스어 I, 러시아어 I, 스페인어 I, 아랍어 I, 중국어 I, 베트남어 I	독일어 II, 일본어 II, 프랑스어 II, 러시아어 II, 스페인어 II, 아랍어 II, 중국어 II, 베트남어 II
	한문		한문 I	한문 II
	교양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종교학, 진로와 직업, 보건, 환경, 실용 경제, 논술	

① 선택 과목의 기본 단위 수는 5단위이다.

② 교양 교과목을 제외한 일반 선택 과목은 2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③ 교양 교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은 3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④ 체육 교과는 매 학기 편성하도록 한다. 단,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경우, 현장 실습이 있는 학년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4) 전문 교과

가) 전문 교과 I

〈표 6〉

교과(군)	과 목			
과학 계열	심화 수학 I	심화 수학 II	고급 수학 I	고급 수학 II
	고급 물리학	고급 화학	고급 생명과학	고급 지구과학
	물리학 실험	화학 실험	생명과학 실험	지구과학 실험
	정보과학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 연구	생태와 환경
체육 계열	스포츠 개론	체육과 진로 탐구	체육 지도법	육상 운동
	체조 운동	수상 운동	개인·대인 운동	단체 운동
	체육 전공 실기 기초	체육 전공 실기 심화	체육 전공 실기 응용	
	스포츠 경기 체력	스포츠 경기 실습	스포츠 경기 분석	
예술 계열	음악이론	음악사	시창·청음	음악 전공 실기
	합창	합주	공연실습	
	미술 이론	미술사	드로잉	평면 조형
	입체 조형	매체 미술	미술 전공 실기	
	무용의 이해	무용과 몸	무용 기초 실기	무용 전공 실기
	무용 음악 실습	안무	무용과 매체	무용 감상과 비평
	문예 창작 입문	문학 개론	문장론	문학과 매체
	고전문학 감상	현대문학 감상	시 창작	소설 창작
	극 창작			
	연극의 이해	연기	무대기술	연극 제작 실습
	연극 감상과 비평	영화의 이해	영화기술	시나리오
	영화 제작 실습	영화 감상과 비평		
	사진의 이해	기초 촬영	암실 실기	중급 촬영
	사진 표현 기법	영상 제작의 이해	사진 영상 편집	사진 감상과 비평
외국어 계열	심화 영어 회화 I	심화 영어 회화 II	심화 영어 I	심화 영어 II
	심화 영어 독해 I	심화 영어 독해 II	심화 영어 작문 I	심화 영어 작문 II
	전공 기초 독일어	독일어 회화 I	독일어 회화 II	독일어 독해와 작문 I
	독일어 독해와 작문 II	독일어권 문화		
	전공 기초 프랑스어	프랑스어 회화 I	프랑스어 회화 II	프랑스어 독해와 작문 I
	프랑스어 독해와 작문 II	프랑스어권 문화		
	전공 기초 스페인어	스페인어 회화 I	스페인어 회화 II	스페인어 독해와 작문 I
	스페인어 독해와 작문 II	스페인어권 문화		
	전공 기초 중국어	중국어 회화 I	중국어 회화 II	중국어 독해와 작문 I
	중국어 독해와 작문 II	중국 문화		
	전공 기초 일본어	일본어 회화 I	일본어 회화 II	일본어 독해와 작문 I
	일본어 독해와 작문 II	일본 문화		

교과(군)	과 목			
외국어 계열	전공 기초 러시아어	러시아어 회화 I	러시아어 회화 II	러시아어 독해와 작문 I
	러시아어 독해와 작문 II	러시아어 문화		
	전공 기초 아랍어	아랍어 회화 I	아랍어 회화 II	아랍어 독해와 작문 I
	아랍어 독해와 작문 II	아랍어 문화		
	전공 기초 베트남어	베트남어 회화 I	베트남어 회화 II	베트남어 독해와 작문 I
	베트남어 독해와 작문 II	베트남어 문화		
국제 계열	국제 정치	국제 경제	국제법	지역 이해
	한국 사회의 이해	비교 문화	세계 문제와 미래 사회	국제 관계와 국제기구
	현대 세계의 변화	사회 탐구 방법	사회과제 연구	

① 전문 교과 I 과목의 이수 단위는 시·도 교육감이 정한다.

② 국제 계열 고등학교에서 이수하는 외국어 과목은 외국어 계열 과목에서 선택하여 이수한다.

나) 전문 교과II

〈표 7〉

교과(군)	과목군			기준 학과	
	전문 공통 과목	기초 과목	실무 과목		
경영·금융	성공적인 직업생활	상업 경제 기업과 경영 사무 관리 회계 원리 회계 정보 처리 시스템 기업 자원 통합 관리 세무 일반 유통 일반 국제 상무 비즈니스 영어 금융 일반 보험 일반 마케팅과 광고 창업 일반 커뮤니케이션 전자 상거래 일반	총무 비서 사무 행정 회계 실무 구매 조달 공정 관리 공급망 관리 수출입 관리 금융 상품 세일즈 증권 거래 업무 보험 모집 고객 관리 매장 판매	노무 관리 인사 예산·자금 세무 실무 자재 관리 품질 관리 물류 관리 창구 사무 카드 영업 무역 금융 업무 손해 사정 전자 상거래 실무 방문 판매	경영·사무과 재무·회계과 유통과 금융과 판매과
보건·복지		인간 발달 보육 원리와 보육 교사 보육 과정 아동 생활 지도 아동 복지 보육 실습 생활 서비스 산업의 이해 복지 서비스의 기초	영·유아 놀이 지도 영·유아 건강·안전·영양 지도 사회 복지 시설 실무	영·유아 교수 방법 대인 복지 서비스	보육과 사회복지과 보건간호과

교과(군)	과목군			기준 학과
	전문 공통 과목	기초 과목	실무 과목	
디자인· 문화 콘텐츠		사회 복지 시설의 이해 공중 보건 간호의 기초 보건 간호 기초 간호 임상 실무		
		디자인 제도 디자인 일반 조형 색채 관리 컴퓨터 그래픽 미디어 콘텐츠 일반 문화 콘텐츠 산업 일반 영상 제작 기초	시각 디자인 실내 디자인 영화 콘텐츠 제작 광고 콘텐츠 제작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 캐릭터 제작	제품 디자인 방송 콘텐츠 제작 음악 콘텐츠 제작 게임 콘텐츠 제작 만화 콘텐츠 제작 스마트 문화 앱 콘텐츠 제작
				디자인과 문화콘텐츠과
미용· 관광· 레저		미용의 기초 미용 안전·보건 관광 일반 관광 사업 관광 서비스 관광 영어 관광 일본어 관광 중국어	헤어 미용 메이크업 여행 서비스 실무 호텔 식음료 서비스 실무	피부 미용 네일 미용 호텔 객실 서비스 실무 카지노·유원 시설 서비스 실무
음식 조리		식품과 영양 급식 관리	한국 조리 중식 조리 소물리에 바텐더	서양 조리 일식 조리 바리스타
건설		공업 일반 기초 제도 토목 일반 토목 도면 해석과 제도 토목 기초 실습 건축 일반 건축 도면 해석과 제도 건축 기초 실습 조경	토공·포장 시공 지적 건축 목공 시공 창호 시공 철근 콘크리트 시공 조경 시공 조경 설계	측량 공간 정보 구축 건축 도장 시공 단열·수장 시공 건축 마감 시공 조경 관리
기계		기계 제도 기계 기초 공작 전자 기계 이론 기계 일반 자동차 일반 냉동 공조 일반 유체 기계 자동차 기관		기계과 냉동공조과 자동차과 조선과 항공과

교과(군)	과목군			기준 학과	
	전문 공통 과목	기초 과목	실무 과목		
		자동차 새시 자동차 전기·전자 제어 선체 도면 독도와 제도 선박 이론 선박 구조 선박 건조 항공기 일반 항공기 실무 기초	기계요소 설계 선반 가공 연삭 가공 측정 방전 가공 워터제트 가공 사출 금형 설계 사출 금형 품질 관리 프레스 금형 설계 프레스 금형 품질 관리 기계 수동 조립 건설 광산 기계 설치·정비 공작 기계 설치·정비 농업용 기계 설치·정비 냉동 공조 설계 냉동 공조 유지·보수 관리 자동차 엔진 정비 자동차 차체 정비 자동차 정비 검사 선체 조립 선체 품질 관리 전장 생산 선실 의장 생산 항공기 기체 제작 항공기 전기·전자 장비 제작 항공기 가스 터빈 엔진 정비 항공기 프로펠러 정비 항공기 전기·전자 장비 정비 항공기 정비 관리	기계 제어 설계 밀링 가공 컴퓨터 활용 생산 성형 가공 레이저 가공 플라스마 가공 사출 금형 제작 사출 금형 조립 프레스 금형 제작 프레스 금형 조립 운반 하역 기계 설치·정비 섬유 기계 설치·정비 고무 플라스틱 기계 설치·정비 승강기 설치·정비 냉동 공조 설치 자동차 전기·전자 장치 정비 자동차 새시 정비 자동차 도장 선체 가공 선박 도장 기장 생산 선장 생산 선체 생산 설계 항공기 엔진·프로펠러 제작 항공기 기체 정비 항공기 왕복 엔진 정비 항공기 계통 정비 헬리콥터 정비	
		재료 시험 세라믹 재료 세라믹 원리·공정 재료 일반 산업 설비	주조 제강 금속 재료 가공 압연 도금·도장 광학 재료 생체 세라믹 재료 내화물 도자기 탄소 제품 배관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제선 금속 열처리 금속 재료 신뢰성 시험 비철 금속 제련 전기·전자 재료 내열 구조 재료 유리·법랑 연삭재 시멘트 판금 제관 피복 아크 용접 이산화탄소·가스 메탈 아크 용접 로봇 용접	

교과(군)	과목군			기준 학과
	전문 공통 과목	기초 과목	실무 과목	
화학 공업		공업 화학 제조 화학 단위 조작	화학 분석 공정 제어 고분자 제품 제조 정밀 화학제품 제조 플라스틱 성형과 가공	화학 물질 관리 석유 화학제품 무기 공업 화학 바이오 화학제품 제조 생산 품질 관리와 설비 관리
섬유· 의류		섬유 재료 섬유 공정 염색·가공 기초 의류 재료 관리 패션 디자인의 기초 의복 구성의 기초 패션 마케팅	방직 제포 텍스타일 디자인 생산 현장 관리 패턴 메이킹 서양 의복 구성과 생산 가죽·모피 디자인과 생산 한국 의복 구성과 생산	방사·사가공 염색·가공 구매 생산 관리 패션 디자인의 실제 비주얼 머천다이징 니트 의류 생산 패션 소품 디자인과 생산 패션 상품 유통 관리
전기· 전자		전기 회로 전기 기기 전기 설비 자동화 설비 전기·전자 기초 전자 회로 전기·전자 측정 디지털 논리 회로	수력 발전 설비 운용 원자력 발전 설비 운용 전기 기기 제작 외선 공사 자동 제어 시스템 운용 철도 신호 제어 시공 운용 전자 부품 개발 전자 기기 개발 정보 통신 기기 소프트웨어 개발 반도체 제조 디스플레이 생산 로봇 하드웨어 개발	화력 발전 설비 운용 송변전 배전 설비 운용 내선 공사 자동 제어 기기 제작 전기 철도 시공 운용 전자 부품 생산 전자 기기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 통신 기기 개발 반도체 개발 반도체 재료 제조 디스플레이 장비 부품 개발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 통신		통신 일반 통신 시스템 정보 통신 방송 일반 정보 처리와 관리 컴퓨터 구조 프로그래밍 자료 구조 컴퓨터 시스템 일반 컴퓨터 네트워크	무선 통신 구축·운용 초고속망 서비스 관리 운용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컴퓨터 보안 소프트웨어 구조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유선 통신 구축·운용 방송 제작 시스템 운용 시스템 운영 및 네트워크 운영 시스템 프로그래밍 응용 프로그래밍
식품 가공		식품 과학 식품 위생 식품 가공 기술 식품 분석	곡물 가공 수산 식품 가공 두류 식품 가공 건강 기능 식품 가공 김치·반찬 가공 제과	식품 품질 관리 면류 식품 가공 축산 식품 가공 유제품 가공 음료·주류 가공 제빵

교과(군)	과목군			기준 학과	
	전문 공통 과목	기초 과목	실무 과목		
인쇄·출판·공예		인쇄 일반 디지털 이미지 재현 출판 일반 공예 일반 공예 재료와 도구	프리프레스 특수 인쇄 출판 편집 도자기 공예 석공예 보석 감정	평판 인쇄 후가공 금속 공예 목공예 섬유 공예 보석 디자인	인쇄·출판과 공예과
환경·안전		환경 화학 기초 인간과 환경 산업 안전 보건 기초	환경 보건 관리 환경 생태 관리 환경 측정 관리 전기 안전 관리 화공 안전 관리	환경 공정 관리 생활 환경 관리 기계 안전 관리 건설 안전 관리 비파괴 검사	환경보건과 산업안전과
농림·수산 해양		농업 이해 농업 기초 기술 농업 경영 재배 농촌과 농지 개발 농산물 유통 농산물 유통 관리 농산물 거래 관광 농업 환경 보전 친환경 농업 생명 공학 기술 농업 정보 관리 농산 식품 가공 원예 생산 자재 조경 식물 관리 화훼 장식 기초 산림 휴양 산림 자원 임산 가공 동물 자원 반려동물 관리 실험 동물과 기타 가축 농업 기계 농업 기계 공작 농업 기계 운전·작업 농업과 물 농업 토목 제도·설계 농업 토목 시공·측량 해양의 이해 수산·해운 산업 기초	수도작 재배 종자 생산 농촌 체험 상품 개발 채소 재배 화훼 재배 임업 종묘 산림 이용 임산물 생산 펄프 제조 가금 사육 한우 사육 말 사육 사료 생산 연안 어업 원양 어업 염 생산 어업 환경 개선 내수면 양식 수산 생물 질병 관리 어촌 체험 상품 개발	전특작 재배 농업 환경 개선 농촌 체험 시설 운영 과수 재배 화훼 장식 산림 조성 산림 보호 버섯 재배 목재 가공 젖소 사육 돼지 사육 종축 동물 약품 제조 근해 어업 내수면 어업 어업 자원 관리 해면 양식 수산 종묘 생산 어촌 체험 시설 운영 수상 레저 기구 조종	농업과 원예과 산림자원과 동물자원과 농업기계과 농업토목과 해양생산과 수산양식과 해양레저과

교과(군)	과목군			기준 학과
	전문 공통 과목	기초 과목	실무 과목	
		해양 생산 일반 해양 정보 관리 해양 오염·방제 전자 통신 기초 전자 통신 운용 수산 일반 수산 생물 수산 양식 일반 수산 경영 수산물 유통 양식 생물 질병 해양 환경과 자원 해양 레저 관광 요트 조종 잠수 기술		
선박 운항		항해 기초 해사 일반 해사 법규 선박 운용 선화 운송 항만 물류 일반 해사 영어 항해사 직무 해운 일반 열기관 선박 보조 기계 선박 전기·전자 기관 실무 기초 기관 직무 일반	항해 선박 기관 운전 선박 통신 선박 갑판 관리	항해과 기관과

① 전문 교과Ⅱ 과목의 이수 단위는 시·도 교육감이 정한다.

② 전문 공통 과목, 기초 과목, 실무 과목은 모든 교과(군)에서 선택할 수 있다.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1) 공통 사항

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총 이수 단위는 204단위이며 교과(군) 180단위, 창의적 체험활동 24단위(408시간)로 나누어 편성한다.

나) 학교는 3년간 이수해야 할 과목을 학년별, 학기별로 편성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하도록 한다.

- 다) 학교는 학습 부담을 적정화하고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기당 이수 과목 수를 8개 이내로 편성한다. 단, 과학탐구실험, 체육·예술·교양 교과목, 진로 선택 과목, 실기·실습 과목은 이수 과목 수 제한에서 제외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라) 과목의 이수 시기와 단위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단, 공통 과목은 해당 교과(군)의 선택 과목 이수 전에 편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마) 선택 과목 중에서 위계성을 갖는 과목의 경우, 계열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편성한다. 단, 학교의 실정 및 학생의 요구, 과목의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바) 학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이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선택 과목의 개설을 요청할 경우 해당 과목을 개설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 사)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선택 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그 과목을 개설한 다른 학교에서의 이수를 인정한다.
- 아) 학교는 필요에 따라 이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과목 외에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자) 학교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지역사회의 학습장에서 이루어진 학습을 이수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 차) 학교는 필요에 따라 대학과목 선이수제의 과목을 개설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교육과정이나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 카) 학교는 필요에 따라 교과외 총 이수 단위를 증배 운영할 수 있다. 단, 특수 목적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는 전문 교과외 과목에 한하여 증배 운영할 수 있다.
- 타) 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을 학생들의 발달 수준,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고, 학생의 진로와 연계하여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파) 학교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적합한 과목을 체계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진로지도와 연계하여 선택 과목 이수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2) 일반 고등학교(자율 고등학교 포함)

- 가) 교과(군)의 총 이수 단위 180단위 중 필수 이수 단위는 94단위 이상으로 한다.
- 나) 학교는 교육과정을 보통 교과 중심으로 편성하되, 필요에 따라 전문 교과외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 다) 학교는 학생이 이수하기를 희망하는 일반 선택 과목을 개설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모든 학생이 보통 교과외의 진로 선택 과목에서 3개 과목 이상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 라) 학교가 제2외국어 과목을 개설할 경우, 2개 이상의 과목을 동시에 개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마) 특정 교과를 중심으로 중점 학교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율 편성 단위의 50% 이상을 해당 교과목으로 편성할 수 있다.
- 바) 체육, 음악, 미술 등의 과정을 개설하는 학교의 경우, 필요에 따라 지역 내 중점 학교 및 지역사회 학습장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사) 학교는 직업에 관한 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3) 특수 목적 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제외)

- 가) 특수 목적 고등학교는 교과(군)의 총 이수 단위 180단위 중 보통 교과는 85단위 이상 편성하며, 전공 관련 전문 교과Ⅰ을 72단위 이상 편성한다.
- 나) 보통 교과의 선택 과목은 이와 내용이 유사하거나 관련되는 전문 교과Ⅰ의 과목으로 대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다) 외국어 계열 고등학교에서는 전문 교과Ⅰ의 총 이수 단위의 60% 이상을 전공 외국어로 하고, 전공 외국어를 포함한 2개 외국어로 전문 교과Ⅰ의 과목을 편성해야 한다.
- 라) 국제 계열 고등학교는 전문 교과Ⅰ의 국제 계열 과목과 외국어 계열 과목을 72단위 이상 이수하되, 국제 계열 과목을 50% 이상 편성한다.
- 마) 이 교육과정에 명시되지 않은 계열의 교육과정은 유사 계열의 교육과정에 준한다. 부득이 새로운 계열의 설치 및 그에 따른 교육과정을 편성할 경우와 학교의 실정에 따라 새로운 과목을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4)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 가) 학교는 산업수요와 직업의 변화를 고려하여 학과를 개설하고, 학과별 인력 양성 유형, 학생의 취업 역량과 경력 개발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 ① 학교는 교과(군)의 총 이수 단위 180단위 중 보통 교과를 66단위 이상, 전문 교과Ⅱ를 86단위 이상 편성한다.
 - ② 학교는 두 개 이상의 교과(군)의 과목을 선택하여 전문 교과Ⅱ를 편성·운영할 수 있다.
 - ③ 실무 과목을 편성할 경우, 해당 과목의 내용 영역(능력단위)을 기준으로 학년별, 학기별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④ 실무 과목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성취기준에 적합하게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나) 학과는 필요한 경우 세부 전공 또는 자격 취득 과정을 개설할 수 있으며, 세부 전공 또는 자격 취득 과정별로 전문 교과를 편성할 수 있다.
- 다) 전문 교과Ⅱ의 기초가 되는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경우, 이를 관련되는 보통 교과Ⅰ의 선택 과목 이수로 간주할 수 있다.
- 라) 내용이 유사하거나 관련되는 보통 교과Ⅰ의 선택 과목과 전문 교과Ⅱ의 과목을 전문 교과Ⅱ의 과목으로 교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마) 보통 교과Ⅰ의 진로 선택 과목 중 실용 국어, 실용 수학, 실용 영어는 해당 교과(군)의 공통 과목 이수 전에 편성·운영할 수 있다.
- 바) 학교는 산업계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전문 교과Ⅱ의 교과 내용에 주제나 내용 요소를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단, 실무 과목의 경우에는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내용 영역(능력단위)중 일부를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사) 다양한 직업적 체험과 현장 적응력 제고 등을 위해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경험하고 적용하는 현장 실습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운영해야 한다.
- ① 현장 실습은 교육과정과 관련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며, 학교와 산업계가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실습의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도록 한다.
- ② 현장 실습은 지역사회 유관 기관들과 연계하여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청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
- 아) 학교는 실습 관련 과목을 지도할 경우 사전에 수업 내용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안전 장구 착용 등 안전 조치를 취한다.
- 자)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의 진로 및 경력 개발, 인성 계발, 취업 역량 제고 등을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차) 이 교육과정에 명시되지 않은 교과(군)의 교육과정은 유사한 교과(군)의 교육과정에 준한다. 부득이 새로운 교과(군)의 설치 및 그에 따른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자 할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카) 학교가 필요에 따라 이 교육과정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실무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할 경우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해야 하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산업계의 수요와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산업계의 수요를 교육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교육과정과 다르게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 파)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외의 학교에서 직업교육 관련 학과를 설치·운영할 경우,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편성·운영 기준에 따른다.

5. 특수한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 가. 초·중·고등학교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이 교육과정에 따라서 편성·운영한다.
- 나. 국가가 설립 운영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해당 시·도 교육청의 편성·운영 지침을 참고하여 학교장이 편성한다.
- 다. 공민학교, 고등 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근로 청소년을 위한 특별 학급 및 산업체 부설 학교, 기타 특수한 학교는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특성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운영한다.
- 라. 야간 수업을 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이 교육과정을 따르되, 다만 1시간의 수업을 40분으로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마.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따르되,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이 교육과정의 편제와 시간·단위 배당 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1) 편제와 시간·단위 배당 기준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되, 중학교는 2,652시간 이상, 고등학교는 162단위 이상 이수하도록 한다.
 - 2) 학교 출석 수업 일수는 연간 20일 이상으로 한다.
- 바. 특성화 학교, 자율 학교, 재외한국학교 등 법령에 따라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이 부여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따른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청(재외한국학교의 경우 교육부)의 지침에 따른다.
- 사. 교육과정의 연구 등을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는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교육과정의 기준과는 다르게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III.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1. 기본 사항

- 가. 학교는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 실정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 나.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학년(군)별 교육과정 및 교과(목)별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 다. 학교 교육과정은 모든 교원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 편성한다.
- 라. 교육과정의 합리적 편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원, 교육과정 전문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이 위원회는 학교장의 교육과정 운영 및 의사 결정에 관한 자문의 역할을 담당한다. 단,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산업계 인사가 참여할 수 있고, 통합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의 경우에는 특수교사가 참여할 것을 권장한다.
- 마.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때에는 교원의 조직, 학생의 실태, 학부모의 요구, 지역사회의 실정 및 교육 시설·설비 등 교육 여건과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 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 배열은 반드시 학습의 순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역의 특수성, 계절 및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요구, 교사의 필요에 따라 각 교과목의 학년 군별 목표 달성을 위한 지도 내용의 순서와 비중, 방법 등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사. 학교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계획적으로 활용한다.
- 아. 학교는 학생의 요구, 학교의 실정 및 특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 활동, 시간 등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자. 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실질적 체험학습이 되도록 지역사회의 유관 기관과 연계·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차.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 카. 학교는 가정 및 지역과 연계하여 학생이 건전한 생활 태도와 행동 양식을 가지고 학습에 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타. 학교는 동학년 모임, 교과별 모임, 현장 연구, 자체 연수 등을 통해서 교사들의 교육 활동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파.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적절성과 효과성 등을 자체 평가하여 문제점과 개선점을 추출하고, 다음 학년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그 결과를 반영한다.

2. 교수·학습

가. 학교는 교과목별 성취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고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1) 교과와 학습은 단편적 지식의 암기를 지양하고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의 심층적 이해에 중점을 둔다.
- 2) 각 교과와 학습의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 및 기능이 학생의 발달 단계에 따라 그 폭과 깊이를 심화할 수 있도록 수업을 체계적으로 설계한다.
- 3) 학생의 융합적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교과 내, 교과 간 내용 연계성을 고려하여 지도한다.
- 4) 실험, 관찰, 조사, 실측, 수집, 노작, 견학 등의 직접 체험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 5) 개별 학습 활동과 함께 소집단 공동 학습 활동을 통하여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협동학습 경험을 충분히 제공한다.
- 6) 학생이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토의·토론 학습을 활성화한다.
- 7) 학생에게 학습 내용을 실제적 맥락 속에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다.
- 8)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학습 과정과 학습 전략을 점검하고 개선하며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나. 학교는 효과적인 교수·학습 환경 설계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둔다.

- 1) 교사와 학생 간, 학생과 학생 간 상호 신뢰와 협력이 가능한 교수·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 2)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하고, 학교의 여건과 학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학습 집단을 구성하여 학생 맞춤형 수업을 하도록 한다.
- 3) 학교는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특별 보충 수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제반 운영 사항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 4) 각 교과와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 교실제 운영을 활성화한다.
- 5) 학교는 교과용 도서 이외에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개발한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 6) 실험 실습 및 실기 지도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 및 기계 기구,약품, 용구 사용의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3. 평 가

가. 평가는 학생의 교육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 1) 학교는 학생에게 평가 결과에 대한 적절한 정보 제공과 추수 지도를 통해 학생이 자신의 학습을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2) 학생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수업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나. 학교와 교사는 성취기준에 근거하여 학교에서 중요하게 지도한 내용과 기능을 평가하며 교수·학습과 평가 활동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1) 학생에게 배울 기회를 주지 않은 내용과 기능은 평가하지 않도록 한다.
- 2) 학습의 결과뿐만 아니라 학습의 과정을 평가하여 모든 학생이 교육 목표에 성공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
- 3) 학교는 학생의 인지적 능력과 정의적 능력에 대한 평가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다. 학교는 교과와 성격과 특성에 적합한 평가 방법을 활용한다.

- 1) 서술형과 논술형 평가 및 수행평가의 비중을 확대한다.
- 2) 정의적, 기능적, 창의적인 면이 특히 중시되는 교과는 타당한 평정 기준과 척도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 3) 실험·실습의 평가는 교과목의 성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한다.
- 4) 창의적 체험활동은 내용과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의 주안점을 학교에서 결정하여 평가한다.
- 5) 전문 교과Ⅱ의 실무 과목은 성취 평가제와 연계하여 내용 요소를 구성하는 ‘능력단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기회의 제공

- 가. 교육 활동 전반을 통하여 남녀의 역할, 학력과 직업, 종교, 이전 거주지, 인종, 민족 등에 관한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지도한다.
- 나. 학습 부진 학생, 장애를 가진 학생,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 귀국 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 등이 학교에서 충실한 학습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한다.
- 다. 특수 교육 대상 학생을 위해 특수 학급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학생의 장애 특성 및 정도를 고려하여 이 교육과정을 조정하여 운영하거나 특수 교육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 라.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특별 학급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한국어 능력을 고려하여 이 교육과정을 조정하여 운영하거나,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한국어 교육과정은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주당 10시간 내외에서 운영할 수 있다.
- 마. 학교가 종교 과목을 개설할 때에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허용되는 종립 학교의 경우 학생·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단수로 개설할 수 있다.

IV. 학교 교육과정 지원

1. 국가 수준의 지원

이 교육과정의 원활한 편성·운영을 위하여 국가 수준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가.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지원 활동과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활동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나. 이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학업 성취도 평가, 학교와 교육 기관 평가,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활용한다.

1) 교과별, 학년(군)별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학력의 질 관리와 교육과정의 적절성 확보 및 개선에 활용한다.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초 학력과 평생 학습 역량의 강화를 위한 학업 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는 기초 학력과 직업 기초 능력의 향상, 취업 역량 강화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2)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교육청의 교육과정 지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학교와 교육청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3)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지원 체제의 적절성 및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다. 학교에서 평가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개발하여 학교에 제공한다.

1) 교과별로 성취 기준에 따른 평가 기준을 개발·보급하여 학교가 교과 교육과정의 목표에 부합되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2) 교과별 평가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 방법, 절차, 도구 등을 개발하여 학교에 제공한다.

라.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가 기준 학과별 국가직무능력표준이나 직무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해 관련 교과용 도서와 교수·학습 자료 개발, 평가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

바. 이 교육과정이 교육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청 수준의 교원 연수와 전국 단위의 교과 연구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사. 학교 교육과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 시설 및 교원 수급 계획을 마련하여 제시한다.

2. 교육청 수준의 지원

이 교육과정의 원활한 편성·운영을 위하여 교육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원한다.

가. 시·도의 특성과 교육적 요구를 구현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 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한다.

- 1) 이 위원회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와 자문 기능을 담당한다.
- 2) 이 위원회에는 교원, 교육 행정가, 교육학 전문가, 교과 교육 전문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산업체 인사 등이 참여할 수 있다.

나. 지역의 특수성, 교육의 실태, 학생·교원·주민의 요구와 필요 등을 반영하여 교육청 단위의 교육 중점을 설정하고, 학교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시·도 교육청 수준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안내한다.

다. 학교가 새 학년도 시작에 앞서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교원의 전보를 적기에 시행한다.

라.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의 인정, 개발, 보급을 위해 노력한다.

마. 중학교 자유학기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자료의 개발·보급, 교원의 연수,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포함된 자유학기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바. 학교가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교과목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학교에 제공하고 학교로 하여금 필요한 사전 절차를 밟도록 지원한다.

사. 학교가 지역사회의 유관 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협력해서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관내 학교가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자원 목록'을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아. 학교 교육과정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학생의 배정, 교원의 수급 및 순회, 학교 간 시설과 설비의 공동 활용, 자료의 공동 개발과 활용에 관하여 학교 간 및 교육지원청 간의 협조 체제를 구축한다.

자. 전·입학, 귀국 등에 따라 공통 교육과정의 교과와 고등학교 공통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이 해당 교과를 이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주고,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공공성 있는 사회 교육 시설을 통해 이수한 과정을 인정해 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차. 귀국자 및 다문화 가정 학생의 교육 경험의 특성과 배경을 고려하여 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

카.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 학습 부진 학생,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교육 기회를 마련하고 지원한다.

타.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원 연수, 교육과정 컨설팅, 연구학교 운영 및 연구회 활동 지원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1) 교원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능력과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지도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원에 대한 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2) 학교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편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과정 컨설팅 지원단 등 지원 기구를 운영하며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각종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한다.
 - 3)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개선과 수업 개선을 위해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연구 교사 제 및 교과별 연구회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파. 학교가 이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지원한다.
- 1)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해서 교육 시설, 설비, 자료 등을 정비하고 확충하는 데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 2)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원 수급, 시설 확보, 프로그램 개발 등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 3) 복식 학급 운영 등 소규모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원의 배치, 학생의 교육받을 기회 확충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 4) 수준별 수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하며, 기초학력 향상과 학습 결손 보충이 가능하도록 ‘특별 보충 수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 5) 지역사회와 학교의 여건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학교에서 돌볼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고, 이에 대해 충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 6) 개별 학교의 희망과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 내 학교 간 개설할 집중 과정을 조정하고, 그 편성·운영을 지원한다. 특히 소수 학생이 지망하는 집중 과정을 개설할 학교를 지정하고, 원활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 7) 인문학적 소양 및 통합적 읽기 능력 함양을 위해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도록 다양한 지원을 한다.
 - 8)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가 산업체와 협력하여 특성화된 교육과정과 실습 과목을 편성·운영할 경우, 학생의 현장 실습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 하. 학교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실시한다.
- 1) 학교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실태와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효과적인 교육과정의 운영과 개선 및 질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 2)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질 관리와 교육과정 편성·운영 체제의 적절성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업 성취도 평가, 학교 교육과정 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활용한다.
 - 3) 교육청 수준의 학교 교육과정 지원에 대한 자체 평가와 교육과정 운영 지원 실태에 대한 점검을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부록 III]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신·구 비교

2009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3-7호)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80호)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과정의 성격
이 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고시한 것으로, 초·중등학교의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며, 초·중등학교에서 편성, 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적,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이 교육과정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이 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고시한 것으로, 초·중등학교의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며, 초·중등학교에서 편성·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이 교육과정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가.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학교,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육과정이다.	가. <좌동>
나.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이다.	나. <좌동>
다. 교육청과 학교, 교원·학생·학부모가 함께 실현해 가는 교육과정이다.	다.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 교원·학생·학부모가 함께 실현해 가는 교육과정이다.
라. 학교 교육 체제를 교육과정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라. 학교 교육 체제를 교육과정 중심으로 구현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마. 교육의 과정과 결과의 질적 수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마. 학교 교육의 질적 수준을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I.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I.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1. 추구하는 인간상	1. 추구하는 인간상
우리나라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이념과 교육 목적을 바탕으로,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
가.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의 발달과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가.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는 자주적인 사람
나.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새로운 발상과 도전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	나.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다양한 발상과 도전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인 사람
다.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	다.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교양 있는 사람
라.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	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

2009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3-7호)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80호)
〈신설〉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 교과 교육을 포함한 학교 교육 전 과정을 통해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핵심역량은 다음과 같다.
〈신설〉	가.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관리 역량 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식정보처리 역량 다.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 사고 역량 라.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는 심미적 감성 역량 마.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의사소통 역량 바.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
2. 교육과정 구성의 방침	2.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한 이 교육과정 구성의 방침은 다음과 같다. 가.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기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자. 모든 교육 활동을 통해 인성 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이 교육과정은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추구해 온 교육 이념과 인간상을 바탕으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함양하여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한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은 다음과 같다.
〈신설〉	가. 인문·사회·과학기술 기초 소양을 균형 있게 함양하고,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선택학습을 강화한다. 나. 교과의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구조화하고 학습량을 적정화하여 학습의 질을 개선한다. 다. 교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하여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르고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한다. 라.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를 강화하여 학생이 자신의 학습을 성찰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3-7호)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80호)
〈신설〉	마. 교과와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수·학습 및 평가의 일관성을 강화한다. 바.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하여 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초 역량과 직무 능력을 함양한다.
〈신설〉	3. 학교 급별 교육 목표
〈‘II-1-가’ 이동〉 가. 초등학교 교육목표 초등학교의 교육은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능력 배양과 기본 생활 습관 형성, 바른 인성의 함양에 중점을 둔다.	가. 초등학교 교육 목표 초등학교 교육은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습관 및 기초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II-1-가-(1)’ 이동·수정〉 (1) 풍부한 학습 경험을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균형 있게 자랄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일의 세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한다.	1)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르며, 풍부한 학습 경험을 통해 자신의 꿈을 키운다.
〈‘II-1-가-(2)’ 이동·수정〉 (2) 학습과 생활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기초 능력을 기르고, 이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상상력을 키운다.	2) 학습과 생활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기초 능력을 기르고, 이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상상력을 키운다.
〈‘II-1-가-(3)’ 이동·수정〉 (3) 우리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문화를 향유하는 올바른 태도를 기른다.	3)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기고 자연과 생활 속에서 아름다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심성을 기른다.
〈‘II-1-가-(4)’ 이동·수정〉 (4)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하며 타인과 공감하고 협동하는 태도, 배려하는 마음을 기른다.	4) 규칙과 질서를 지키고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서로 돕고 배려하는 태도를 기른다.
〈‘II-2-가’ 이동〉 가. 중학교 교육목표 중학교의 교육은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과 바른 인성, 민주 시민의 자질 함양에 중점을 둔다.	나. 중학교 교육 목표 중학교 교육은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 및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II-2-가-(1)’ 이동·수정〉 (1) 심신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발달을 토대로 바른 인성을 기르고,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익혀 적극적으로 진로를 탐색한다.	1)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바탕으로 자아존중감을 기르고,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통해 적극적으로 삶의 방향과 진로를 탐색한다.
〈‘II-2-가-(2)’ 이동·수정〉 (2)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문제 해결력을 바탕으로 창의적 사고력을 기른다.	2)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 및 문제 해결력을 바탕으로, 도전정신과 창의적 사고력을 기른다.

2009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3-7호)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80호)
〈‘II-2-가-(3)’ 이동·수정〉 (3)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문화와 가치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	3)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서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와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기른다.
〈‘II-2-가-(4)’ 이동·수정〉 (4) 타인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능력, 배려하는 마음,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갖춘다.	4)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타인을 존중하고 서로 소통하는 민주 시민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II-3-가’ 이동〉 가. 고등학교 교육목표	다. 고등학교 교육 목표
고등학교 교육은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개척 능력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고등학교 교육은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개척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II-3-가-(1)’ 이동·수정〉 (1) 성숙한 자아인식을 토대로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능을 익혀 진로를 개척하며 평생학습의 기본 역량과 태도를 갖춘다.	1) 성숙한 자아인식과 바른 품성을 갖추고, 자신의 진로에 맞는 지식과 기능을 익히며 평생학습의 기본 능력을 기른다.
〈‘II-3-가-(2)’ 이동·수정〉 (2) 학습과 생활에서 새로운 이해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과 태도를 익힌다.	2)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융합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기른다.
〈‘II-3-가-(3)’ 이동·수정〉 (3) 우리의 문화를 향유하고 다양한 문화와 가치를 수용할 수 있는 자질과 태도를 갖춘다.	3) 인문·사회·과학기술 소양과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II-3-가-(4)’ 이동·수정〉 (4) 국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더불어 살아가며 협동하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4) 국가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II.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II.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1. 기본 사항
〈‘I-2-나’ 항 이동·수정〉 나. 이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공통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선택 교육과정으로 편성한다.	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공통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한다.
〈‘I-2-다’ 항 이동·수정〉 다.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학년 간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학년군을 설정한다.	나. 학년 간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학년군을 설정한다.
〈‘I-2-라’ 항 이동·수정〉 라. 공통 교육과정의 교과는 교육 목적상의 근접성, 학문 탐구 대상 또는 방법상의 인접성, 생활양식에서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교과군으로 재분류한다.	다. 〈좌동〉

2009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3-7호)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80호)
〈‘II-2-마’ 항 이동·수정〉 마. 선택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기초영역 학습 강화와 진로 및 적성 등을 감안한 적정 학습이 가능하도록 4개의 교과 영역으로 구분하고, 필수이수 단위를 제시한다.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보통 교과의 4개 교과 영역과 전문 교과로 구분하고 필수 이수 단위를 제시한다.	라.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기초 영역 학습을 강화하고 진로 및 적성에 맞는 학습이 가능하도록 4개의 교과 영역으로 구분하고 교과(군)별 필수 이수 단위를 제시한다.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보통 교과의 4개 교과 영역과 전문 교과로 구분하고 필수 이수 단위를 제시한다.
〈신설〉	마. 고등학교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구분하며, 학생들의 기초 소양 함양과 기본 학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통 교과에 공통 과목을 개설하여 모든 학생이 이수하도록 한다.
〈‘I-2-바’ 항 이동·수정〉 바.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 축소를 통한 학습부담의 적정화와 의미 있는 학습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집중이수를 확대한다.	바. 학습 부담을 적정화하고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조정하여 집중이수를 실시할 수 있다.
〈‘I-2-사’ 항 이동·수정〉 사. 기존의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하여 배려와 나눔의 실천을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신설한다.	사.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의 소질과 잠재력을 계발하고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데에 중점을 둔다.
〈‘I-2-아’ 항 이동〉 아. 학교 교육과정 평가, 교과 평가의 개선, 국가 수준의 학업 성취도 평가 실시 등을 통해 교육과정 질 관리 체제를 강화한다.	〈삭제〉
〈‘II-4-가-(23)’ 항 이동·수정〉 (23) 범교과 학습 주제는 관련되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도록 하고 지역 사회 및 가정과의 연계 지도에도 힘쓴다.	아. 범교과 학습 주제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지역사회 및 가정과 연계하여 지도한다.
민주 시민 교육, 인성 교육, 환경 교육, 경제 교육, 에너지 교육, 근로 정신 함양 교육, 보건 교육, 안전 교육, 성 교육, 소비자 교육, 진로 교육, 통일 교육, 한국 정체성 교육, 국제 이해 교육, 해양 교육, 정보화 및 정보 윤리 교육, 청렴·반부패 교육, 물 보호 교육, 지속 가능 발전 교육, 양성 평등 교육, 장애인 이해 교육, 인권 교육, 안전·재해 대비 교육, 저출산·고령 사회 대비 교육, 여가 활용 교육, 호국·보훈 교육, 효도·경로·전통 윤리 교육, 아동·청소년 보호 교육, 다문화 교육, 문화 예술 교육, 농업·농촌 이해 교육, 지적 재산권 교육, 미디어 교육, 의사소통·토론 중심 교육, 논술 교육, 한국 문화사 교육, 한자 교육, 녹색 교육, 독도 교육 등	안전·건강 교육, 인성 교육, 진로 교육, 민주 시민 교육, 인권 교육, 다문화 교육, 통일 교육, 독도 교육, 경제·금융 교육,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

2009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3-7호)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80호)
〈‘II-4-가-(24)’ 항 이동·수정〉 (24)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회 현안에 대해 학생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기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기 교육 지침에 따른다.	자. 학교는 필요에 따라 계기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기 교육 지침에 따른다.
II.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1. 초등학교	2. 초등학교
나. 편제와 시간 배당	가.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
(1) 편제	1) 편제
가)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	가) 〈좌동〉
① 교과(군)는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실과,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로 한다. 다만, 초등학교 1, 2학년의 교과는 국어, 수학,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로 한다.	나) 교과(군)는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실과,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로 한다. 다만, 1, 2학년의 교과는 국어, 수학,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로 한다.
②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한다.	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한다. 다만, 1, 2학년은 체험 활동 중심의 ‘안전한 생활’을 포함하여 편성·운영한다.
	2) 시간 배당 기준
① 이 표에서 1시간 수업은 40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 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등과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① 이 표에서 1시간 수업은 40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 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학년군 및 교과(군)별 시간 배당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2년간의 기준 수업 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② 〈좌동〉
③ 학년군별 총 수업 시간 수는 최소 수업 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③ 〈좌동〉
④ 실과의 수업 시간은 5~6학년 과학/실과의 수업 시수에만 포함된 것이다.	④ 〈좌동〉
다.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2) 학교는 모든 교육 활동을 통해 학생의 인성과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1) 학교는 모든 교육 활동을 통해 학생의 기본 생활 습관, 기초 학습 능력, 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9) 학교는 학생이 학년군별로 이수해야 할 학년별, 학기별 교과목을 편성하여 안내 한다.	2) 학교는 학년군별로 이수해야 할 교과를 학년별, 학기별로 편성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한다.
(3) 각 교과와 기초적, 기본적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학습되도록 계획하고, 정확한 국어사용 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특히, 기초적 국어사용 능력과 수리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 별도의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학교는 각 교과와 기초적, 기본적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학습되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특히 국어 사용 능력과 수리 능력의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3-7호)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80호)
(4)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20% 범위 내에서 시수를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학교는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교과(군)별 20% 범위 내에서 시수를 증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단,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는 기준 수업 시수를 감축하여 편성·운영할 수 없다.
(5) 초등학교에서는 학교의 여건과 교과(군)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년, 학기별로 집중 이수를 통해 학기당 이수 교과 수를 감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5) 학교는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년별, 학기별로 교과 집중 이수를 실시할 수 있다.
(7) 전입 학생이 특정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보충 학습 과정' 등을 통해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6) 전입 학생이 특정 교과를 이수하지 못할 경우,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보충 학습 과정 등을 통해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8)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복식 학급을 편성·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육 내용의 학년별 순서를 조정하거나 공통 주제를 중심으로 교재를 재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7) <좌동>
<신설>	8) 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을 학생들의 발달 수준,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년(군)별로 선택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1) 학교는 1학년 학생들의 입학 초기 적응 교육을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의 시수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입학 초기 적응 프로그램 등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9) 학교는 1학년 학생들의 입학 초기 적응 교육을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의 시간을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입학 초기 적응 프로그램 등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6) 정보통신활용 교육, 보건 교육, 한자 교육 등은 관련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10) <좌동>
(10) 예술(음악/미술)은 음악과 미술 교과를 중심으로 편성·운영한다.	<삭제>
2. 중학교	3. 중학교
나.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	가.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
(1) 편제	1) 편제
㉠ 중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	가) <좌동>
① 교과(군)는 국어, 사회(역사 포함)/도덕, 수학, 과학/기술·가정,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 선택으로 한다. 선택은 한문, 정보, 환경과 녹색성장, 생활 외국어(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보건, 진로와 직업 등 선택 과목으로 한다.	나) 교과(군)는 국어, 사회(역사 포함)/도덕, 수학, 과학/기술·가정/정보,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 선택으로 한다.
②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한다.	다) 선택 교과는 한문, 환경, 생활 외국어(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보건, 진로와 직업 등의 과목으로 한다.
	라) <좌동>

2009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3-7호)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80호)
(2) 시간 배당 기준	2) 시간 배당 기준
① 이 표에서 1시간 수업은 45분을 원칙으로,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등과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① 이 표에서 1시간 수업은 45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학년군 및 교과(군)별 시간 배당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3년간의 기준 수업 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② <좌동>
③ 총 수업 시간 수는 3년간의 최소 수업 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③ <좌동>
<신설>	④ 정보 과목은 34시간을 기준으로 편성·운영한다.
다.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1) 학교는 학생들이 이수해야 할 3년간의 교과목을 학년별, 학기별로 편성하여 안내한다.	1) 학교는 3년간 이수해야 할 교과목을 학년별, 학기별로 편성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한다.
(2) 교과(군)의 이수 시기와 수업 시수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교과(군)의 이수 시기와 그에 따른 수업 시수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수업 시수를 20% 범위 내에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목은 기준 수업 시수를 감축하여 편성할 수 없다.	3) 학교는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20% 범위 내에서 시수를 증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단,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목은 기준 수업 시수를 감축하여 편성·운영할 수 없다.
(4)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생의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8개 이내로 편성하도록 한다. 단,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목은 8개 이내에서 제외하여 편성할 수 있다.	4) 학교는 학습 부담을 적정화하고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8개 이내로 편성한다. 단,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목은 이수 교과목 수 제한에서 제외하여 편성할 수 있다.
(9) 전입 학생이 특정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보충 학습 과정' 등을 통해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5) 전입 학생이 특정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보충 학습 과정 등을 통해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6) 선택과목을 개설할 경우, 학교는 2개 이상의 과목을 개설함으로써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한다.	6) 학교가 선택 과목을 개설할 경우, 2개 이상의 과목을 개설함으로써 학생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한다.
(7) 학교는 필요한 경우 새로운 선택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새로운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 교육청의 편성·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7) 학교는 필요한 경우 새로운 선택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8) 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을 학생들의 발달 수준,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및 자유학기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들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3-7호)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80호)
〈신설〉	9) 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하고,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하여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자유학기를 운영한다.
〈신설〉	가)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는 자유학기로 운영한다.
〈신설〉	나) 자유학기에는 해당 학기의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자유학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편성·운영한다.
〈신설〉	다) 자유학기에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진로 탐색 활동, 주제 선택 활동, 동아리 활동, 예술·체육 활동 등 다양한 체험 중심의 자유학기 활동을 운영한다.
〈신설〉	라) 자유학기에는 협동 학습, 토의·토론 학습, 프로젝트 학습 등 학생 참여형 수업을 강화한다.
〈신설〉	마) 자유학기에는 중간·기말고사 등 일제식 지필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는 과정 중심의 평가를 실시한다.
〈신설〉	바) 자유학기에는 학교 내외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진로 탐색 및 설계를 지원한다.
〈신설〉	사) 학교는 자유학기의 운영 취지가 타 학기·학년에도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0) 학교는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위해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을 편성·운영한다.	10) 학교는 학생들의 심신을 건강하게 발달시키고 정서를 함양하기 위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편성·운영한다.
가)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동아리 활동으로 편성한다.	가) 〈좌동〉
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학년별 연간 34~68시간(총 136시간) 운영하며, 매 학기 편성하도록 한다. 학교 여건에 따라 연간 68시간 운영하는 학년에서는 34시간 범위 내에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체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나) 〈좌동〉
다)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시간은 교과(군)별 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감축하거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를 순증하여 확보한다. 다만, 여건이 어려운 학교의 경우 68시간 범위 내에서 기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확보할 수 있다.	다) 〈좌동〉
라)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종목과 내용은 학생들의 희망을 반영하여 학교가 정하되, 다양한 종목을 개설함으로써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한다.	라) 〈좌동〉
(8) 학교는 학생의 직업 및 진로에 대한 탐색과 선택을 돕기 위해 진로 교육을 강화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삭제〉

2009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3-7호)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80호)
(5) 예술(음악/미술)은 음악과 미술 교과를 중심으로 편성·운영한다.	〈삭제〉
3. 고등학교	4. 고등학교
나.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	가.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
(1) 편제	1) 편제
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	가) 〈좌동〉
나)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한다.	나) 〈좌동〉
〈신설〉	(1) 보통 교과
① 보통 교과는 기본 과목과 일반 과목, 심화 과목으로 구분한다. 보통 교과 영역은 기초, 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양으로 구성하며, 교과(군)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역사/도덕 포함), 과학, 체육, 예술(음악/미술), 기술·가정/제2외국어/한문/교양으로 한다.	㉓ 보통 교과의 영역은 기초, 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양으로 구성하며, 교과(군)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역사/도덕 포함), 과학, 체육, 예술, 기술·가정/제2외국어/한문/교양으로 한다.
〈신설〉	㉔ 보통 교과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구분한다. 공통 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과학탐구실험 포함)으로 하며,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으로 구분한다.
〈신설〉	(2) 전문 교과
〈신설〉	㉕ 전문 교과는 전문 교과Ⅰ과 전문 교과Ⅱ로 구분한다.
〈신설〉	㉖ 전문 교과Ⅰ은 과학, 체육, 예술, 외국어, 국제 계열에 관한 과목으로 한다.
② 전문 교과는 농생명 산업, 공업, 상업 정보, 수산·해운, 가사·실업 등에 관한 교과로 한다.	㉗ 전문 교과Ⅱ는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라 경영·금융, 보건·복지, 디자인·문화콘텐츠, 미용·관광·레저, 음식 조리, 건설, 기계, 재료, 화학 공업, 섬유·의류, 전기·전자, 정보·통신, 식품 가공, 인쇄·출판·공예, 환경·안전, 농림·수산업, 선박 운항 등에 관한 과목으로 한다. 전문 교과Ⅱ의 과목은 전문 공통 과목, 기초 과목, 실무 과목으로 구분한다.
(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한다.	다) 〈좌동〉
(2) 단위 배당 기준	2) 단위 배당 기준
(2)-① 일반 고등학교(자율 고등학교 포함)와 특수 목적 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제외)	가) 일반 고등학교(자율 고등학교 포함)와 특수 목적 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제외)
① 1단위는 50분을 기준으로 하여 17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이다.	① 〈좌동〉
② 1시간의 수업은 50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등과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1시간의 수업은 50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3-7호)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80호)
〈신설〉	③ 공통 과목은 2단위 범위 내에서 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단, 한국사는 6단위 이상 이수하되 2개 학기 이상 편성하도록 한다.
〈신설〉	④ 과학탐구실험은 이수 단위 증감 없이 편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학 계열, 체육 계열, 예술 계열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필수 이수 단위의 단위 수는 해당 교과(군)의 ‘최소 이수 단위’를 가리킨다. ④ ()안의 숫자는 특수 목적 고등학교와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가 이수할 것을 권장한다.	⑤ 필수 이수 단위의 단위 수는 해당 교과(군)의 ‘최소 이수 단위’로 공통 과목 단위수를 포함한다. 특수 목적 고등학교와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의 경우 예술 교과(군)는 5단위 이상, 생활·교양 영역은 12단위 이상 이수할 것을 권장한다.
⑦ 기초 교과 이수단위가 교과 총 이수단위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단,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이 규정을 권장한다.	⑥ 기초 교과 영역 이수 단위 총합은 교과 총 이수 단위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창의적 체험활동의 단위는 최소 이수 단위이며 ()안의 숫자는 이수 단위를 이수 시간 수로 환산한 것이다.	⑦ 〈좌동〉
⑥ 총 이수 단위 수는 고등학교 3년간 이수해야 할 ‘최소 이수 단위’를 가리킨다.	⑧ 총 이수 단위 수는 고등학교 3년간 이수해야 할 ‘최소 이수 단위’를 의미한다.
(2)-②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나)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① 1단위는 50분을 기준으로 하여 17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이다.	① 〈좌동〉
② 1시간의 수업은 50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등과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좌동〉
〈신설〉	③ 공통 과목은 2단위 범위 내에서 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단, 한국사는 6단위 이상 이수하되 2개 학기 이상 편성하도록 한다.
③ 교과 영역별 필수 이수 단위는 ‘최소 이수 단위’이며 계열, 학교 및 학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편성하되, 교과 영역별로 교과(군)를 균형 있게 편성한다.	④ 필수 이수 단위의 단위 수는 해당 교과(군)의 ‘최소 이수 단위’를 의미한다.
④ 창의적 체험활동의 단위는 최소 이수 단위이며 ()안의 숫자는 이수 단위를 이수 시간 수로 환산한 것이다.	⑤ 창의적 체험활동의 단위는 최소 이수 단위이며 ()안의 숫자는 이수 단위를 이수 시간 수로 환산한 것이다.
⑤ 총 이수 단위 수는 고등학교 3년간 이수해야 할 ‘최소 이수 단위’를 가리킨다.	⑥ 총 이수 단위 수는 고등학교 3년간 이수해야 할 ‘최소 이수 단위’를 의미한다.
(3) 보통 교과	3) 보통 교과

2009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3-7호)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80호)
① 일반과목의 기본 단위 수는 5단위이며, 각 과목별로 3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할 수 있다.	① 선택 과목의 기본 단위 수는 5단위이다.
〈신설〉	② 교양 교과목을 제외한 일반 선택 과목은 2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신설〉	③ 교양 교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은 3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⑥ 체육 교과는 10단위 이상 이수하되, 매학기 편성하도록 한다.	④ 체육 교과는 매 학기 편성하도록 한다. 단,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경우, 현장 실습이 있는 학년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⑤ 예술계열 고등학교 이외의 고등학교에서 예술(음악/미술)은 음악과 미술 교과를 중심으로 편성·운영한다.	〈삭제〉
③ 기본 과목과 심화 과목의 이수 단위는 시·도 교육감이 정한다.	〈삭제〉
⑦ '논술' 과목의 내용은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학교가 정한다.	〈삭제〉
(4) 전문 교과	4) 전문 교과
〈신설〉	가) 전문 교과 I
〈신설〉	① 전문 교과 I 과목의 이수 단위는 시·도 교육감이 정한다.
〈신설〉	② 국제 계열 고등학교에서 이수하는 외국어 과목은 외국어 계열 과목에서 선택하여 이수한다.
〈신설〉	나) 전문 교과 II
③ 전문 교과의 각 과목에 대한 이수 단위는 시·도 교육감이 정한다.	① 전문 교과 II 과목의 이수 단위는 시·도 교육감이 정한다.
① 전문 교육을 주로 하는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는 다음 과목을 필수로 이수한다. ㉠ 농생명 산업 계열 : 농업 이해, 농업 기초 기술 ㉡ 공업 계열 : 공업 일반, 기초 제도 ㉢ 상업 정보 계열 : 상업 경제, 회계 원리 ㉣ 수산·해운 계열 : 해양의 이해, 수산·해운 산업 기초 ㉤ 가사·실업 계열 : 인간 발달, 생활 서비스 산업의 이해 ② '성공적인 직업생활' 은 모든 계열에서 선택할 수 있다.	② 전문 공통 과목, 기초 과목, 실무 과목은 모든 교과(군)에서 선택할 수 있다.
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1) 공통 지침	1) 공통 사항
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총 이수 단위는 204단위이며 교과(군) 180단위, 창의적 체험활동 24단위(408시간)로 나누어 편성한다.	가) 〈좌동〉

2009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3-7호)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80호)
(케) 학교는 학생이 3년간 이수해야 할 학년별, 학기별 과목을 편성하여 안내해야 한다.	나) 학교는 3년간 이수해야 할 과목을 학년별, 학기별로 편성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한다.
(다)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생의 학기당 이수 과목 수를 8개 이내로 편성하도록 한다. 단, 체육, 예술(음악/미술)과목은 8개 이내에서 제외하여 편성할 수 있다. 〈‘II-3-다-(4)-(가)’ 이동·수정〉 ② 학생의 학기당 이수 과목 수를 8개 이내로 편성하도록 하되 실습 중심 과목은 제외한다.	다) 학교는 학습 부담을 적정화 하고 의미 있는 학습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기 당 이수 교과목 수를 8개 이내로 편성한다. 단, 과학탐구실험, 체육·예술·교양 교과목, 진로 선택 과목, 실기·실습 과목은 이수 과목 수 제한에서 제외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나) 교과목의 이수 시기와 단위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라) 과목의 이수 시기와 단위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단, 공통 과목은 해당 교과(군)의 선택 과목 이수 전에 편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선택 과목 중에서 위계성을 갖는 과목의 경우 계열적 학습이 되도록 편성한다. 단, 학교의 실정 및 학생의 요구, 과목의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마) 선택 과목 중에서 위계성을 갖는 과목의 경우, 계열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편성한다. 단, 학교의 실정 및 학생의 요구, 과목의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배)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이 이 교육과정의 편제에 있는 특정 선택 과목의 개설을 요청할 경우, 학교는 이를 개설해야 한다.	바) 학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이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선택 과목의 개설을 요청할 경우 해당 과목을 개설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사)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선택 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그 과목을 개설한 다른 학교에서의 이수를 인정하도록 한다.	사)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선택 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그 과목을 개설한 다른 학교에서의 이수를 인정한다.
(매) 선택 과목은 학교의 실정과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편성하되, 학교는 필요에 따라 이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과목 외에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새로운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 학교는 필요에 따라 이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과목 외에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 학교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지역 사회의 학습장에서 행하는 학습을 이수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자) 학교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지역사회의 학습장에서 이루어진 학습을 이수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자) 학교는 필요에 따라 대학과목 선이수제의 과목을 개설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교육과정과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청의 지침에 따른다.	차) 학교는 필요에 따라 대학과목 선이수제의 과목을 개설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교육과정이나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차) 학교는 필요에 따라 교과목의 총 이수 단위를 증배 운영할 수 있다. 단,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전문 교과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의 제5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특수 목적 고등학교는 보통 교과목의 심화 과목에 한하여 증배 운영할 수 있다.	카) 학교는 필요에 따라 교과목의 총 이수 단위를 증배 운영할 수 있다. 단, 특수 목적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는 전문 교과목의 과목에 한하여 증배 운영할 수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3-7호)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80호)
〈신설〉	타) 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을 학생들의 발달 수준,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고, 학생의 진로와 연계하여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신설〉	파) 학교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적합한 과목을 체계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진로지도와 연계하여 선택 과목 이수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2) 일반 고등학교(자율 고등학교 포함)	2) 일반 고등학교(자율 고등학교 포함)
가) 교과(군)의 이수 단위 180단위 중 필수 이수 단위는 86단위 이상으로 한다.	가) 교과(군)의 총 이수 단위 180단위 중 필수 이수 단위는 94단위 이상으로 한다.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2의 제1항과 제4항에서 규정하는 일반 고등학교와 자율 고등학교에서는 보통 교과와 기본 과목, 일반 과목, 심화 과목을 중심으로 개설한다.	〈삭제〉
〈신설〉	나) 학교는 교육과정을 보통 교과 중심으로 편성하되, 필요에 따라 전문 교과와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신설〉	다) 학교는 학생이 이수하기를 희망하는 일반 선택 과목을 개설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모든 학생이 보통 교과와 진로 선택 과목에서 3개 과목 이상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자) 학교에서 제2외국어 과목을 개설할 경우, 2개 이상의 과목을 동시에 개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 〈좌동〉
바) 학교는 학생의 요구 및 흥미,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진로를 적절히 안내할 수 있는 진로 집중 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학교는 이 교육과정에 제시하는 ‘학교자율과정’에서 진로 집중 과정과 관련된 과목의 심화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성·운영한다.	〈삭제〉
베) 과학, 수학, 사회, 영어, 예술, 체육 등 교과를 중심으로 중점 학교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 자율과정의 50% 이상을 관련 교과목으로 편성할 수 있다.	마) 특정 교과를 중심으로 중점 학교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율 편성 단위의 50% 이상을 해당 교과목으로 편성할 수 있다.
사) 체육, 음악, 미술 등의 과정을 개설하는 학교의 경우, 필요에 따라 지역 내 중점 학교 및 지역 사회 학습장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바) 〈좌동〉
아) 일반 고등학교에서 직업에 관한 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세부 지침은 시·도교육청에서 정한다.	사) 학교는 직업에 관한 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다) 〈삭제〉	〈삭제〉
라) 〈삭제〉	〈삭제〉

2009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3-7호)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80호)
(3) 특수 목적 고등학교	3) 특수 목적 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제외)
가) 특수 목적 고등학교는 교과(군)의 이수 단위 180단위 중 보통 교과 필수 이수 단위는 77단위 이상으로 편성하며, 보통 교과의 심화 과목을 80단위 이상 편성한다.	가) 특수 목적 고등학교는 교과(군)의 총 이수 단위 180단위 중 보통 교과는 85단위 이상 편성하며, 전공 관련 전문 교과 I 을 72단위 이상 편성한다.
〈신설〉	나) 보통 교과의 선택 과목은 이와 내용이 유사하거나 관련되는 전문 교과 I 의 과목으로 대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 외국어 계열 고등학교에서는 보통 교과 심화 과목 총 이수 단위의 60% 이상을 전공 외국어로 하고, 전공 외국어 포함 2개 외국어로 보통 교과 심화 과목을 편성해야 한다.	다) 외국어 계열 고등학교에서는 전문 교과 I 의 총 이수 단위의 60% 이상을 전공 외국어로 하고, 전공 외국어를 포함한 2개 외국어로 전문 교과 I 의 과목을 편성해야 한다.
나) 국제 계열 고등학교는 전공 관련 보통 교과의 심화 과목과 영어 및 제2외국어 교과의 심화 과목에서 80단위 이상 이수하되, 전공 관련 보통 교과에서 50% 이상 편성한다.	라) 국제 계열 고등학교는 전문 교과 I 의 국제 계열 과목과 외국어 계열 과목을 72단위 이상 이수하되, 국제 계열 과목을 50% 이상 편성한다.
라) 이 교육과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계열의 교육과정은 유사 계열의 교육과정에 준한다. 부득이 새로운 계열의 설치 및 그에 따른 교육과정을 편성할 경우와 학교의 실정에 따라 새로운 과목을 설정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마) 이 교육과정에 명시되지 않은 계열의 교육과정은 유사 계열의 교육과정에 준한다. 부득이 새로운 계열의 설치 및 그에 따른 교육과정을 편성할 경우와 학교의 실정에 따라 새로운 과목을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4) 특성화 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4)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가) 학교는 산업수요와 직업을 고려하여 학과를 개설하고, 학생의 취업 역량과 경력 개발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가) 학교는 산업수요와 직업의 변화를 고려하여 학과를 개설하고, 학과별 인력 양성 유형, 학생의 취업 역량과 경력 개발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① 학교는 교과(군)의 이수 단위 180단위 중 보통 교과를 65단위 이상, 전문 교과를 86단위 이상 편성한다.	① 학교는 교과(군)의 총 이수 단위 180단위 중 보통 교과를 66단위 이상, 전문 교과 II 를 86단위 이상 편성한다.
③ 전문 교과는 학생의 경력 개발과 학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 등으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전문 역량 향상을 위해 기초 지식과 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운영한다.	〈삭제〉
④ 학교 자율 과정은 학교의 특성과 교육목표에 적합한 산업계 및 학생의 수요를 반영하여 학생의 경력 개발을 위한 교과를 편성·운영한다.	〈삭제〉
사) 전문 교과는 필요한 경우 다른 계열의 전문 과목을 선택하여 편성·운영한다.	② 학교는 두 개 이상의 교과(군)의 과목을 선택하여 전문 교과 II 를 편성·운영할 수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3-7호)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80호)
〈신설〉	③ 실무 과목을 편성할 경우 해당 과목의 내용 영역(능력단위)을 기준으로 학년별, 학기별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신설〉	④ 실무 과목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성취기준에 적합하게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나) 학과에 따라서는 세부 전공을 개설할 수 있으며, 세부 전공별로 전문 교과를 편성할 수 있다.	나) 학과는 필요한 경우 세부 전공 또는 자격 취득 과정을 개설할 수 있으며, 세부 전공 또는 자격 취득 과정별로 전문 교과를 편성할 수 있다.
(매) 전문 교과의 기초가 되는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경우, 이를 해당 보통 교과의 이수로 간주할 수 있다.	다) 전문 교과Ⅱ의 기초가 되는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경우, 이를 관련되는 보통 교과의 선택 과목 이수로 간주할 수 있다.
(باء) 내용이 유사하거나 관련되는 보통 교과의 과목과 전문 교과의 과목은 교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라) 내용이 유사하거나 관련되는 보통 교과의 선택 과목과 전문 교과Ⅰ의 과목을 전문 교과Ⅱ의 과목으로 교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신설〉	마) 보통 교과의 진로 선택 과목 중 실용 국어, 실용 수학, 실용 영어는 해당 교과(군)의 공통 과목 이수 전에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 교과 내용은 학교 교육목표와 산업계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교과의 주제나 내용요소를 추가 구성할 수 있으며, 이에 적합한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과 평가를 연계하여 실시한다.	바) 학교는 산업계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전문 교과Ⅱ의 교과 내용에 주제나 내용 요소를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단, 실무 과목의 경우에는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내용 영역(능력단위)중 일부를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다.
(아) 학과별 필수 과목은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정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계열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학과가 속한 계열의 필수 과목을 이수한다.	〈삭제〉
(자)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경험하고 적용함으로써 다양한 직업적 체험과 현장 적응력 제고 등을 위해 교육과정의 일환으로서 현장 실습을 운영하여야 한다.	사) 다양한 직업적 체험과 현장 적응력 제고 등을 위해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경험하고 적용하는 현장 실습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운영해야 한다.
① 현장 실습은 교육과정과 관련이 있는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며, 학교 또는 학교와 산업계가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도록 한다.	① 현장 실습은 교육과정과 관련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며, 학교와 산업계가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실습의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도록 한다.
② 현장 실습은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청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	② 현장 실습은 지역사회 유관 기관들과 연계하여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청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
(라) 직업 기초 능력, 직업 윤리, 산업 안전 보건, 노동 관계법 등의 교육은 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등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특히, 실습 관련 교과를 지도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업 내용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안전 장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 학교는 실습 관련 과목을 지도할 경우 사전에 수업 내용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안전 장구 착용 등 안전 조치를 취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3-7호)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80호)
(차)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의 진로 및 경력 개발, 인성 개발, 취업 역량 제고 등을 목적으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자)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의 진로 및 경력 개발, 인성 개발, 취업 역량 제고 등을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따) 이 교육과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계열의 교육과정은 유사 계열의 교육과정에 준한다. 부득이 새로운 계열의 설치 및 그에 따른 교육과정을 편성할 경우와 학교의 실정에 따라 새로운 과목을 설정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차) 이 교육과정에 명시되지 않은 교과(군)의 교육과정은 유사한 교과(군)의 교육과정에 준한다. 부득이 새로운 교과(군)의 설치 및 그에 따른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자 할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카) 학교가 필요에 따라 이 교육과정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실무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할 경우 국가직 무능력표준에 기반해야 하며,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산업계의 수요를 교육에 직접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과정과 다르게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산업계의 수요와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산업계의 수요를 교육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교육과정과 다르게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카) 특성화 고등학교 외에 직업교육 관련 학과를 설치·운영할 경우, 특성화 고등학교의 편성·운영 지침에 따른다.	파)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외의 학교에서 직업교육 관련 학과를 설치·운영할 경우,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편성·운영 기준에 따른다.
〈‘Ⅲ-2’ 이동〉 2. 특수한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5. 특수한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가. 초·중·고등학교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이 교육과정에 따라서 편성·운영한다.	가. 〈좌동〉
나. 국가가 설립 운영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해당 시·도 교육청의 편성·운영 지침을 참고하여 학교장이 편성한다.	나. 〈좌동〉
다. 공민학교, 고등 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근로 청소년을 위한 특별 학급 및 산업체 부설 학교, 기타 특수한 학교는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특성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운영한다.	다. 〈좌동〉
라. 야간 수업을 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이 교육과정을 따르되, 다만 단위 수업 시간을 40분으로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라. 야간 수업을 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이 교육과정을 따르되, 다만 1시간의 수업을 40분으로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마.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따르되,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이 교육과정의 편제와 시간 단위 배당 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마. 〈좌동〉

2009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3-7호)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80호)
(1) 편제와 시간단위 배당 기준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되, 중학교는 2,652시간 이상, 고등학교는 162단위 이상 이수하도록 한다.	1) <좌동>
(3) 학교 출석 수업 일수는 연간 20일 이상으로 한다.	2) <좌동>
바. 특성화 학교, 자율 학교 등 법령에 의거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이 부여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따른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교육청(재외한국학교의 경우 교육부)의 지침에 따른다.	바. 특성화 학교, 자율 학교, 재외한국학교 등 법령에 따라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이 부여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따른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교육청(재외한국학교의 경우 교육부)의 지침에 따른다.
사. 교육과정의 연구 등을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는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교육과정의 기준과는 다르게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사. <좌동>
(2) <삭제>	<삭제>
4. 학교 급별 공통 사항	Ⅲ.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가. 편성·운영	1. 기본 사항
(1) 학교는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 실정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가. <좌동>
(2)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학년 및 교과목별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나.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학년(군)별 교육과정 및 교과(목)별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3) 학교 교육과정은 모든 교원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 편성·운영한다.	다. 학교 교육과정은 모든 교원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 편성한다.
(4) 교육과정의 합리적 편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교원, 교육과정(교과 교육) 전문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이 위원회는 학교장의 교육과정 운영 및 의사 결정에 관한 자문의 역할을 담당한다. 단,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산업계 인사가 참여하여야 한다.	라. 교육과정의 합리적 편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원, 교육과정 전문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이 위원회는 학교장의 교육과정 운영 및 의사 결정에 관한 자문의 역할을 담당한다. 단,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산업계 인사가 참여할 수 있고, 통합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의 경우에는 특수교사가 참여할 것을 권장한다.
(5)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함에 있어서는 교원의 조직, 학생의 실태, 학부모의 요구, 지역 사회의 실정 및 교육 시설·설비 등 교육 여건과 환경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마.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때에는 교원의 조직, 학생의 실태, 학부모의 요구, 지역 사회의 실정 및 교육 시설·설비 등 교육 여건과 환경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3-7호)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80호)
(18)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 배열은 반드시 학습의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예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 지역의 특수성, 계절 및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요구, 교사의 필요에 따라 각 교과목의 학년별 목표에 대한 지도 내용의 순서와 비중, 방법 등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 배열은 반드시 학습의 순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역의 특수성, 계절 및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요구, 교사의 필요에 따라 각 교과목의 학년군별 목표 달성을 위한 지도 내용의 순서와 비중, 방법 등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6)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 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계획적으로 활용한다.	사. 학교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계획적으로 활용한다.
(17) 창의적 체험활동에 배당된 시간 수는 학생의 요구와 학교의 실정에 기초하여 융통성 있게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아. 학교는 학생의 요구, 학교의 실정 및 특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 활동, 시간 등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15) 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실질적 체험학습이 되도록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협력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자. 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실질적 체험학습이 되도록 지역사회의 유관 기관과 연계·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28)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후 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차. <좌동>
(29) 학생이 건전한 생활 태도와 행동 양식을 갖추어 학습에 임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 전반을 통해 지도한다. (30) 학생의 건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가정 및 지역과 연계하여 지도한다.	카. 학교는 가정 및 지역과 연계하여 학생이 건전한 생활 태도와 행동 양식을 가지고 학습에 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6) 학교는 동학년 모임, 교과별 모임, 현장 연구, 자체 연수 등을 통해서 교사들의 교육 활동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타. <좌동>
< 'II-나-(1)' 에서 이동 및 수정 > (1)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적합성, 타당성, 효과성을 자체 평가하여 문제점과 개선점을 추출하고, 다음 학년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그 결과를 반영한다.	파.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적절성과 효과성 등을 자체 평가하여 문제점과 개선점을 추출하고, 다음 학년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그 결과를 반영한다.
<신설>	2. 교수·학습
<신설>	가. 학교는 교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고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신설>	1) 교과의 학습은 단편적 지식의 암기를 지양하고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의 심층적 이해에 중점을 둔다.
(8) 각 교과의 기초적, 기본적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학습되도록 계획하고, 이를 일관성 있고 지속성 있게 지도한다.	2) 각 교과의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 및 기능이 학생의 발달 단계에 따라 그 폭과 깊이를 심화할 수 있도록 수업을 체계적으로 설계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3-7호)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80호)
〈신설〉	3) 학생의 융합적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교과 내, 교과 간 내용 연계성을 고려하여 지도한다.
(14) 각 교과 활동에서는 학습의 개별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발표·토의 활동과 실험, 관찰, 조사, 실측, 수집, 노작, 견학 등의 직접 체험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유의한다.	4) 실험, 관찰, 조사, 실측, 수집, 노작, 견학 등의 직접 체험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13) 개별적인 학습 활동과 더불어 소집단 공동 학습 활동을 중시하여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많이 가지게 한다.	5) 개별 학습 활동과 함께 소집단 공동 학습 활동을 통하여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협동학습 경험을 충분히 제공한다.
〈신설〉	6) 학생이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토의·토론 학습을 활성화한다.
(12) 교과 수업은 탐구적인 활동을 통하여 개념 및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새로운 사태에 적용하는 기회를 많이 가지게 한다. 특히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한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지도록 하는 데 힘쓴다.	7) 학생에게 학습 내용을 실제적 맥락 속에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다.
〈신설〉	8)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학습 과정과 학습 전략을 점검하고 개선하며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신설〉	나. 학교는 효과적인 교수·학습 환경 설계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둔다.
〈신설〉	1) 교사와 학생 간, 학생과 학생 간 상호 신뢰와 협력이 가능한 교수·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9) 각 교과목별 학습 목표를 모든 학생이 성취하도록 지도하고, 능력에 알맞은 성취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학습의 기회와 방법을 제공하며, 이를 위한 계획적인 배려와 지도를 하여 학습 결손이 누적되거나 학습 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2)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하고, 학교의 여건과 학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학습 집단을 구성하여 학생 맞춤형 수업을 할 수 있다.
(10) 공통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능력과 적성, 진로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 한다. 특히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교과에서는 수준별 수업을 권장한다.	
(11) 수준별 수업 운영을 위한 학습 집단은 학교의 여건이나 학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편성할 수 있으며,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특별 보충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특별 보충 수업의 편성·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3) 학교는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특별 보충 수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제반 운영 사항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26) 각 교과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 교실제 운영을 활성화한다.	4) 〈좌동〉

2009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3-7호)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80호)
(25) 교과용 도서 이외의 교수·학습 자료는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개발한 것 등을 사용할 수 있다.	5) 학교는 교과용 도서 이외에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개발한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27) 실험·실습이나 실기 지도에 있어서는 시설 및 기계·기구,약품 사용의 안전에 유의하도록 한다.	6) 실험 실습 및 실기 지도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 및 기계기구,약품, 용구 사용의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나. 평가 활동	3. 평가
(2) 학교에서 실시하는 평가 활동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삭제〉
가) 평가는 모든 학생들이 교육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교육의 과정으로 실시한다.	가. 평가는 학생의 교육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 주안점을 둔다.
〈신설〉	1) 학교는 학생에게 평가 결과에 대한 적절한 정보 제공과 추수 지도를 통해 학생이 자신의 학습을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나) 학교는 다양한 평가 도구와 방법으로 성취도를 평가하여 학생의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2) 학생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수업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신설〉	나. 학교와 교사는 성취기준에 근거하여 학교에서 중요하게 지도한 내용과 기능을 평가하며 교수·학습과 평가 활동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바) 학교와 교사는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기능을 평가하도록 한다. 학생이 학교에서 배울 기회를 마련해 주지 않고, 학교 밖의 교육 수단을 통해서 익힐 수밖에 없는 내용과 기능은 평가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1) 학생에게 배울 기회를 주지 않은 내용과 기능은 평가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 학습의 결과뿐만 아니라 학습의 과정을 평가하여 모든 학생이 교육 목표에 성공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
〈신설〉	3) 학교는 학생의 인지적 능력과 정의적 능력에 대한 평가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신설〉	다. 학교는 교과의 성격과 특성에 적합한 평가 방법을 활용한다.
다) 교과의 평가는 선택형 평가보다는, 서술형이나 논술형 평가 그리고 수행 평가의 비중을 늘려서 교과별 특성에 적합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1) 서술형과 논술형 평가 및 수행평가의 비중을 확대한다.
마) 정의적, 기능적, 창의적인 면이 특히 중시되는 교과의 평가는 타당한 평정 기준과 척도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2) 정의적, 기능적, 창의적인 면이 특히 중시되는 교과는 타당한 평정 기준과 척도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라) 실험·실습의 평가는 교과목의 성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한다.	3) 〈좌동〉
사)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평가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과 특성을 감안하여 평가의 주안점을 학교에서 작성, 활용한다.	4) 창의적 체험활동은 내용과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의 주안점을 학교에서 결정하여 평가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3-7호)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80호)
〈신설〉	5) 전문 교과Ⅱ의 실무 과목은 성취 평가제와 연계하여 내용 요소를 구성하는 ‘능력단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신설〉	4.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기회의 제공
〈 ‘가-(22)’ 항 이동 및 수정〉 (22) 교육 활동 전반을 통하여 남녀의 역할, 학력과 직업 등에 관한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지도한다.	가. 교육 활동 전반을 통하여 남녀의 역할, 학력과 직업, 종교, 이전 거주지, 인종, 민족 등에 관한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지도한다.
〈 ‘가-(21)’ 항 이동 및 수정〉 (21) 학습부진아, 장애를 가진 학생, 귀국 학생, 다문화 가정 자녀 등이 학교에서 충실한 학습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와 지원을 하도록 한다.	나. 학습 부진 학생, 장애를 가진 학생,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 귀국 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 등이 학교에서 충실한 학습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한다.
〈 ‘가-(19)’ 항 이동 및 수정〉 (19) 심신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 학급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학생의 장애 정도와 능력을 고려하여 이 교육과정을 조정·운영하거나, 특수학교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해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학생의 장애 특성 및 정도를 고려하여 이 교육과정을 조정하여 운영하거나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 ‘가-(20)’ 항 이동〉 (20) 다문화 학생을 위한 특별 학급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다문화 학생의 한국어 능력을 고려하여 이 교육과정을 조정·운영하거나,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한국어 교육과정은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주당 10시간 내외에서 운영할 수 있다.	라.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특별 학급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한국어 능력을 고려하여 이 교육과정을 조정하여 운영하거나,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한국어 교육과정은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주당 10시간 내외에서 운영할 수 있다.
〈 ‘Ⅱ-가-(7)’ 항 이동〉 (7) 학교가 종교 과목을 개설할 때에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허용되는 중립 학교의 경우 학생·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단수로 개설할 수 있다.	마. 〈좌동〉
Ⅲ. 학교 교육과정 지원	Ⅳ. 학교 교육과정 지원
1.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가. 국가 수준 지원 사항	1. 국가 수준의 지원
이 교육과정의 원활한 편성·운영을 위하여 국가 수준에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지원한다.	이 교육과정의 원활한 편성·운영을 위하여 국가 수준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1)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지원 활동과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활동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가. 〈좌동〉

2009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3-7호)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80호)
(2) 이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하여 국가 수준에서는 주기적으로 학업 성취도 평가, 학교와 교육 기관 평가,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한다.	나. 이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학업 성취도 평가, 학교와 교육 기관 평가,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 과정 개선에 활용한다.
(가)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교과별, 학년(군)별 학생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교육과정의 적절성 확보와 그 개선에 활용한다. 특성화 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초 학력과 평생 학습 역량 등의 강화를 위한 학업 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는 기초학력과 직업 기초 능력의 향상, 취업 역량 강화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1) 교과별, 학년(군)별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학력의 질 관리와 교육과정의 적절성 확보 및 개선에 활용한다.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초 학력과 평생 학습 역량의 강화를 위한 학업 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는 기초 학력과 직업 기초 능력의 향상, 취업 역량 강화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나)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교육청의 교육과정 지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학교와 관련 교육청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2)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교육청의 교육과정 지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학교와 교육청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다)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지원 체제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3)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지원 체제의 적절성 및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3) 국가 수준에서는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정신을 구현한 평가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학교 현장에 제공해 주어야 한다.	다. 학교에서 평가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개발하여 학교에 제공한다.
(가) 교과별로 '평가 기준'을 개발, 보급하여 학교가 교과 교육과정의 목표에 부합되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1) 교과별로 성취기준에 따른 평가 기준을 개발·보급하여 학교가 교과 교육과정의 목표에 부합되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나) 교과별 평가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 방법, 절차, 도구 등을 개발하여 학교에 제공한다.	2) <좌동>
(4) 국가 수준에서는 산업과 직업 세계를 고려하여 기준 학과를 제시하고, 기준 학과별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나 직무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라.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가 기준 학과별 국가직무능력표준이나 직무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설>	마.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해 관련 교과용 도서와 교수·학습 자료 개발, 평가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
<신설>	바. 이 교육과정이 교육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청 수준의 교원 연수와 전국 단위의 교과 연구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신설>	사. 학교 교육과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 시설 및 교원 수급 계획을 마련하여 제시한다.
나. 교육청 수준 지원 사항	2. 교육청 수준의 지원
<신설>	이 교육과정의 원활한 편성·운영을 위하여 교육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원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3-7호)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80호)
(1)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와 자문 기능을 담당할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 위원회에는 교원, 교육 행정가, 교육학 전문가, 교과 교육 전문가, 학부모, 지역 사회 인사, 산업체 인사 등이 참여할 수 있다.	가. 시·도의 특성과 교육적 요구를 구현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 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한다. 1) 이 위원회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와 자문 기능을 담당한다. 2) 이 위원회에는 교원, 교육 행정가, 교육학 전문가, 교과 교육 전문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산업체 인사 등이 참여할 수 있다.
(2) 지역의 특수성, 교육의 실태, 학생·교원·주민의 요구와 필요 등을 반영하여 교육 중점을 설정하고,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한다.	나. 지역의 특수성, 교육의 실태, 학생·교원·주민의 요구와 필요 등을 반영하여 교육청 단위의 교육 중점을 설정하고, 학교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시·도 교육청 수준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안내한다.
(6) 각급 학교가 새 학년도 시작에 앞서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교원의 전보를 적기에 시행한다.	다. 학교가 새 학년도 시작에 앞서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교원의 전보를 적기에 시행한다.
(18) 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의 인정, 개발, 보급을 위해 노력한다.	라.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의 인정, 개발, 보급을 위해 노력한다.
〈신설〉	마. 중학교 자유학기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자료의 개발·보급, 교원의 연수,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포함된 자유학기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15)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교과목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교육청은 관련 지침을 학교에 제시해 주고, 학교로 하여금 필요한 사전 절차를 밟도록 지원한다.	바. 학교가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교과목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학교에 제공하고 학교로 하여금 필요한 사전 절차를 밟도록 지원한다.
(8) 학교가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협력해서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관내 학교가 활용 가능한 ‘지역 자원목록’을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사. 학교가 지역사회의 유관 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협력해서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관내 학교가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자원 목록’을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17) 학교 교육과정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학생의 배정, 교원의 순회 및 수급, 학교 간 시설과 설비의 공동 활용, 자료의 공동 개발 활용에 관하여 학교 간 및 인접 교육청 간의 협조 체제를 구축한다.	아. 학교 교육과정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학생의 배정, 교원의 수급 및 순회, 학교 간 시설과 설비의 공동 활용, 자료의 공동 개발과 활용에 관하여 학교 간 및 교육지원청 간의 협조 체제를 구축한다.
(13) 전·입학, 귀국 등에 따라 공통 교과를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이 해당 교과를 이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주고, 학생들이 지역 사회의 공공성 있는 사회 교육 시설을 통해 이수한 과정을 인정해 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자. 전·입학, 귀국 등에 따라 공통 교육과정의 교과와 고등학교 공통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이 해당 교과를 이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주고,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공공성 있는 사회 교육 시설을 통해 이수한 과정을 인정해 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3-7호)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80호)
(12) 귀국가 및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 경험의 특성과 배경을 고려하여 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	차. 귀국가 및 다문화 가정 학생의 교육 경험의 특성과 배경을 고려하여 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
(11)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과 학습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기회를 마련하고 지원한다.	카.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 학습 부진 학생,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교육 기회를 마련하고 지원한다.
〈신설〉	타.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원 연수, 교육과정 컨설팅, 연구학교 운영 및 연구회 활동 지원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5) 교원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능력 향상과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지도 능력 제고를 위하여 각급 학교 교원에 대한 연수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1) 교원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능력과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지도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원에 대한 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4) 학년군, 교과군 도입을 통한 단위학교 교육과정 자율 편성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컨설팅 등 지원 기구를 조직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각종 자료를 연구, 개발하여 보급한다.	2) 학교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편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과정 컨설팅 지원단 등 지원 기구를 운영하며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각종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한다.
(3)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개선을 위한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수업 개선을 위한 연구 교사를 두어 교과별 연구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3)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개선과 수업 개선을 위해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연구 교사제 및 교과별 연구회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신설〉	파. 학교가 이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지원한다..
(7)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을 위한 교육 시설, 설비, 자료 등의 정비 확충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1)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해서 교육 시설, 설비, 자료 등을 정비하고 확충하는 데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2)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원 수급, 시설 확보, 프로그램 개발 등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16) 복식 학급 운영 등 소규모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원의 배치, 학생의 교육받을 기회의 확충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3) 복식 학급 운영 등 소규모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원의 배치, 학생의 교육받을 기회 확충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9) 수준별 수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하며,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특별 보충 수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4) 수준별 수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하며, 기초학력 향상과 학습 결손 보충이 가능하도록 '특별 보충 수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3-7호)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80호)
(14) 지역 사회와 학교의 여건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학교에서 돌볼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고, 이에 대해 교육청은 특별한 배려와 지원을 하도록 한다.	5) 지역사회와 학교의 여건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학교에서 돌볼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고, 이에 대해 충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10) 개별 학교의 희망과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 내 학교 간 개설할 집중 과정을 조정하고, 그 편성·운영을 지원한다. 특히, 소수 학생이 지망하는 집중 과정을 개설할 학교를 지정하고, 원활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6) <좌동>
<신설>	7) 인문학적 소양 및 통합적 읽기 능력 함양을 위해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도록 다양한 지원을 한다.
(19)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개설 전공과 유사한 산업체와 협력하여 특성화된 교육과정과 실습과목을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학생의 현장 실습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8)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가 산업체와 협력하여 특성화된 교육과정과 실습 과목을 편성·운영할 경우, 학생의 현장 실습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신설>	하. 학교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실시한다.
(20) 학교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실태와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효과적인 교육과정의 운영과 개선 및 질 관리에 필요한 적절한 지원을 한다.	1) 학교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실태와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효과적인 교육과정의 운영과 개선 및 질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21)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질 관리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 체제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업 성취도 평가, 교육과정 편성·운영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2)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질 관리와 교육과정 편성·운영 체제의 적절성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업 성취도 평가, 학교 교육과정 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활용한다.
<신설>	3) 교육청 수준의 학교 교육과정 지원에 대한 자체 평가와 교육과정 운영 지원 실태에 대한 점검을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부록 IV]

교육과정의 법적 근거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 지역 수준 교육과정, 그리고 학교 수준 교육과정과 관련되는 주요 법규는 다음과 같다.⁹⁾

- ① 대한민국헌법 [전부개정 1987. 10. 29. 헌법 10호]
- ② 교육기본법 [일부개정 2016. 5. 29. 법률 제14150호]
- ③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2016. 2. 3. 법률 제13943호]
- ④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6. 8. 2. 대통령령 제27424호]
- 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5. 6. 22. 법률 제13335호]
- ⑥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6. 8. 2. 대통령령 제27421호]
- ⑦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타법개정 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44호]
- ⑧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15. 12. 15. 대통령령 제26709호]
- ⑨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타법개정 2014. 12. 9. 대통령령 제25840호]
- ⑩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2016. 3. 2. 법률 제14055호]
- ⑪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6. 8. 29. 제27457호]
- ⑫ 저작권법 [일부개정 2016. 3. 22. 법률 제14083호]
- ⑬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6. 9. 21. 대통령령 제27503호]
- ⑭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6. 11. 8.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74호]
- ⑮ 과학교육 진흥법 [일부개정 2016. 2. 3. 법률 제13935호]
- ⑯ 과학교육진흥법시행령 [타법개정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
- ⑰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 2016. 2. 3. 법률 제13939호]
- ⑱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타법개정 2015. 11. 30. 대통령령 제26683호]
- ⑲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타법개정 2016. 2. 3. 법률 제13978호]
- ⑳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6. 6. 21. 대통령령 제27227호]
- 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6. 6. 23. 교육부령 제101호]
- ㉒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6. 3. 22. 법률 제14078호]
- ㉓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6. 9. 21. 제27501호]

9) 법제처 홈페이지 검색 일자: 2016. 11. 24.

- 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2015. 12. 22. 법률 제13574호]
- ㉕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 ㉖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16. 5. 29. 법률 제14149호]
- ㉗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6. 9. 5. 대통령령 제 27477호]
- ㉘ 인성교육진흥법 [제정 2015. 1. 20. 법률 제13004호]
- ㉙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정 2015. 7. 20. 대통령령 제26403호]
- ㉚ 진로교육법 [제정 2015. 6. 22. 법률 제13336호]
- ㉛ 진로교육법 시행령 [제정 2015. 12. 22. 대통령령 제26727호]

교육과정 관련 법규에는 그 밖에도 교육 조직, 시설·설비, 학사, 장학·학술 연구, 과학·기술·직업 교육, 사회·유아·특수·청소년·체육 교육 및 국경일·휴일·기념일,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 등과 교육부 훈령, 예규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공교육의 근간을 마련하고 있는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중심으로 국가 수준 교육과정, 지역 수준 교육과정, 학교 수준 교육과정의 기본 틀을 형성하고 있는 ‘교육받을 권리,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교육 이념’, ‘초등학교의 교육 목적’, ‘교육과정 및 교과’, ‘학기, 학급 편성, 수업 운영’, ‘학년제’, ‘학습 부진아 교육’, ‘수업연한,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교과용 도서의 사용’,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장학 지도, 학교 규칙, 학생 자치 활동’, ‘평가 및 학교생활 기록’ 등의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교육받을 권리,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 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제6조(교육의 중립성)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헌법 제31조 제1항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는 우리나라 교육의 이상을 표현한 것이며,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을 설정하는 근거에 해당된다. 개개인의 능력에 맞는 교육, 즉 개인차가 고려되는 교육은 시대에 따라 그 표현 방식이나 강조하는 바에 차이가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추구해 온 교육의 이상이며, 교육이란 개인을 유능한 인간으로 성장하게 하는 동시에 개인의 교육적 경험과 교육의 질 등에 따라 결과적으로 개인차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헌법에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라는 것은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을 위한 ‘최소 필수 교육’이 아니라, 국민 각자가 가지고 태어난 잠재 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질적 기회균등’의 장을 국가가 마련해 주어야 함을 의미한다. 최소의 필수 교육이 평등(equality)의 이념을 강조한다면,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교육은 공평(equity)의 이념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교육 수요자의 요구가 다양하게 분출되는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기계적인 평등 논리보다는 학습자의 개인차를 인정하는 공평의 논리가 더 설득력이 있게 된다. 이와 같은 개인차를 반영하는 교육은 교육 공급자의 관점이 아니라 교육 수요자, 즉 학생의 입장에서 교육의 가치를 생각하는 것이며, 이는 학습자의 능력 수준 및 요구, 개인적 특성 등에 맞추어 가장 합당한 교육적 처치를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학생의 개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전인적 발달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을 국가 관리 체제로 하는 공교육 제도에서 국가는 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권리를 위탁받아 법에 따라 학교 교육을 운영한다. 그리하여 부모와 교사의 지배나 간섭, 또는 포기로부터 침해받을 수도 있는 학생의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 인간다운 삶의 기본 조건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은 현대 복지 국가가 국민의 권리 보호자로서 책무를 가지고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국민 복지에 대한 국가의

기능이다.

학교 교육에서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는 부모, 교사, 설립자, 국가 등 교육권을 가진 모든 교육 주체의 중심이 되는 권리이며, 이 권리는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에 기초한 권리로 서로 상호 협력 관계에 있다. 따라서 교사의 교육권이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위해서 제한받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보통 교육 단계의 성장 과정에 있는 학생은 아직 가치 판단력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정한 정치적 선동이나 왜곡된 진리에 대해서는 비판 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외부의 제 가치의 수용에 대한 가소성이 있다. 그러므로 초·중등의 보통 교육은 정치적, 종교적, 개인적 편견에 치우침이 없이 학생에게 보편적인 가치와 원리를 중심으로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 내용의 기준을 국가가 설정하고 운영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헌법상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규정은 학생에 대한 보편적 가치와 진리를 배울 권리의 보장, 교육 내용의 전문적 수준 확보, 공교육에 대한 기준 설정과 운영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권리, 교육 내용의 중립성 보장의 준거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기본법 제3조에는 모든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학습권이 제시되어 있고, 제4조에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제5조에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보장 및 학교 운영의 자율성 존중에 관한 사항이, 제6조에는 교육의 중립성이 각각 제시되어 있다. 이들 규정은 국가 교육과정 기준과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지침이 되는 동시에 법적 기준이 된다.

나. 교육 이념

■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 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랜 세월을 걸쳐 홍익인간, 전인의 육성 등이 교육의 이상으로 자리 잡아 왔으며,¹⁰⁾ 광복 이후 우리 교육에서 가장 포괄적인 수준의 교육 이념으로 제시된 것도 바로 홍익인

10) “널리 인간을 유익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홍익인간’의 이념은 1949년에 제정된 교육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 근원은 『삼국유사』에 수록되어 있는 단군 신화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인교육’의 방향은 고종이 1895년에 작성한 교육입국 조서에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다. 홍익인간의 교육 이념은 광복 직후 결성된 조선교육심의회에서 제안하여 교육법에 명기하게 되었으며, 홍익인간의 정신은 이 민주주의의

간(弘益人間)의 교육 이념이다.

교육기본법 제2조에 제시된 교육 이념은 ‘인격 도야, 자주적 생활 능력, 민주시민의 자질’이라는 개인적 차원의 이념, ‘민주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국가 차원의 이념, 그리고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이라는 세계적 이념으로, 우리나라의 교육 방향 설정과 관련하여 꾸준히 재음미되어 왔다. 즉, 홍익인간의 교육 이념은 그 적절성과 의미 있는 역할에 대한 논의를 거듭하면서 1949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포괄적인 교육 이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교육의 방향을 더욱 분명하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교육 이념을 찾게 되었고, 그것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설정하는 바탕이 되었다.

교육기본법에 제시된 교육 이념은 우리나라 교육 전반에 걸쳐 추구해 나가야 할 교육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추구하는 인간상과 각급 학교의 교육 목적 및 교육 목표 설정의 기저가 된다.

다. 초등학교의 교육 목적

■ 초·중등교육법

제38조(목적) 초등학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38조에는 초등학교의 교육 목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교육 중점과 교육 목표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급 학교의 교육 목적을 규정한 조항은 각각 해당 학교급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기초적인 초등교육’은 전문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단계가 아니라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삶을 위한 일반적 능력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초등학교 교육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개인적, 사회적 삶에 필요한 보편적 능력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념과 상통한다는 점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라. 교육과정 및 교과

■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③ 학교의 교과(敎科)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교과)

1. 초등학교 및 공민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영어)와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1항은 단위 학교에서는 소정의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이는 단위 학교에서 지역이나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 또한, 동법 제23조 제2항의 “교육부 장관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다.”라는 규정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 설정을 위한 근거가 된다. 국가 수준에서 교육과정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① 교육의 질적 기회 균등 보장, ② 교육 내용의 일관성과 체계성 유지, ③ 공교육의 일정 수준 확보, ④ 교육의 중립성 확보, ⑤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의 책임 등에서 그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국가 수준의 기준은 관련 법규에 따라 법적인 구속력을 지니기 때문에 교육 내용에는 국가의 관여를 통한 전문적 지도 조언과 융통성 있는 운영이 동시에 요구된다.

그러나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전국 공통의 일반적 기준이기 때문에 각 시·도의 특수성이나 실정, 필요,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교육부 장관이 정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범위 안에서 지역별로 그 지역의 특성과 역사, 전통, 자연, 산업, 사회, 문화 등과 지역의 교육 실태, 학생·교원·주민의 요구와 필요 등을 반영하여 각 시·도의 교육 중점을 특색 있게 설정하고,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하여 그 지역의 학교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시·도 교육감이 이러한 지역 수준의 지침을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때 동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과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야 한다.

동법 제23조 제3항은 학교의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초·중등

교육법시행령 제43조에는 초등학교의 교과로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영어)와 교육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를 제시하고 있다. 교육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는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다.

마. 학기, 학급 편성, 수업 운영

■ 초·중등교육법

제24조(수업 등) ①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수업은 주간(晝間)·전일제(全日制)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수업·계절수업·시간제수업 또는 방송·통신수업 등을 할 수 있다.

③ 학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휴업일과 반의 편성·운영, 그 밖에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학기) ①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기는 매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말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및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이하 "자율학교등"이라 한다)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5조의4에 따른 자율학교등 지정·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중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기 중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대상 학기의 범위 등 자유학기의 지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45조(수업일수)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의 10 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유치부를 제외한다)

가. 주 5일 수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 학년 220일 이상

나. 주 5일 수업을 월 2회 실시하는 경우: 매 학년 205일 이상

다. 주 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 매 학년 190일 이상

2. 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 매 학년 170일 이상

②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은 제1항제1호나목 또는 다목의 기준에 따라 주 5일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수업일수를 정하려면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46조(학급편성)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급편성은 같은 학년, 같은 학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개 학년 이상의 학생을 1학급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47조(휴업일 등) ①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법 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②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또는 학과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대상, 수업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⑤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48조의2(자유학기의 수업운영방법 등) ① 중학교의 장은 자유학기에 학생 참여형 수업을 실시 하고 학생의 진로탐색 등 다양한 체험을 위한 체험활동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생 참여형 수업 및 체험활동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49조(수업시각)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학교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학사 일정이 운영된다.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며(제1항), 수업은 주간·전일제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제2항).

학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어 운영하도록 시행령 제44조에 제시되어 있다. 매 학년도의 법정 수업 일수는 220일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10의 범위에서 수업 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이 제시되어 있다(시행령 제45조).

시행령 제46조에는 학급 편성에 대해 규정되어 있는데, 학교의 학급 편성은 같은 학년, 같은 학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개 학년 이상의 학생을 1학급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어촌이나 도서 벽지 등의 소규모 학교, 소인수 학급인 경우 2개 학년 이상의 학생을 1학급에 수용하는 복식 학급 운영의 근거가 되고 있다. 그 외에도 수준별 수업을 위한 학습 집단을 편성하는 경우, 동일 학년군 내 또는 학년군 간 통합 운영 등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의 운영에서도 활동 주제의 특성, 동아리 활동 부

서의 선택과 활동 내용에 따라서는 학년이나 학급의 벽을 탈피하여 무학년제에 의한 통합적인 운영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또한, 주제 탐구 활동, 소집단 공동 연구, 통합적인 범교과 학습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은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협력 수업을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학교의 휴업일은 관공서의 공휴일¹¹⁾,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따른 토요일휴업일, 여름·겨울 및 학기말의 휴가 등이며(시행령 제47조), 비상 재해 등 긴급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수업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48조에 규정되어 있다. 수업에서는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교과서나 지도서 등과 같은 교과용 도서 외에 교육 방송, 시청각 기자재, 각종 학습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교과서 교육과 함께 교육 정보망, 멀티미디어 등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도 교사의 전문성과 순기능 등을 살리는 범위 내에서 선택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시행령 제48조 제3항, 제4항). 국가 수준 교육과정 기준에서는 모든 학습 활동에서 학생의 직접적인 체험 학습을 강조하고 있다. 도시와 농·어촌의 교환, 교류 학습이나 학부모의 책임 아래 여행, 현장 견학, 답사 등과 같은 체험 학습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보고서를 제출하면, 이를 수업 일수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교외 체험 학습에 필요한 사항을 학교 규칙으로 정해 두어야 한다(시행령 제48조 제5항). 또한, 학교 수업을 시작하고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시행령 제49조).

바. 학년제

■ 초·중등교육법

제26조(학년제) : ① 학생의 진급이나 졸업은 학년제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학년제 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6조에 의하면 학생의 진급이나 졸업은 원칙적으로 학년제에 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학년제 외의 다른 제도를 채택할 수도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11) 학교의 수업 일수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법률 제12915호, 2014. 12. 30.)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28호, 2013. 11. 5.)에 의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① 일요일, ②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③ 1월 1일, ④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⑤ (삭제), ⑥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⑦ 5월 5일(어린이날), ⑧ 6월 6일(현충일), ⑨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⑩ 12월 25일(기독탄신일), ⑪의 2. 「공직 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⑫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에 의한 대체공휴일.

사. 학습 부진아 교육

■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 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성격장애나 지적(知的)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
2. 학업 중단 학생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는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 중에서 성격장애나 지적 기능의 저하 사유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렵거나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에게 교육적 배려를 통해 학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업일수 및 교육과정 운영의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시행령 제54조).

아. 수업 연한,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 초·중등교육법

제27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 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은 재능이 우수한 학생에게 제23조·제24조·제26조·제39조·제42조 및 제46조에도 불구하고 수업 연한(授業年限)을 단축(수업상의 특례를 포함한다)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얻어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 졸업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능이 우수한 학생의 선정(選定)과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수업연한) 초등학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제27조의2(학력인정 시험) ①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험 중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③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④ 교육감은 상급학교 학생선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시험에 합격한 자의 합격증명과 성적증명 자료를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자료 제공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30조의6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감”으로 본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수료 및 졸업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③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53조(조기진급·조기졸업 등)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진급·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제39조에는 초등학교의 수업연한을 6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재능이 우수한 학생에 대한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법 제27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초·중등교육법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조기 진급 및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는 교과목별 조기 이수 대상자의 선정, 교과목별 조기 이수자의 학력 인정,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에 관한 제도의 시행 등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시행령 제50조에서는 교육과정의 이수 정도에 따라 수료 또는 졸업을 학교의 장이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각 학년의 수료는 수업 일수의 2/3 이상 출석으로 하고 있으며, 졸업은 해당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여 학업을 마침을 의미한다.

자. 교과용 도서의 사용

■ 초·중등교육법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①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교과용 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5조(교과용도서의 사용)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도서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는 학교에서는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교과용 도서는 교과서 및 지도서를 의미한다.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 도서는 ‘국정 도서’, 민간에서 저작하여 교육부 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는 ‘검정 도서’, 국정·검정 도서가 없는 경우나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혹은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는 ‘인정 도서’로 구분하고 있다. 시행령 제55조에 의한 교과용 도서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용 도서 개발의 기본 방향은 핵심역량 및 교과 역량을 목표로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하고, 융합적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주형미 외, 2015).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교육과정 구현을 위한 다양한 자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총론에서 제시한 추구하는 인간상,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초등학교 교육 목표,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지침, 그리고 해당 교과목의 성격, 목표, 내용, 방법, 평가의 기준을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학습자 중심의 다양하고 질 높은 교과서를 편찬하려면 국정·검정·인정 도서를 막론하고 교과서 편찬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학생의 창의력과 사고력, 탐구력을 중시하고 교수·학습 현장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의 자율 학습이나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유도할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고, 친절하며, 활용하기에 편리한 교과서를 편찬하겠다는 기본적인 신념과 구성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다양한 편집, 새로운 디자인 기법을 도입하여 가독성을 보다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의 학교 교육에서 사용되는 교과서의 모습은 서책 위주의 ‘교과용 도서’로서의 협소한 개념이 아니라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다양

한 교수·학습 자료가 함께 활용되는 ‘교육과정 자료’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차.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 초·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 ①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8.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10. 학교급식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2.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②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자문한다.
-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위원회에서는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과 ‘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또는 자문하도록 하고 있다. 단위 학교 수준의 교육 목표와 교육 중점, 교육 내용, 방법, 평가에 관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권한은 해당 학교의 장에게 있지만, 학교의 교과·창의적 체험 활동을 어떻게 운영하고 지원하여야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일은 지역 사회와 학교, 교원, 학부모 모두

가 함께 실현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그러므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지역의 특수성과 학교의 실정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여, 학교장의 학교 경영을 지원해 줌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학교의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학부모, 명예 교사, 지역 사회 전문가 등 다양한 인적 자원과 학교 밖의 시설 자원을 잘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경험의 폭을 넓혀주고,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학교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데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과 관련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수준별 수업을 권장하는 교과와 경우, 학습 결손을 보충하기 위한 ‘특별 보충 수업’의 운영과 지원 방안
- ② 교과, 창의적 체험 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 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계획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 ③ 교과용 도서 이외에 교육 정보망, 멀티미디어 등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방안
- ④ 독서 교육을 활성화하고, 도서관(실)을 확충하는 방안
- ⑤ 체육 대회, 합창 대회, 축제 등의 교육적인 학교 행사의 운영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 ⑥ 도시와 농·어촌 및 다른 나라 학교와의 교류 체험 학습, 현장 학습 등과 관련한 효율적인 지원 방안
- ⑦ 귀국자 자녀 특별 학급이나 심신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 학급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학교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모색하고자 할 때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은,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은 교원의 전문적이고도 고유한 업무이기 때문에 교원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이를 침해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대해 심의를 할 때는 학교장의 교육과정 운영 및 의사 결정에 관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는 사항도 국가 수준의 기본 지침에 규정되어 있음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카. 장학 지도

■ 초·중등교육법

제7조(장학지도) 교육감은 관할 구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教授)·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할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조(장학지도) 교육감은 법 제7조에 따라 장학지도를 하는 경우 매학년도 장학지도의 대상·절차·항목·방법 및 결과처리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장학지도 대상학교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7조에는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장학 지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 장학은 ‘교육 활동의 개선을 위한 모든 지도·조언 활동’이라고 볼 수 있으며, 장학의 궁극적 목적은 ‘수업 개선(improvement of instruction)’에 있으므로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학 지도는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에 초점이 있다고 하겠다. 장학 지도 실시 세부 계획 수립에 관하여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되어 있다.

타. 학교 규칙

■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전반을 위해서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따라 학교 규칙을 제정하여야 하며, 학교 규칙의 기재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에 명시되어 있다.¹²⁾

12) 학교 규칙의 기재 사항은 ① 수업 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②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③ 교과·수업 일수 및 고사와 과점수료의 인정, ④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⑤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⑥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⑦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 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⑧ 학생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 ⑨ 학칙개정절차, ⑩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등이다.

파. 학생 자치 활동

■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제17조에는 학생의 자치활동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다. 자치활동은 학교의 규정에 따라 교육적 활동을 조직하고, 학생들이 담당할 역할을 분담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하. 평가 및 학교생활 기록

■ 초·중등교육법

제9조(학생·기관·학교 평가)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 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과 그 관할하는 학교를 평가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교육행정의 효율적 수행 및 학교 교육능력 향상을 위하여 그 관할하는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를 평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기준·절차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평가 대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이 그 관할 구역에서 제3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학교생활기록)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 성취도와 인성(人性)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인적사항
2. 학적사항
3. 출결상황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5. 교과학습 발달상황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7. 그 밖에 교육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전출하면 제1항에 따른 자료를 그 학생이 전입한 학교의 장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수준에서 주기적으로 학생의 학력에 대한 평가, 학교와 교육 기관 평가,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다. ‘질 관리 중심의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개정에서 추구하는 변화가 문서 수준의 수사적 변화에 머무르지 않고 교육 현장에서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다. 그러므로 국가나 시·도 교육청에서 의도한 교육과정이 구체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 점검하기 위해 주기적인 학생 학력 평가, 학교 평가, 교육과정 평가 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9조는 학생의 학업 성취도 평가, 지방 교육 행정 기관과 학교에 대한 국가 수준의 평가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평가의 기준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2조에 제시되어 있는데, 그 핵심적 사항은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이다.¹³⁾ 특히, 학교 평가를 시행할 때에는 시책이나 사무 중심의 문서에 의한 형식적 평가에서 벗어나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통한 ‘수업 개선’이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는 질 관리 중심의 평가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5조는 평가 결과 기록 방법의 개선과 평가 자료의 활용에 관한 규정이다. 이 규정과 관련하여 교육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을 적용할 때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에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

1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조 ~ 제13조에는 학생의 평가, 평가 대상, 평가 기준, 평가 절차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09a).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과학기술부 제2009-41호. [별책 1].
- 교육과학기술부(2009b). 2009 개정 교육과정 해설: 총론.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부(1992a). 국민 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1992-16호.
- 교육부(1992b). 중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1992-11호.
- 교육부(1992c). 고등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1992-19호.
- 교육부(1997a).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별책 1].
- 교육부(1997b). 제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총론. 서울: 교육부.
- 교육인적자원부(2007). 초등학교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별책 2].
- 교육부(2013). 2015 융합형 교육과정 개편 추진 일정. (2013. 10. 25. 보도자료).
- 교육부(2014).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시안).
- 교육부(2015a).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15-80호 [별책 1].
- 김경자, 강태중, 강현석, 구정화, 김대현, 김두정, 김이경, 김인석, 김창원, 박경미, 박순경, 박창연, 소경희, 송진웅, 이경진, 이광우, 이승미, 장명희, 최상훈, 최진영, 허숙, 허경철, 홍원표, 황규호, 홍은숙(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 시안 개발 연구. 국가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 문교부(1954). 문교부령 제35호, 국민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범 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 별표 4, 고등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표. 1954. 4. 20.
- 문교부(1963). 국민 학교 교육과정. 문교부령 제119호. 1963. 2. 15.
- 문교부(1969). 국민 학교 교육과정. 문교부령 제251호. 1969. 9. 4.
- 문교부(1973). 국민 학교 교육과정. 문교부령 제310호. 1973. 2. 14.
- 문교부(1981). 국민 학교 교육과정. 문교부 고시 제442호. 1981. 12. 31
- 문교부(1987). 국민 학교 교육과정. 문교부 고시 제87-9호. 1987. 6. 30
- 문교부(1990). 편수 자료 I -교육과정 변천 및 편수 일반. 서울: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 미래창조과학부(2014). 범부처 국가 융합기술 발전전략 마련(2014. 3. 4. 보도자료).
- 민용성, 정민주, 문영주, 이태상, 조규판, 최병택(2009). 학교 교육과정 평가 도구의 타당화 및 평가 실행 체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09-6.
- 박순경, 김사훈, 김진숙, 백경선, 변희현, 안종욱, 양정실, 이광우, 이근호, 이미경, 이미숙, 이승

- 미, 이혜원, 정영근, 한혜정(2014). 국가 교육과정 총론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 2014-1.
- 이미숙, 박순경, 백경선, 김진숙, 민용성, 이근호, 이승미, 김사훈, 박명옥, 민부자(2013).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연구- 증보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 2013-13.
- 주형미, 윤현진, 이경언, 한혜정, 윤지훈(2015).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 개발 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ORM 2015-50-1.
- 함종규(1983). 한국 교육과정 변천사 연구(전편). 서울: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 황규호(2015). 국가 교육과정 개정과 교원정책의 대응과제. 한국교원교육학회 68차 연차 학술대회 자료집.
- 황규호, 강태중, 박하식, 백경선, 이영호, 이현주, 임유원, 정광희, 진동섭, 한혜정, 홍은숙(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구성방안 연구. 교육부.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2013). PISA 2015 draft science framework. Retrieved from <http://www.oecd.org/pisa/pisaproducts/Draft%20PISA%202015%20Science%20Framework%20.pdf> OECD, 2013
- Tomlinson, C.A.(1999). The differentiated classroom: Responding to the needs of all learners. Pearson.

【 기 획 】

남부호(교육부) 김대원(교육부)
이상수(교육부) 박남정(교육부)
신진수(교육부) 김용옥(교육부)
이현석(교육부)

【 집 필 】

온정덕(경인교육대학교)
김경자(이화여자대학교)
황규호(이화여자대학교)
홍은숙(성결대학교)
박희경(이화여자대학교)
이현주(경인교육대학교)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 - 초등학교 -

발 행 일 : 2016년 12월 15일

발 행 처 : 교육부

인 쇠 : (사)한국장애인문화인쇄협회